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CORE PRINCIPLES OF THE POSTMODERN ORGANIC CHURCH AND APPLICATION TO THE KOREAN CONTEXT

written by

JUNHYUNG LE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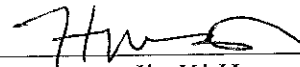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Euiwan Cho



Jeong Kii Min



Jin Ki Hwang

December 7, 2015

**CORE PRINCIPLES OF THE POSTMODERN
ORGANIC CHURCH AND APPLICATION TO THE
KOREAN CONTEXT**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JUNHYUNG LEE

DECEMBER 2015

포스트모던 시대
유기적 교회(Organic Church)의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용을 위한 핵심 원리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조 의 완 교수

이 준 형

2015년 12월

Abstract
Core Principles of the Postmodern Organic Church and
Application to the Korean Context
Junhyung Lee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church's understanding of its current postmodern times is questionable. Today's churches are off the mark in their ability to read the times and to edify the church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In other words, they lack an ecclesiology and biblical solution for the church to thrive in postmoder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us to provide appropriate alternatives for the churches in Korean and immigrant societies. It proposes the organic church as a solution in an effort to recover in the current times the New Testament church as an organization not limited to locations that is mobilized by Jesus and like a family.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s how an organic church can be actualized in the Korean and immigrant societies and presents examples of organic churches.

Chapter 1, the introduction, describes the motive, purpose,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Chapter 2 discusses the two critical situations of current postmodernity and church fixation. Chapter 3 explains the DNA of the organic church and the eight principles of the organic church. Chapter 4 examines how these principles work in reality through the cases of two churches, the Mission House Church and Vineyard House Church, as well as interviews and other data from organic churches in Korean and immigrant contexts. Based on the examination in the previous chapter, chapter 5 then proposes relevant alternatives and separates the eight principles into the core and peripheral ones.

Chapter 6 concludes the study by dealing with the meaning of organic church research. This study hopes for healthy churches that shape all people to follow

Jesus Christ through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Through the eight principles of the organic church and examination of how the early church was organic, the study broadens ecclesiological understanding, points to the ideal direction for churches, and raises a positive outlook for organic churches to be built in Korean and immigrant societies.

Theological Mentors: Euiwan Cho, PhD
 Jeong Kii Min, PhD
 Jin Ki Hwang, PhD

헌사

이 논문을 사랑하는 아내 김인실님께 바칩니다.

감사의 글

2003년 어렵게 시작한 신학이 벌써 1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과 벗들과 동역자들 덕에 지금의 제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노심초사 아들의 인생을 위해 기도해준 어머니 오춘애 집사님과 사랑하는 두 누이(언주, 현주)와 온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언제나 든든한 영적 지원자가 되시는 장인어른 김경열 집사님과 장모님 남계순 집사님, 기도원에 계시는 처 할머니 최옥심 권사님, 물심양면 에써준 처형들과 처제네 가족들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본 논문을 쓰도록 동기 부여를 해주신 황진기 목사님과 인터뷰 통역을 맡아주셨던 황영실 사모님, 그 가정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과 삶에서 유기적 교회가 더욱 실현 가능한 것이 되도록 큰 도움을 주시고, 논문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Keith Giles와 William T. Bill Faris, 그리고 이남하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후원자로 도움을 주셨던 고명희 권사님, 박정화 자매 두 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함께하는교회 김태완 목사님과 김해령 사모님, 그리고 지난 3년간 배려와 사랑으로 보듬어주신 모든 성도님 한분 한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논문을 지도하느라 고생하신 조의완 교수님, 부심으로 큰 격려를 해주신 민종기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계시는 처 할아버지, 그리운 김순도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김인실, 늘 곁에서 응원하는 당신은 나에게 큰 힘이자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에스더, 다니엘, 예주, 너희가 있어서 아빠의 공부마칠 수 있었단다. 고마워!

이 모든 감사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립니다.

2015년 12월 이준형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 및 개요	5
제 2 장 포스트모더니즘과 교회의 고착화	7
제 1 절 포스트모던 사회의 다섯 가지 특성	8
1. 관계 중심적	9
2. 진실성	12
3. 체험 중시	14
4. 신비와 여정의 추구	15
5. 다양성	17
제 2 절 포스트모던 사회에서의 고착화된 교회의 상황	19
1. 내부적인 고착화	19
2. 외부적인 고착화	21
제 3 장 프랭크 바이올라와 닐 콜의 유기적 교회론	25
제 1 절 유기적 교회의 정의	27
제 2 절 유기적 교회의 DNA	33
1. 프랭크 바이올라(Frank Viola)의 DNA	34
2. 닐 콜(Niel Cole)의 DNA	36
제 3 절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	38
1. 성직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깨뜨리다	39
2. 건물 중심의 패러다임을 벗어나다	49
3. 교회의 모든 통제권을 그리스도께 드리다	56
4.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다	62

5. 기능적 사고방식으로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하다	66
6. 작고 단순하며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다	73
7. 유기체의 자연스러운 증식을 이루다	77
8. 하나의 교회, 네트워크로 발전하다	84
제 4 장 유기적 교회 사례 분석	91
제 1 절 유기적 교회로의 개척 사례 : The Mission House Church	92
1. 교회 소개 및 인터뷰 진행 방식	92
2. 교회 개척 배경	92
3.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들에 대한 비교 분석	93
가. 핵심 원리 1. 성직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깨뜨리다	94
나. 핵심 원리 2. 건물 중심의 패러다임을 벗어나다	96
다. 핵심 원리 3. 교회의 모든 통제권을 그리스도께 드리다	97
라. 핵심 원리 4.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다	99
마. 핵심 원리 5. 기능적 사고방식으로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하다	100
바. 핵심 원리 6. 작고 단순하며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다	102
사. 핵심 원리 7. 유기체의 자연스러운 증식을 이루다	103
아. 핵심 원리 8. 하나의 교회, 네트워크로 발전하다	105
4. 평가	105
제 2 절 전통적인 교회에서 유기적 교회로 전환 사례: Vineyard House Church	107
1. 교회 소개 및 인터뷰 진행 방식	107
2.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 배경	108
3.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들에 대한 비교 분석	110
가. 핵심 원리 1. 성직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깨뜨리다	111
나. 핵심 원리 2. 건물 중심의 패러다임을 벗어나다	112
다. 핵심 원리 3. 교회의 모든 통제권을 그리스도께 드리다	113
라. 핵심 원리 4.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다	115
마. 핵심 원리 5. 기능적 사고방식으로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하다	116

바. 핵심 원리 6. 작고 단순하며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다	117
사. 핵심 원리 7. 유기체의 자연스러운 증식을 이루다	118
아. 핵심 원리 8. 하나의 교회, 네트워크로 발전하다	119
4. 평가	120
제 3 절 한국과 한인 이민 사회에서의 유기적 교회 사례	122
1. 한국에 세워진 유기적 교회들	123
2. 이민 사회에 세워진 유기적 교회들	126
3. 평가	127
제 5 장 한국적 상황에서의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의 적용	129
제 1 절 한국적 상황에 대한 이해	129
1. 한국 사회에서의 개신교의 위치	130
2. 한국 개신교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	133
제 2 절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한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의 적용	135
1. 실행 가능한 유기적 교회 모델 제안	136
가. 개척으로 실현하는 유기적 교회	138
(1)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개척	138
(2) 믿는 사람들과의 개척	140
나. 전통적인 교회에 접목하는 유기적 교회	142
2.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의 적용	145
가. 선행되는 핵심 원리의 적용	146
(1) 평신도 주도형 교회	147
(2) 건물 없이 모이고 흠어드는 교회	148
(3) 통제 없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149
(4)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 교회	151
나. 후속적인 핵심 원리의 적용	152
(1)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교회	152
(2) 작고 단순한 구조의 교회	154

(3) 자연스러운 증식이 나타나는 교회	155
(4) 네트워크로 하나가 되는 교회	157
제 6 장 결 론	159
제 1 절 연구의 요약	159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과제	163
부록 1 유기적 교회 사례 인터뷰 1.	167
부록 1 유기적 교회 사례 인터뷰 2.	179
부록 1 유기적 교회 사례 인터뷰 3.	195
참고문헌	204
Vita	211

그림 목 차

<그림 1> 프랙탈 디자인(Fractal Design)	86
<그림 2> 확장되는 네트워크 구조의 예	87
<그림 3> 크고 작은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버키 볼(bucky ball) 모형	9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본 연구자의 아이들(4세, 6세)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아이들의 시각에서 보는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던 적이 있다. 아이들은 자신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대로를 여과 없이 말한다. 그런 아이들이 말하는 교회는 어른들이 지금껏 추구해 왔던 교회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말해줄 것이다. 아이들은 별 고민 없이 '건물'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했다. 얼마 전 교회가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사용되던 건물 주변을 지날 때마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곳을 가리켜 '우리 교회'라고 부르곤 했다. 아이들은 분명 교회를 건물이라고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함께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 교회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일반적인 인식이다.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인식한다.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며 신앙을 나누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일 뿐, 교회 그 자체로 불리지는 않는다. 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건물, 혹은 그와 비슷한 수준의 인식(교회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교회에 대한 인식)에서 이야기한다. 이것은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되짚어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닐 콜(Niel Cole)은 교회의 성공 여부를 숫자와 규모에 두지 말고 '영향력'에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¹⁾ 그러나 지난 세기 동안 한국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 혹은 규모로서의 교회에 대한 사역에 집중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1) Niel Cole, *교회 3.0 (Church 3.0)*, 안정임 역 (교양, 경기: 스텝스톤, 2012), 116.

성공 지향적인 교회를 기대하고 추구했었고, 그 길이 바른길이라 생각해왔다. 따라서 교회 성장이 곧 교회의 성공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성공 지향적인 한국 교회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리내었으면 좋았겠지만,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가 당면한 교회의 문제는 오히려 교회 성장만을 추구했던 것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천문학적인 재정과 무한대의 인적 자원이 투입되었음에도, 현재의 교회들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보다는 골칫거리 정도로 여겨지고 있고, 부패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점철되고 있다. 2014년에 나온 한국 영화 “퀴바디스 2014”²⁾는 이러한 교회 성장주의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영화 속에는 이런 문구가 등장한다. “교회는 점점 커졌고, 예수는 점점 작아졌다. 아버지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고, 아들 목사가 다음 주인이다. 다들 탐욕에 미쳐버렸지만, 교회엔 침묵만 흐를 뿐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누구의 가슴도 뛰게 하지 못한다. 교회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모임이라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야 한다. 퀴바디스 한국교회? 그리고 퀴바디스 한국사회?”³⁾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발표한 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 후기 및 자료집을 보면, 지난 6년 동안 총 5회의 반복측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신뢰도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신뢰도 아니고 불신도 아닌 수준’인 3점보다 낮은 18.4퍼센트, 19.1퍼센트, 17.6퍼센트, 19.4퍼센트, 그리고 2013년에는 그 점수가 2.62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회가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사회적인 신뢰도를 점점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자료를 보면, 한국교회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에 관해,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서(24.8퍼센트), 교회 내부적 비리/부정부패가 많아서(21.4퍼센트), 타종교에 대해 비판적/배타적이어서(10.2퍼센트), 선교활동이 지나쳐서/강압적으로 전도해서(10.0퍼센트), 믿음을 주지 않아서(5.9퍼센트), 목사/지도자 윤리문제 및 부도덕한 행동 때문에(5.8퍼센트) 등의 순으로 응답한 것을 보게 된다.⁴⁾

2) 김제환 감독, 퀴바디스 2014, 단유필름, 2014. 영화 ‘퀴바디스 2014’는 단유필름에서 제작하고, 김제환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이다. 이 영화는 105분에 걸쳐 한국 교회의 탐욕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그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12월 10일 이 영화가 상영될 당시 상당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는데, 동시에 한국 대형 교회들의 막강한 지지를 받기도 했다.

홈페이지: <http://www.funding21.com/project/detail/?pid=52> 참고.

3) <http://quovadis-tour.tistory.com/1> 참고.

이처럼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앞서 기윤실에서 보고한 이유들 외에도, 교회가 사람에게서 관심이 멀어진 것,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 너무 물질주의로 치중된 것, 성장을 위해 건물이나 프로그램에 너무 의존된 것, 조직이나 행사들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등의 이유들도 한국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들이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 혹은 프로그램과 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⁵⁾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끌어 모아서 같은 신앙 교백 아래에 묶어두며,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교회이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영향력'을 드러내야 한다. 그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유기적이어야 한다.

본 연구자가 주장하는 유기적 교회란, 기존의 방식(비효율적인 제도와 관습에 의지하는 교회 운영 방식)을 벗어난, 관계 중심적이며 효율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그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교회는 본질에 더 충실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그 본질에서 나오는 방식의 변화 즉, 목회자와 프로그램에 덜 의존하는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가 관습과 제도,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 복잡한 절차와 규정, 상하의 조직적인 구분 등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초대 교회의 특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뿐이다.

교회가 유기적이라는 것은 곧 프로그램이나 한 사람의 리더(목회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생명체인 모든 성도가 스스로 자립하여 생존할 수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 이 유기적 교회는 구분된 성직자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모임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누구나 인도자가 되어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건물에 갇힌 끌이 모으기 식의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의 터전(가정, 직장, 관계의 공간, 취미의 공간 등)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교회를 말한다. 이러한 유기적 교회는 자연스러운 증식을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서로 나누는 것(셀이나 구역 등)이나, 교회 안으로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오

4)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 후기 및 자료집* (서울: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4), 13. 홈페이지: <http://trusti.tistory.com/938>

5) Niel Cole, *교회 3.0*, 116.

는 것(전도, 태신자 작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증식은 그 특징이 밖으로 향하며, 무한한 개체의 양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한 사람을 섬김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개척되고, 그 교회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 지역의 한 교회를 이루어내는 방식으로서의 증식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 증식의 방법이다. 따라서 유기적 교회는 대형 건물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각 처소(주차장, 클럽, 카페, 가정, 직장, 취미의 공간, 거리 등) 어디에서든지 교회가 개척될 수 있고, 이들 하나하나가 거대한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서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동체성을 공유한다. 그러므로 그 파급효과는 기하급수적이지만, 규모는 집조직에 가깝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유기적 교회는 복음의 확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의 교회 개척 사역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교회가 지금껏 유기적 특성들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지난 세기 동안 유기적 특성을 강조하여 탄생한 교회들은 참 다양하고도 많았다. 그런데도 교회가 본질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한 상태로 회복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의 교회들은 그 유기적 특성이 왜곡되거나 변질됐다. 새롭게 시도된 유기적 특성을 살린 교회들 역시 점점 변질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있고, 유기적 특성이라고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경직된 구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뒤틀린 교회의 전반적인 상태를 유기적 교회라는 잣대로 돌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즉, 제도권 교회의 시스템인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유기적 교회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포스트모던 사회와 한국적 상황이라는 큰 두 개의 현실을 전제로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고, 또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해결점은 유기적 교회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유기적 교회가 무엇인지, 그 핵심 원리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이 시대에 유기적 교회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그 목적이 있는 연구이다.

유기적 교회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여 교회를 연구한 최근의 대표적인 인물로

프랭크 바이올라(Frank Viola)와 닐 콜을 들 수 있다.⁶⁾ 본 연구는 이 두 사람의 유기적 교회에 대한 이론들을 비교 분석하여 핵심 원리를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더욱 적용 가능한 차원에서의 유기적 교회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찾아낸 유기적 교회의 핵심원리를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유기적 원리를 따라 활동하는 교회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적 상황과 한국 교회 안에 올바른 모델로서 유기적 교회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방법 및 개요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유기적 교회에 대한 이론 정립을 위해 다양한 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논문과 저술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문헌조사 방법을 기초로 하며, 이러한 이론적 연구의 실험적 적용이 되는 사례를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무엇보다 인터뷰에 응한 세 교회의 사례는 유기적 교회를 정리하고, 대안을 확정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한 본 논문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서론으로 유기적 교회를 연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 및 연구 범위와 방법에 관해 논할 것이다.

2장에서는 현재 교회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와 교회의 고착화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 관해서는 그 특성에 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긍정적인 특징 다섯 가지 정도를 살펴볼 것이다. 또 교회의 고착화에 관해서는 이러한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교회의 외부적인 고착화와 내부적인 고착화

6) 프랭크 바이올라와 닐 콜은 유기적 교회를 신약 성서와 실제적인 자신의 목회 경험들 속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 온다. 이들이 말하는 유기적 교회는 예수님이 미리가 되시고 몸의 지체인 우리가 유기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 교회 본질이 손상되지 않은 채 자연적으로 잘 성장하는 교회를 말한다. 서로 다른 점은, 프랭크 바이올라가 유기적 교회의 개념을 초대 교회에서 많이 가져온다면, 닐 콜은 복음 전파(씨 뿌리기)와 증식이라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현시대의 상황을 연결해서 유기적 교회의 개념을 끌어온다. 프랭크 바이올라가 쓴 주요 저서로는 *누가 교회의 권위자인가?*, *1세기 관계적 교회*, *다시 그려보는 교회*, *유기적 교회 세우기* 등이 있고, 닐 콜의 저서로는 *오가닉 처치*, *교회 3.0*, *ITG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등이 있다.

의 이유를 살펴봄으로, 교회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된 저술들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의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3장에서는 유기적 교회에 대한 이론적 정립을 위해 프랭크 바이올라와 닐 콜의 저술들을 중심으로 문헌을 연구하며, 특히 이들의 이론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통으로 나타나는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들과 공통적이진 않지만, 그 중요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들을 찾아 정리할 것이다.

4장에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기적 교회의 특성을 가진 교회들인 The Mission House Church와 Vineyard House Church, 그리고 이남하 목사가 개척하거나 도움을 주어 한국과 이민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기적 교회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 교회가 어떻게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로 유기적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특별히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와의 비교를 통해 사례의 교회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 속에 나타난 교회의 유기적 특성들을 분석할 것이다.

5장에서는 한국적 상황에서 이러한 유기적 교회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들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서의 대안들을 제시해 볼 것이다. 무엇보다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적 상황 속에서 유기적 교회의 적용 가능성과 그것이 적용될 때 나타나게 되는 교회의 유형들을 소개할 것인데, 이를 통해 한국 교회 안에 적용 가능성 있는 유기적 교회 모델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문들을 요약정리하고, 몇 가지의 제언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 2 장

포스트모더니즘과 교회의 고착화

교회는 교회만의 특별함이 존재한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마 28:18-20)에 의해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고전 12:27)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가 되기(being) 위해 교회됨을 행하는(doing) 방식에서도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⁷⁾ 쉽게 말해서 교회가 선택하여 행하는(doing) 모든 방식은 다 교회가 되는(being) 것을 증명하는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날 교회들은 이 특별함을 모두 잃어버린 것 같다. 그 이유를 찾으려면 다양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영향'이고, 둘째는,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스스로 선택했던 '고착화 현상'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원인은 교회가 교회됨을 스스로 망각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시대를 파악하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교회라고 예외일 수 없다. 교회도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남아야 하고, 살아남아야만 예수님께서 맡기신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시대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립된 채 과거로 회귀(고착화)하려고 하는 모습은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먼저 이 시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회가 이 시대의 옷에 얼마나 어울리고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보아야 한다. 즉 포스트모던 시대에 관한 이해와 함께, 현재 교회의 상황과 한계 또한, 면밀히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더 발전된 모습으로 시대에 발맞추어 시대를 이해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세상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

7) Michael Frost, and Alan Hirsh, *새로운 교회가 온다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 지성근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1), 9.

라서 본 장에서는 이 시대의 정체성인 포스트모던 사회의 특징과 그 상황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의 고착화된 상황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제 1 절 포스트모던 사회의 다섯 가지 특성

현대 시대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공존하는 시대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세대를 초월하여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포스트모더니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모더니즘에 익숙해서 모던한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은 이미 포스트모던 문화에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는 스스로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주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100퍼센트 포스트모던 하게 살아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영역에서 포스트모던과 연관을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 영향력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다.⁸⁾

교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모던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무리 포스트모던을 ‘비관적인 희망적 사고’ 혹은 ‘미소를 띤 허무주의자’⁹⁾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오늘날 교회는 포스트모던의 영향력 아래에 존재한다. 레너드 스위트(Leonard I. Sweet)의 말처럼, “오늘 새롭고 혁신적인 것에 눈을 뜨더라도 내일은 그것이 낡고 진부한 것이 되는 것”처럼,¹⁰⁾ 포스트모던은 교회가 1년 전과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을 거부한다. 이것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뒤처지고 있고, 시대에 발맞추지 못해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일 뿐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던 세대의 특성에 관해 최동규는 자신의 책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 성장*에서 포스트모던 문화의 특징을 여섯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영성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강해지는 세대, 둘째, 일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한 세대,

8) 최동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 성장* (서울: 서로사랑, 2011), 12-13

9) ‘비관적인 희망적 사고’, ‘미소를 띤 허무주의자’는 포스트모던에 비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포스트모던을 비꼰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다. 모더니즘에서 볼 때 포스트모더니즘은 현재의 구조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날카로운 대안을 말하지만 때로는 잘 포장된 실행 불가능한 것들만 주장하는 허무주의자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로 포스트모던을 정의한다. Eddie Gibbs, *넥스트 처치 (Next Church)*, 임신희 역(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3), 27.

10) Leonard I. Sweet,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Aqua Church)*, 김영래 역(서울: 좋은씨앗, 2004), 25.

셋째, 탈 중심화 현상이 강한 세대, 넷째 다원주의적 경향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세대, 다섯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과 참여를 추구하는 세대, 마지막으로 여섯째, 유동성 문화(Liquidity Culture)를 중요한 가치로 삼는 세대이다.¹¹⁾ 레너드 스윗은 이러한 포스트모던의 문화를 “EPIC 문화”라는 말로 규정한다. 이것은 경험을 중시(Experiential)하고, 참여적(Participatory)이며, 이미지 중심적(Image-driven)이고, 관계 중심적(Connected)인 포스트모던의 특성을 그대로 대변하는 말이다.¹²⁾

최동규와 레너드 스윗이 주장하는 포스트모던에 관한 특성을 정리하면, 오늘날 이 시대의 주류 문화인 포스트모던은 다섯 가지 정도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포스트모더니즘 문화는 일보다는 관계 중심적이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 문화는 탁월성보다는 진실성에 더 가치를 둔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 문화는 논리보다는 체험을 더 높게 평가한다. 넷째, 포스트모더니즘 문화는 해답보다는 신비와 그 여정을 더 추구한다. 다섯째, 포스트모더니즘 문화는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한다.¹³⁾

1. 관계 중심적

오늘날 사회에서 관계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없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사회는 이동성의 증대와 공동체의 해체라는 특성이 두드러지게 생겨났다. 결혼의 붕괴, 일자리 실종, 일인 가구의 증대 등 사람이 사회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환경적 요인이 붕괴하고 있다. 대신 그 자리를 공허한 오락이 과다하게 채워지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대우에 길든 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서 사람들은 좀 더 친밀하고 영적인 세계를 찾고 있다.¹⁴⁾ 대표적으로 오늘날

11) 최동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 성장*, 18-22.

12) 레너드 스윗은 1999년에 발표된 *Soul Tsunami*에서 EPIC 모델을 경험적(Experiential), 참여적(Participatory), 상호작용적(Interactive), 공동체적(Communal)으로 설명하였다. 그 후 2000년에 출판된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Postmodern Pilgrims)*에서는 ‘I’를 이미지 추구적(Image-driven)으로 ‘C’를 관계적(Connected)으로 재해석하였다. Leonard I.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Postmodern Pilgrims)*, 김영래 역(서울: 좋은씨앗, 2002), 61-62.

13) 닐 콜은 포스트모던의 특성을 여섯 가지로 본다. 그는 지금 이 사회가, 관계, 진실성, 체험, 신비, 다양성, 여정이라는 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이 과거 모더니즘 사회와 다른 독특한 특성이라고 설명한다. Niel Cole, *교회 3.0*, 66-89 참고.

14) Leonard I. Sweet, *관계의 영성(Out of Question, into the Mystery)*, 윤중석 역(서울: 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옛 권위와 관련된 결혼, 가족, 교회, 국가, 민족과 같은 근대적인 친밀 관계나 전통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에는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관계적인 그룹들과 개인화된 종교 생활 등은 영위하고 있다. 즉, 획일화된 집단으로 취급받는 것은 싫어하면서도,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중심적인 생활 방식을 선호하는 특징이다.¹⁵⁾ 따라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만족과 자기 발전과 연관해서 지극히 개인화된 내적인 영적 생활을 누리는 종교성을 추구하며, 필요하다면 공동체에도 소속되기를 거부하지는 않는다.¹⁶⁾ 쉽게 표현하면, 모더니즘의 사고 방식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관계와 관계의 근본 체계(권위, 체면 등) 등은 거부하면서도, 개인적인 만족과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공동체성을 추구하거나 종교생활 등을 추구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없는 것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것이다. 김운용은 이와 같은 관계 중심의 포스트모던의 특성에 관해 “개인 지향적 특성과 또래 집단의 형성의 이중성”이라고 표현했다.¹⁷⁾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ean Francois Lyotard)는 이와 같은 관계 중심적인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서로 다름(differences)에 대한 각자의 감각을 세련되게 다듬어 주고, 나와 다른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용의 능력을 강화해주는 것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¹⁸⁾ 그의 주장을 따르면, 포스트모던 시대의 관계를 맺는 공동체는 이 다름을 전제로 한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서 배우고, 그만큼 유익이 있고, 자기 발전과 개인적인 만족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 관한 기준인 ‘수평적 관점’ 때문이다. 즉, 포스트모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작용적인 정신적 분위기 속에서 사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⁹⁾ 따라서 포스트모던 시대는 모더니즘의 개인주의의 자리에서 벗어나 ‘연계’와 ‘공동체성’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동안 모더니즘 사회의 공동체성이 하나의 거대 집단 혹은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었다면, 포스트모던 사회는 그 자체 문화에 의해서 공동체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주의가 아니라

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1), 44.

15) Leonard I. Sweet,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198.

16) 위거찬, *기독교와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55.

17) 김운용,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설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7), 148.

18) 김영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세계관*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9), 32에서 인용.

19) 이형기,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기독교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3), 88.

공동체 속의 개인들이 상호 관계를 경험하며, 그 관계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성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그 관계를 통해 거대담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바로 포스트모던의 관계 중심적인 특성이다.²⁰⁾

이처럼 포스트모던 사회에서의 관계는 인간의 삶과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놀라운 점은 이 관계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눈부시게 발전한 첨단 기술들(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새로운 종류의 친밀한 그룹들을 형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²¹⁾ 레너드 스위트는 오늘날 인터넷(internet)이 이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법”으로 인터넷이 부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들은 가상의 공동체일 뿐이지만, 현대의 단절된 사회에서 가장 손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²²⁾ 그래서인지 친밀함에서 오늘날 교회의 모임보다 더 활발한 모임들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일어난다. 즉,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오프라인의 세계가 아니라 온라인의 세계에서 관계 맺기를 더 선호하고 있는 이유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선이 흐려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²³⁾ 직접적이지 않은 이 관계 맺음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모더니즘의 시대와 달리 포스트모던 시대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만 살펴봐도, 오늘날 관계에 관한 부분이 얼마나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과거 모더니즘 사회에서의 리더십의 명제는 ‘직선이 되라(Get Linear)’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포스트모던 사회에서의 리더십의 명제는 ‘고리가 되라(Get Looped)’는 것으로 바뀌었다.²⁴⁾ 모더니즘의 개인주의가 서로의 관계를 고립시키고 있을 때, 오늘날 사회가 요구하는 포스트모던 리더십은 한 개인이 연결고리로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다양한 그룹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인간의 고립에서 출발한 현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20) 이형기,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기독교 신학*, 89.

21) Clay Shirky, *클릭과 쏘리고 들끓다 (Here Comes Everybody)*, 송연석 역(서울: 캘리온, 2011), 25.

22) Leonard I.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이지혜 역(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172.

23) Leonard I. Sweet, *관계의 형성*, 45.

24) Leonard I. Sweet,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242-243.

포스트모더니즘은 지극히 집단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였던 모더니즘 시대의 어두운 면에 존재했던 고립들을 오히려 해결하려는 모습들로 나타난 문화 현상이다. 즉, 포스트모던은 이 시대에 필요한 '관계 지향적'인 새로운 모형을 다시 창조하고 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화된 공동체성의 추구이자, 서로 다름을 수용하는 수평적인 구조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서슴지 않고 도입하여 이전에 없었던 관계망을 창조하며 사람들을 공동체로 묶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진실성

포스트모더니즘 세계관의 중심에는 '상대주의'가 존재한다. 조나단 쿨러(Jonathan Culler)는 포스트모던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개념이라는 것은 무의미하거나 혹은 임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⁵⁾ 각 사람 혹은 각 민족이 가지는 고유한 세계에 대한 이해와 개념들은 그들이 속한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알맞게 이해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패러다임들은 곧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인식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주의의 입장에 선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절대적인 기준의 기초주의 철학에 거부감을 가진다. 반면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거대 담론(이성에 따라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정의했던 상황 혹은 이야기)들의 '진실성'에 더 후한 점수를 준다. 모더니즘 시대와 같은 절대적인 기준은 사라졌지만, 지금 시대의 사람들과 사회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성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라는 것이다.²⁶⁾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사람들이 과거 모더니즘을 신봉했던 사람들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단어는 바로 '위선'이다.²⁷⁾ 앞서 설명한 것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이 관계를 극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또 진실성을 큰 가치로 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나

25) Jonathan Culler, *On Deconstruction: Theory and Criticism after Structuralism*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2), 22.

26) 위기찬, *기독교와 포스트모더니즘*, 43-46 참고.

27) David Kinnaman, and Fermi Project, *나쁜 그리스도인 (Unchristian)*, 이혜진 역(파주, 경기: 살림, 2008), 74.

사회에 대한 거짓을 가장 큰 증오로 받아들인다. 과거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진실함이 ‘탁월함’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했다. 탁월하면 어느 정도 진실 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눈감아 주기도 했다. 이것은 모더니즘이 산업혁명 이후 계몽주의의 여파로 그 가치를 오로지 성장이라는 것으로만 증명하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즉 성장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나타난 부작용이었다. 성장하기 위해 탁월함을 추구했었고, 탁월함을 추구하다 보니 진실성은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다. 실제로 탁월한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진실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어도, 모더니즘의 사회는 성장이라는 핑계로 그 문제를 덮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선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된 것이다.²⁸⁾

레너드 스위트는 포스트모던 사람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덕목으로 ‘신뢰(Trust)’를 꼽는다. 그러나 이 신뢰는 모더니즘이 추구했던 유사성에 근거한 신뢰가 아닌 다양성을 기초로 둔 신뢰를 의미한다. 모던 시대가 ‘당신은 나와 똑같으니까 당신을 믿는다’라는 것이었다면, 지금 포스트모던 시대의 신뢰는 ‘당신은 나와는 다르지만, 당신을 믿는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 모두가 맹목적인 신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보호하고 세워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신뢰를 쌓아가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바로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추구하는 신뢰라는 것이다.²⁹⁾

그래서인지, 이 시대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절대적인 진리나 기준들은 거부하지만, 정직한 고백들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 인정하고 높이주는 성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가 커밍아웃(coming-out)을 하면, 과거의 모더니즘의 잣대로는 사회에서 배격 되어야 할 사람으로 낙인찍었지만, 오늘날 포스트모던 시대에서는 그 반대로 그것이 진실한 자기 고백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인정하며, 위로하고, 사회적으로도 높이주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 시대는 획일화된 기준과 성장이라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진실성에 가치를 두고 있다.

28) 위거찬은 이러한 성장의 대가로 치를 수밖에 없었던 모더니즘 시대의 손실에 관련한 예들로 1, 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 등과 같은 전쟁의 상흔들을 이야기 한다. 모더니즘의 가치 속에서 성장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의였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후대에 고스란히 남겨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거찬, *기독교와 포스트모더니즘*, 34-36.

29) Leonard I. Sweet,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291-292.

3. 체험 중시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체험을 중요하게 여긴다. 자신이 보고,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실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³⁰⁾ 레너드 스위트(Leonard I. Sweet)은 포스트모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미지라는 힘의 언어”를 주장한다.³¹⁾ 즉,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실제하는 이미지의 체험이 포스트모던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이다. 즉, 포스트모던은 체험을 통해 그 가치를 실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포스트모던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는 날개를 통해 그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체험을 적극적으로 경험한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능동적으로 관람하고, 인터넷상에서 독서를 하거나 탐험을 하기도 하고, 특별한 기술을 익히고, 문제를 해결해 간다.³²⁾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베이(eBay)와 같은 온라인 경매 사이트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같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체험 중심 문화를 잘 이해한 기업의 경영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³³⁾ 즉, 이베이는 사람들이 물건을 직접 고르고, 가격을 경매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중독성이 강한 포스트모던 문화를 체험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³⁴⁾

마이클 프로스트(Michael Frost)와 앨런 허쉬(Alan Hirsch)는 자신들이 쓴 책 *새로운 교회가 온다*의 서문에서 사막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포스트모던 축제를 소개하는데, 바로 버닝 맨(Burning Man)이라는 축제이다.³⁵⁾ 네바다(Nevada)주의 블랙 록(Black Rock) 사막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전 세계의 예술가들과 음악가들 및 소위 포스트모던(Post-Modern)에 심취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주일간 자유로운 생존과

30) Michael Slaughter, and Warren Bird, *미래를 담은 교회 (Unlearning Church: Just When You Thought You Had Leadership All Figured Out)*, 김형원 역(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106.

31) Leonard I.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41.

32) 이정구, “포스트모던 문화에서의 진도전략-공능교회 청년회를 중심으로”(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2), 37.

33) Leonard I.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61.

34) 김운용,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설교*, 121.

35) Michael Frost, and Alan Hirsh, *새로운 교회가 온다*, 17-23.

다양한 행사를 공유하는 축제이다.³⁶⁾ 그들은 이 축제를 통해 나눔과 환경에 대해 실천하고, 그들만이 추구하는 포스트모던의 영성-예술가들의 헌신 때문에 운영되는 감각적이고 일시적이지만 무엇보다 헌신과 공동체성, 신에 대한 경험, 그리고 대속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공동체성-을 경험한다.³⁷⁾ 즉, 비닝 맨은 포스트모던 사회가 추구하는 신념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인 것이다. MBC 다큐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 비닝 맨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는데, 이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으로 공감하고, 어떠한 공동체를 경험하기를 원하는지를 잘 말해주는 실례라 생각이 된다.³⁸⁾

이처럼 포스트모던은 체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이러한 사상을 따르는 자들을 꾸준히 자극하는 구조를 가진다. 즉, 체험이 이들의 정체성에 더 강한 자극을 주며, 그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4. 신비와 어정의 추구

과거 모더니즘의 틀에 의해 돌아가는 사회는 분석하고 해부하여 낱낱이 파악한 다음 결론 내리는 것을 좋아했다. 이는 어느 정도 경제적 원리와 맞물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회의 모든 기업이나 모임이 이윤 창출이라는 경제적 원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과 해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즉, 이윤의 극대화라는 '효과성'을 따라 평가하는 '실용주의'의 성공 여부를 따랐던 것이다.³⁹⁾ 따라서 과거 모더니즘의 세상은 복잡한 문제를 해부와 분석을 통해 매끄러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36) 비닝 맨은 그야말로 최고의 포스트모던 축제라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400평방 마일의 평평한 사막 분지, 40도가 넘는 그곳에서 오직 자신들이 준비해 온 것만으로 생존하며 축제를 즐기기 위해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예술가, 음악가, 보헤미안, 핑크족, 그래피티 아티스트, 래퍼, 행위 예술가 및 구경꾼들)이 자신들이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즐거움과 예술 행위들을 창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이는 축제이다.

37)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는 비닝 맨에 참가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심취한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갖는 특성을 네 가지로 본다. 첫째, 예술적 감수성을 지녔고, 둘째,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고, 셋째, 행동 지향적이며, 넷째, 신비적인 신앙 공동체를 찾는다. Michael Frost, and Alan Hirsh, *새로운 교회가 온다*, 23.

38) MBC 다큐 스페셜, 2013년 10월 21일 방영분.

39) John F. MacArthur, Jr.,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Ashamed of the Gospel)*, 황성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0), 28-29.

것을 선호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의 삶이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인간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그 신비라는 것은 단순히 해부와 분석을 통해 간단하게 설명되지 않는다.⁴⁰⁾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지만, 인간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체험 혹은 영적인 현상 등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다. 이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체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신비 체험과 같은 영적인 경험에 목말라하고 있다. 이들은 뉴에이지에서 아메리칸 인디언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이 있다면 마다치 않고 찾아 나선다.⁴¹⁾ 요가와 명상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일반화되어 알려지게 된 것도, 단순히 운동이 아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신비적인 체험이라는 요소가 가미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로테 쉴레(Dorothee Sölle)는 포스트모던이 추구하는 ‘신비주의’에 관해 “내가 이전에 주어지고 형성된 경계에서 벗어나는 것, 즉 일상성의 세계를 떠나고 동시에 이 세계로 인하여 규정된 존재로서의 자신을 떠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⁴²⁾ 여기에서 ‘이전에 주어진 경계’는 바로 모더니즘의 한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더니즘에서 극복된 나 자신을 스스로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신비 체험’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그의 주장을 따르면 오늘날 포스트모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과거에서의 탈피와 모더니즘의 극복이 된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비적 체험이란 영적 자유의 한계를 규정할 수 없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의미한다.⁴³⁾ 오강남과 성혜영은 신비주의를 경험해 가는 여정(길)에 관해 네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자의(self-awareness)의 길, 둘째는 정화(purification)의 길, 셋째는 조명(illumination)의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 실재와의 합일(unity)”이다.⁴⁴⁾ 즉, 신비주의를 경험해 가는 이와 같은 단계들을 거쳐서 결국 신비한 존재 혹은 세상과의 합일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모던이 추구하는 신비라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따

40) John F. MacArthur, Jr.,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34-35 참고.

41) Leonard I.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72.

42) Dorothee Sölle, *신비와 저항 (Mystik und Widerstand)*, 정미현 역(서울: 이화여자대학교, 2007), 55.

43) Dorothee Sölle, *신비와 저항*, 59.

44) 오강남, 성혜영,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서울: 북성재, 2013), 75.

르면 포스트모던 시대에 오면서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는 뉴에이지(New Age) 운동 같은 것도 “개인들이 직접 자신들에게 맞는 영성(신비 체험)을 구현하려는 새로운 시도들”로 볼 수 있다.⁴⁵⁾ 즉, 오늘날 포스트모던 사람들은 신비주의를 통해 앞서 언급한 도로테 쾰레의 말처럼 스스로 “규정된 존재로서의 자신을 떠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이러한 신비 체험의 목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은 인생이나 세상에 대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신비를 더 매력적으로 여기며, 목적지에 도착한 것보다 목적지까지 가는 그 여정을 더 즐거운 것으로 여긴다. 즉, 포스트모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더니즘의 딱딱한 과학 실험보다는 시적인 부드러움을 더 많이 추구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더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⁴⁶⁾

5. 다양성

포스트모더니즘 문화가 가진 다섯 번째 특성은 앞에 쓴 표현 다원주의이다. 이 다원주의는 원리적 다원주의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 한상화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것은 단순히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의미가 가지는 사실적, 경험적 다원주의를 인정하며, 철학적 또는 해석학적 다원주의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어떠한 주장이나 입장도 다른 입장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가진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근거로 하며, 하나의 진리 주장이 다른 진리 주장보다 더 객관적이고 옳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는 것이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은 실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에 접근할 수 없다고 믿으며, 오직 다양한 해석만이 가능할 뿐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다원성을 인정하고 타자를 관용하지는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식과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실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접근만이 있을 뿐이라는 근본적인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다.⁴⁷⁾

45) 오강남, 성해영,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167.

46) Niel Cole, *교회 3.0*, 84.

47) 한상화, *포스트모던 사상과 복음주의 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37-38.

이것은 합리성이 아닌 다양성과 그 속에서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획일성을 거부하고 ‘가치의 다면성(multi-valence)’을 추구한다. ‘순수성(purity)’보다는 ‘혼합성(impurity)’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본다.⁴⁸⁾ 즉, 포스트모더니즘은 혼합성의 모델을 복원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양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서로가 연습하는 것이고, 나아가 통합될 수 없는 문화적 차이 그 자체를 견뎌낼 수 있는 각자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즉, 포스트모던적인 탈 중심의 문화는 각 문화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합리성이며, 이것은 다원적이면서 동시에 전체가 서로 역동적으로 관계를 맺는 다층적이며 총체적인 혼합된 문화를 추구하는 것이다.⁴⁹⁾

포스트모더니즘이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는 이유는, 모더니즘이 추구했던 권위에 반발해 인간 해방이라는 모티브를 이루어내기 위함이다. 이것은 인간을 획일화하면서 동시에 통제하려 했던 모더니즘의 ‘실체적인(substantial)’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고, 세계에 대한 유기체적인 이해 또는 계속하여 변화해 가는 역사적 이해를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인간 스스로 실체적인 세계를 극복하며 다양성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⁵⁰⁾

그래서 이 시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인 한 가지의 진리를 거부하며, 상대적 진리를 더 인정한다. 이것은 나와 너의 다름이라는 전제가 곧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고, 각자의 생각과 사고는 자신을 대변할 뿐,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수용하는 형태의 다원성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성을 추구했던 모더니즘이 이루지 못했던 보다 더 높은 가치로의 서로를 향한 인정과 수용을 이루어내는 길이라고 보는 것이다.

48) Stanley J. Grenz,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포스트모던 시대와 기독교의 복음 (A Primer on Postmodernism)*, 김운용 역(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10), 63-68 참고.

49)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파주, 경기: 살림, 2009), 43.

50) 한상화, *포스트모던 사상과 복음주의 신학*, 38-39.

제 2 절 포스트모던 사회에서의 고착화된 교회의 상황

이상에서 몇 가지 살펴본 것처럼, 지금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해 기대한 가치변화의 지각변동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각변동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안전지대에 오늘날의 교회들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현대의 교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과 가치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가 포스트모던의 영향으로 변동해 가는 상황에서, 교회는 그런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다. 건물 중심의 교회 내부 문제에 갇혀서 감소하는 교인 수와 재정적인 압박에 주위를 돌아보지 못했다. 시대의 격변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로지 모더니즘 사상의 가치인 성장주의에 매달려 더 '크게, 많이'만을 외치며, 대형 교회(Mega-Church)를 지향하는 쪽으로 더 기울어 갔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도, 복음의 터가 되는 세상의 필요도 잊어버린 채, 교회 자체의 번영과 복을 향해서만 달려갔다. 이러한 상황은 곧 교회의 고착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교회의 고착화 현상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교회 내부의 고착화 현상이고, 둘째는 세상과 교회의 분리에서 나타나는 교회 외부의 고착화 현상이다. 이것은 곧 교회가 자생적인 개혁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외부적인 어떤 영향에도 여전히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쪽으로만 베풀어왔음을 뜻한다.

1. 내부적인 고착화

이상화가 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를 보면, 이 시대의 청년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현실성의 결핍이다. 교회는 자신들이 사는 세상의 현실성에서 너무 멀리 도망쳐 나온 것만 같은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교회의 경직성이다. 굳어 있는 교회, 변화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 답답함과 신물을 느낀다는 것이다.⁵¹⁾ 스스로 기록한 척하는 그런 모습은 더는 현대의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물론 교회 스스로 자생의 노력

51) 이상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 (서울: 브니엘, 2007) 참고.

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을 끌어당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교회 내부에서의 고착화 현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자성의 힘을 상실한 채, ‘제도권 교회(institutional church)’⁵²⁾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력 아래 지난 20세기에만 상당히 많은 교회 내부적인 개혁의 운동들이 일어났었다. 이 교회 갱신의 여러 시도는 사회적인 변화, 즉 포스트모더니즘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교회의 내부적인 구조를 개혁하려 했던 시도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시도들이 그렇게도 벗어나기를 원했던 제도권 교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아쉬운 현실이다.

프랭크 바이올라는 이러한 교회들의 자생 운동이 제도권 교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빗대어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가 아니라, 전에서부터 사용해왔던 낡은 가죽 부대에 다시 부어 재포장한 것임을 보여주는 예들”이라고 비판했다.⁵³⁾ 즉, 개혁을 추구하는 교회 갱신 운동들이 무늬는 개혁을 추구했지만, 실제적인 구조와 내용은 개혁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부적인 변화를 주고자 했던 교회들이 성경공부에만 치중하고 있거나, 교회의 목적과는 다른 일상적인 관심을 위해 모인 그룹들이 되거나, 제도적 형태를 고수하는 기형적인 모습의 가정 교회들이 되거나, 개인을 우상화하는 집단들의 모임이 되거나, 축복만을 지향하는 클럽 같은 분위기의 모임들이 되거나, 목적 없는 친목단체, 혹은 상처 입은 불평분자들, 아니면 아예 전통적인 관습을 버리지 못한 채 예배의 형태와 절차와 의식을 더 고착화하는 형태의 교회들로 변질하고 있다는 것이다.⁵⁴⁾

성경은 구원의 과정을 강조한다. 즉, 고착화 현상에 대해 비판적이며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다. 김세윤의 말을 빌리면, 성도는 성화의 단계를 예수를 고백하고 구원받

52) ‘제도권 교회’는 대부분 사람에게 익숙한 ‘기성 교회’, ‘바실리카 교회’, ‘전통 교회’, ‘조직 교회’, ‘성직자 주도의 교회’, ‘현대 교회’, ‘청중 교회’, ‘구경꾼 교회’, ‘강당 교회’, ‘세습 교회’,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 등의 교회들이 뭔가 이학 상으로 불충분하다는 느낌에서 프랭크 바이올라가 일컬어 부르는 명칭이다. 이는 시스템에 관한 용어로, 즉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명칭이다.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Re-imagining Church)*, 이남하 역 (대전: 대장간, 2013), 24.

53) Frank Viola, *1세기 관계적 교회 (Rethinking the Wineskin)*, 박영은 역(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2007), 23.

54) Frank Viola, *유기적 교회 세우기 (Finding Organic Church)*, 이남하 역(대전: 대장간, 2013), 120-123 참고.

게 되는 칭의의 단계에서 함께 시작한다. 이후 계속 이 성화의 단계를 꾸준히 이루어 가는 것이 성도가 견지해야 할 바인데, 오늘날 교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성도의 견인)으로만 구원론을 해석하기에, 현재 성도의 삶에 관한 관계적인 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⁵⁵⁾ 즉, 성도가 성화를 시작하여 마무리하는 그 부르심의 때까지 모든 삶이 과정인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경솔하게 다룬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과정의 삶을 중요시하고, 과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결과라는 것으로 굳혀버렸다. 결국, 교회 내에 신학적 부제가 나타났고, 구원파적인 구원론으로 사람들의 삶을 몰고 가도록 만들어 버렸으며, 이것은 곧 획일성이라는 모습과 함께 교회의 경직화로 나타났다. 교회에 가면 늘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자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이 시대는 이미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교회는 여전히 획일성을 추구하며, 획일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성의 특성들을 잃어버렸다.⁵⁶⁾ 실제로 대부분 교회가 비슷한 형태의 예배를 고수한다. 그 양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단이라는 취급받을까 두려워하면서 말이다. 예배의 틀이 중요하고, 그 틀 안에 반드시 교독문을 낭독해야 하고, 사도신경을 포함해야 하며, 찬송은 찬송가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교회들이 많다. 심지어 설교자의 축도 마지막 부분에 '할지이다.'로 끝나느냐, 아니면 '축원 드립니다.'로 끝나느냐에 따라 교단이 나누어지고 신학적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⁵⁷⁾ 나와 다르면 용납되지 않고, 다양하면 오히려 그릇된 것으로 취급받고, 모두가 동일한 모습, 똑같은 방법만을 고수하며 스스로를 고착화하고 있다.

2. 외부적인 고착화

외부적인 고착화는 내부적인 고착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세상과 교회의 분리현상이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 즉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교회의 사명으로 인식해 보아야 하는데, 지금 교회들이 이 사명에서 너무나도 고착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55) <http://www.newsjoy.us/news/articleView.html?idxno=3500>.

56) 최윤식,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172.

57) http://www.kec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3_05&write_id=5635 참고.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히쉬는 세상과 교회가 분리됨으로 인해 나타난 고착화된 교회의 모습을 '크리스텐덤(Christendom: 기독교 제국)'⁵⁸⁾이라 명명한다. 이것은 교회가 앞서 설명한 제도권 교회를 고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대개의 교회가 특징하게 설계된 건물과 성직자라는 제도와 연관되어 모든 교회의 영역에서 이러한 구별(분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데, 이러한 고정화된 관념이 세상에서 교회를 분리한다. 또 역사적으로 그 반대의 현상도 일어났는데, 크리스텐덤은 교회가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권력과 결탁하여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기를 의미하는 말로도 해석된다.⁵⁹⁾ 즉, 크리스텐덤은 교회가 그 본질적인 사명인 예수님의 지상명령(마 28:18-20)을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고착화되어 오히려 세상에서 분리되어 버림당해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모더니티에 갇힌 교회들 역시 크리스텐덤 시대를 살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세상에서 고립된 채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있다. 즉, 모더니티의 가치관에 몰들어 순결함에 더러움을 물이면서, 오히려 더 고착화되어 자신을 대변하고 지키려는 고집스러운 집단으로 변질한 채로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가 자신들의 안정감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다. 안정감을 빼앗긴 인간은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은 곧 분노로 변하게 된다. 한 가지 현실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은 것이 인간이 가진 욕구, 즉 안정감에 대한 욕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해서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몸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혈관을 타고 피

58) 크리스텐덤(Christendom: 기독교 제국)은 20세기 말까지 적어도 11세기 동안 유럽 사회를 지배했던 종교적 문화를 일컫는 말로, 이는 코스탄티누스 대제의 로마에서의 기독교 공인을 기점에서부터 출발한다. 순식간에 카타콤의 비밀 모임에서 제국의 총애를 누리는 종교가 된 기독교는 로마 황제의 보호 아래 '기독교 세계(Corpus Christianum)'를 영구적으로 만들어가고자 한 노력으로 발전된다. 르네상스 이후의 일반 사회는 이러한 크리스텐덤을 극복하였지만, 오늘날까지도 교회에서는 여전히 크리스텐덤의 메타내러티브(the Metanarrative, 대서사)가 신학적, 선교학적, 교회론적 이해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이 교회 본질로 이해되거나 교회 경험의 중심이 된 것, 리더십이 제도적으로 인수받은 목회자에 의해서만 수행되고, 그 구조 또한, 계층적인 집, 성례를 통해 제도화된 은혜의 방편이 증가하고 강화된 점, 교회를 사회와 주변 문화에서 중심부로 인식하는 점, 끌어모으는, 끄집어내는 교회를 여전히 추구하는 점 등이 바로 크리스텐덤의 메타내러티브 영향력이다.

59) Michael Frost, and Alan Hirsh, *새로운 교회가 온다*, 38.

가 흐르는 것처럼,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끊임없는 변화의 몸부림이 결국 자신을 변질시키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성숙의 기회는 찾아온다.⁶⁰⁾ 교회도 마찬가지로 변화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변화 없이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에 민감할 수 없고, 결국 성숙이 아닌 고착화되어 변질하고 만다.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포스트모던 사회는 모더니즘 사회에서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던 교파와 세례의 형태, 신학적 입장 등의 자리가 점점 축소되는 시대에 있다. 그 대신 사람들은 새로운 다양한 예배의 형태, 사회 경제적인 입장, 인종과 언어적인 배경, 지역 교회의 프로그램 등에 의해 교회를 선택하고 있다.⁶¹⁾ 마이클 슬로터(Michael Slaughter)와 워렌 버드(Warren Bird)가 쓴 *미래를 담는 교회*에서는 이러한 포스트모던한 사람들의 기대를 반영한 몇 교회들을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 미시간 주 잭슨 시에 있는 웨스트윈즈 커뮤니티 처치(Westwinds Community Church)⁶²⁾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포스트모던 한 현대인들을 교회 안에 수용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의 비전은 사람들을 돌봐 주면서 관계에 있어서 신뢰할만하고 창조적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든 감각을 자극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예배에 매우 감탄한다. 예를 들어 상처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예배에서 우리는 조명, 시각 예술, 향기, 음향, 촉각을 동시에 사용했다.⁶³⁾

돈 에버츠(Don Everts)와 더그 샤우프(Doug Schaupp)는 미국 IVF 콜로라도주 볼더 지역의 책임자로 오랫동안 캠퍼스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오늘날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의 생활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포스트모던 보이 교회로 돌아오다(I Once Was Lost)*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60) 권태산, *변화* (서울: 새한기획, 2009), 14-15.

61) Leith Anderson, *21세기를 위한 교회 (A Church for the 21st Century)*, 황성철 역(서울: 솔로몬, 1997), 35

62) 교회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westwinds.org>이다.

63) Michael Slaughter, and Warren Bird, *미래를 담는 교회*, 108-110.

된다는 것의 의미를 두 가지의 기초적인 사실로 설명한다. 첫째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비라는 것이다. 많은 포스트모던 청년을 향해 복음을 던져본 결과 이들은 믿는다는 그 자체가 신비라는 결론을 내린다. 둘째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과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⁶⁴⁾ 믿음을 향한 각자의 길은 다 독특한 과정들의 경험이다. 하지만 그 길들을 한데 모으면 놀랍도록 동일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신비하고 유기적이라는 사실이다. 한때는 기독교라는 말만 들어도 진지리를 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삶을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지나온 믿음의 과정이 이 신비와 유기적이라는 기초를 바탕으로 지나온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따라서 복음을 인간의 문화를 담는 그릇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문화를 초월하여 인간의 문화 안에 들어온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⁶⁵⁾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시대에 맞게 바꾸는 일이 된다.⁶⁶⁾ 결국, 교회는 시대 변화에 무심한 채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화답하며, 복음의 본질을 고수하되, 그 외의 영역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법칙을 따르지만,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기관으로서 주어진 장소와 시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교회는 새로운 세대를 잇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교회의 미래 모습에 대해 긴박감을 가지고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⁶⁷⁾

64) 돈 에버츠(Don Everts)와 더그 샤우프(Doug Schaupp)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회심으로 가기 위해 다섯 개의 문턱을 거쳐 가게 된다고 본다. 즉, 불신에서 신뢰의 문턱, 무관심에서 호기심의 문턱, 변화에 대해 닫힌 마음에서 열린 마음으로의 문턱, 방향을 넘어 추구로 가는 문턱,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앞의 문턱은 뒤의 문턱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경험에서 오는 근거와 바탕이 되며, 뒤의 문턱은 앞의 문턱이 왜 필요했는지를 알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포스트모던 시대라고 해서 결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Don Everts, and Doug Schaupp, *포스트모던 보이 교회로 돌아오다 (I Once Was Lost)*, 장혜영 역(서울: 포이에마, 2006), 23-24.

65) Leonard I. Sweet,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58.

66) Michael Slaughter, and Warren Bird, *미래를 담는 교회*, 151.

67) Gerard Kelly, *RetroFuture: Rediscovering Our Roots, Recharting Our Rout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9), p 17.

제 3 장

프랭크 바이올라와 닐 콜의 유기적 교회론

지금 우리는 ‘초기 교회로의 회귀 현상’이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교회 관습이 성경적인 근거에서 나온 올바른 교회 운영 방식이 아닐뿐더러, 그 근거가 매우 비약하고 비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제도권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들은 교회의 관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단순한 형태의 교회 생활로 돌아가기를 시도하고 있다.⁶⁸⁾ 신학자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의 주장처럼,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이 보여주셨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화해의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⁶⁹⁾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크리스텐덤이 고집하는 고정화된 관념과 구별이라는 관습이 아니라, 단순한 형태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서 기능하는 유기적 교회가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며,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지금껏 교회는 포스트모던 사회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교회 내부적인 고착화의 문제로 인해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는 개혁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분명히 인식되는 점은, 이에 대한 대안은 성서가 지지하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이어야 하며,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대안은 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현실의 한계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개념(본질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고찰이 포함된)’에 관한 도전이 되어야 한다. 즉, 성서에서 표현되는 본질적인 교회의 개념에 관한 논의가 되기도 해야 한다.⁷⁰⁾ 쉽게 말해,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유형인

68) Frank Viola, *유기적 교회 세우기*, 119.

69) Niel Cole, *오가닉 처치 (Organic Church)*, 정성목 역 (안산, 경기: 가나북스, 2010), 29.

70) Niel Cole, *교회 3.0*, 34.

교단이나 종파, 시스템 혹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자 근본적인 물음이며, 어떤 교회 유형에도 적용 가능한 원칙과 과정과 방식을 논의하는 본질적인 개념 그 자체에 관한 논의어야 하는데,⁷¹⁾ 이것에 관한 결론이 바로 유기적 교회라는 것이다.

본질적인 개념에 대한 고민은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좌석의 배치나 분위기, 추구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나 그의 역할, 교육 방식과 전도 방식, 비용과 사역의 장소 등, 이 모든 것은 개념에서부터 실현되는 변화이자 방식들이다.⁷²⁾ 이런 점에서 유기적 교회에 대한 논의는 본질적인 개념에서 파생되는 ‘교회를 하는(doing) 방식’의 재점검이기도 하다. 운영되는 방식은 곧 개념을 드러내며, 방식의 변화만으로도 교회는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기적 교회는 바로 이러한 본질적인 개념의 변화에서 시작되어 시스템의 완전한 변화까지를 의미한다. 즉, 기존의 교회 유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본질적인 교회의 개념으로 움직이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의 교회, 성도들과의 진심어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식으로의 교회, 사람들을 마음껏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교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⁷³⁾

하지만 이것이 일종의 새로운 교회 유형이 태어나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어떤 교회 유형에도 적용이 가능한 원칙과 과정 그리고 방식, 즉 ‘초대 교회의 영적 원리’를 발견해야 한다는 말이다.⁷⁴⁾ 따라서 본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유기적 교회론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형적인 유형이 아니라 본질적인 ‘개념’을 다루는 것이다. 이 말은 유기적 교회가 또 하나의 외형적인 교회 갱신 운동 유형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초대 교회의 영적 원리를 따라 다시 재정립하는 하나의 운동이라는 말이다. 초대 교회가 로마의 압박과 박해 속에서 더욱 단순하고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도들과도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날마다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유기적 교회의 본질

71) Niel Cole, *교회 3.0*, 41.

72) Niel Cole, *교회 3.0*, 39.

73) Niel Cole, *교회 3.0*, 41.

74) Frank Viola, *유기적 교회 세우기*, 18.

을 설명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⁷⁵⁾

본 장에서 유기적 교회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주장한 사람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두 사람은 앞서 언급한대로 프랭크 바이올라와 닐 콜이다. 이들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이 ‘유기적 교회(Organic Church)’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고, 유기적 교회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1 절 유기적 교회의 정의

‘교회가 유기적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듯이, 성령을 통해 하나 된, 한 몸을 이루도록 창조된 공동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⁷⁶⁾ 이 하나 된 공동체는 한 몸 즉, 유기적인 몸이다. 유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표현하듯, 교회는 어떤 사물이나 생산 과정으로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몸, 그 자체이다. 따라서 유기적 교회는 한 몸으로서의 살아있는 유기체인 교회를 의미한다.⁷⁷⁾

닐 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교회의 다섯 가지 특징으로 유기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소개한다. 첫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 둘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셋째,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 넷째, 성장하는 교회는 반드시 반대에 부딪힌다. 다섯째,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⁷⁸⁾

닐 콜이 이해하는 유기적 교회는 다음과 같다.

교회는 ‘유기적’이다. 이 말은 교회에 대한 비유가 아니다. 교회는 유기체와 같은 조적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유기체’다. 다른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건강해야 생식을 하고, 이로써 자연스럽

75) Niel Cole, *교회 3.0*, 34, 41.

76) Ralph W. Neighbour, Jr., *그리스도의 몸 (Christ's Basic Bodies)*, 최은정 역(고양, 경기: NCD, 2009), 31.

77) 프랭크 바이올라는 신약 성서에 나타나 있는 초대 교회들을 생물학적 실체, 즉 살아있는 존재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초대 교회와 똑같은 영적 원리들에 의해 움직이고 성장하는 교회들을 ‘유기적 교회’라고 일컫는다. 이것은 그가 보기에 신약 성서적 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유기적이었고, 또 당시의 모든 초대 교회들이 그 계통을 따른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대로 신약 성서의 초대 교회 모델을 따르면 유기적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57.

78) Niel Cole, *오가닉 처치*, 39-43 참고.

게 자기와 동일한 존재를 재생산할 수 있게 된다.⁷⁹⁾

닐 콜이 주장하는 바와 동일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프랭크 바이올라에게서 살펴볼 수 있다.

유기적 교회는 그 구조가 유기적이고; 그 기능에 있어서 관계적이고; 그 형식이 성서적이고; 그 운영이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 형태가 삼위 일체적이고; 그 삶의 방식이 공동체적이고; 그 태도가 반 엘리트주의적이고; 그 표현이 반 분파주의적인 교회이다.⁸⁰⁾

바이올라의 설명에서처럼, 유기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 이어져있는 하나의 몸을 의미한다. 교회가 '유기적'이라는 말은 한 몸이라는 의미이다. 한 몸이 하나의 유기적 구조를 가지듯이 교회는 하나의 유기적 구조를 가진다. '관계적'이라는 말은 이 유기적 교회가 관계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하나의 유기체는 관계(연결)되어 있으므로, 무엇보다 서로 관계적일 수밖에 없다. '형식이 성서적'이라는 뜻은 교회의 가장 근본 바탕이 성경이라는 의미이다. 성서가 말하는 형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 그 자체부터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말은, 교회의 운영 형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그림을 그대로 그려놓는다.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즉, 유기적 교회는 기독교를 그 중심에 두고 있다는 말이다. '형태의 삼위 일체적'이라는 말은 관계적 기능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인데,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이미 서로 관계 안에 계셨듯이, 교회의 모든 지체가 서로 하나의 유기체로 관계하는 형태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즉, 이것은 유기적 교회의 관계가 하나님 자신을 기초로 하여 탄생한 모델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기적 교회에서는 모든 삶의 방식이 공동체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태도에서 반 엘리트주의'란, 세상의 뛰어난 단체처럼 한두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뜻이고, 또 이 말은 곧 유기적 교회가 '반 분파자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말해주고 있다.

79) Niel Cole, *교회 3.0*, 19-20.

80)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35.

이처럼 바이올라가 유기적이고, 관계적이며, 성서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삼위 일체적이지자 공동체적인, 반 엘리트주의와 반 분파주의를 표방하는 유기적 교회를 거침없이 주장할 때, 콜은 이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유기적 교회를 설명한다. 즉, 바이올라가 보다 원론적인 관점에서 유기적 교회를 말하고 있다면, 콜은 적용과 결과물이라는 관점에서 유기적 교회를 정의하고 있다.

콜이 생각하는 유기적 교회는 증식이란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표현된다. 우리 몸이 둘로 쪼개어져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유기체인 교회 역시 쪼개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분열을 통해 증식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즉, “단순하고, 재생력이 강하고, 관계 중심적인 교회”⁸¹⁾가 분열을 통해 증식될 수 있는 것처럼, 유기적 교회는 그와 같이 단순하고, 재생력이 강하고, 관계 중심적인 교회라는 것이다. 다음의 설명을 보면 콜이 주장하는 유기적 교회에 대해 보다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유기적 교회라고 할 때 그것은 영적 생명에 의해 태어난 것을 뜻한다. 즉, 그것은 인간의 제도로 조직되어 프로그램에 의해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다. 유기적인 교회 생활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바탕으로 한 경험이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교제하는 친밀한 공동체, 모든 지체가 다 제 기능을 발휘함, 목사 한 명이 주도하는 예배가 아닌 누구나 직접 참여하는 열린 모임, 서열이 없는 지도자층, 모임의 실제적 지도자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우월성이 드러난다.⁸²⁾

바이올라가 말하는 이러한 유기적 교회에 대한 정의는 콜이 말하는 단순하고, 재생력이 강하고, 관계 중심적인, 한마디로 생명이 있는, 살아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기체를 의미한다. 딱딱한 건물이나 구조에 갇혀 있는 그런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초대 교회가 그 구조나 기능, 형식이나 운영 방식, 형태나 태도, 그리고 표현 등에서 모든 유기적 특성을 담고 있었던 것처럼,⁸³⁾ 오늘날 교회 역시 유기적이라고 말하려면

81) Niel Cole, *교회 3.0*, 41.

82) Frank Viola, *유기적 교회 세우기*, 26.

83) 초대 교회가 유기적 특성을 담고 있다는 근거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특성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때의 교회들은 인간의 제도에 의해 조직되어 종교적 프로그램에 의해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단순히 영적인 생명으로 태어난 교회였고,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으며,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모임을 지향하고, 성직이라는 지도자 계급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 Frank Viola, and George Barna, *이교에 물든 기독교 (Pagan Christianity?)*, 이

살아있음의 특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교회가 살아있음의 특성을 따라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교회생활은 각본에 의해 진행되는 연극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아가는 그런 모임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하나의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해 교회의 모든 특성을 아무런 훼방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기능대로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⁸⁴⁾ 그리고 그러한 활동이 가능해지면, 교회는 또 다른 유기적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⁸⁵⁾

이처럼 바이올라와 콜은 본질에서 동일한 유기적 교회의 개념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적용점을 찾는다. 바이올라는 신약의 초대 교회에서 유기적 교회의 모든 모티브를 가져오고 있고, 콜은 유기적 교회를 오늘날의 시대상에 맞추어서 선교적 교회와 이머징 처치의 관점에서 해석, 적용하고 있다. 즉, 바이올라는 1~2 세기의 초대 교회가 가진 유기적 교회의 특성만이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교회의 유기적 특성이라고 본다. 그 이후의 모든 교회의 제도나 관행은 오히려 초대 교회가 가진 유기적 특성들을 손상 또는 훼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 콜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유기적 교회의 특징으로 ‘씨 뿌리기’와 ‘증식’을 주장한다. 증식은 살아있는 유기체에서만 가능한 일이기에, 교회가 유기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증식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즉, 교회가 살아있다면 씨 뿌리기와 증식이 가능할 것이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 교회가 유기적 교회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들이 유기적 교회의 적용점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주장하는 유는, 바이올라는 현대의 제도권 교회에서는 절대로 유기적 교회로 전환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반면, 콜은 그 가능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올라는 지역 교회에서 성직자 제도와 제도적 구조가 제거되지 않는 한, 유기적 교회로의 쇄신을 위한 모든 시도는 언제나 근시안적이거나 제한적 변화만을 가져올 뿐이거나, 최악에는 공공연한 대립을 야기할 것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제도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런 유기적 교회 생활을 회복하려는 시도 그

남하 역 (대전: 대장간, 2012), 33.

84)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42.

85) Niel Cole, *오가닉 처치*, 150-153 참고.

자체가 소용없는 일이라고 못 박는다.⁸⁶⁾ 그의 생각에 유기적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회 울타리를 모조리 걷어내는 방식 외에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 관해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 역시 동일한 주장을 한다. 그들은 제도권 교회에서 “이머징 교회(Emerging Church)”로의 변환에 관한 조인에서 조금씩 바꾸기보다는 ‘전면적’으로 바꿀 것을 요청한다.⁸⁷⁾ 그러한 혁신적인 변화가 아니고서는 오늘날 가장 시급한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하고 교회가 되는 방식에 혁명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⁸⁸⁾

반면에, 콜은 자신의 사역 경험을 근거로 전통적인 교회도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한다.⁸⁹⁾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교회는 소프트웨어(적용 가능한 원칙과

86)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306.

87) 이머징 교회와 유기적 교회의 연관성에 관해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은 짐 벨처(Jim Belcher)이다. 그는 에드 스테처(Ed Stetzer)의 도움을 받아 이머징 교회를 다음의 세 그룹으로 정리하는데, 첫째는 “연결주의자”, 둘째는 “재건주의자”, 셋째는 “수정주의자”이다. 여기에서 유기적 교회는 이머징 교회의 두 번째인 “재건주의자”로 분류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연결주의자”는 역사적으로 인정되어온 전통적인 형태의 교회와 같은 복음을 취하는 반면, 이머징 문화라는 현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이머징 문화 그 자체에서 오히려 복음을 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신학을 수정하지는 않은 채 예배의 형식, 질차, 설교, 교회 지도체제 등의 변화에 관심을 둔다. 이들에 속한 교회가 코스타메이사의 락 하버 교회, 시애틀 마스힐 교회, 산타크루즈 빈티지 페이스 교회 등이 있다. “재건주의자”는 같은 복음을 취하는 집에서 연결주의자들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지만, 교회 형태에서는 많은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러한 형태를 다시금 성경적으로 재건하는 입장을 취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세레파나 메노나이트, 가정 교회, 혹은 새로운 수도원 공동체 등 성육신적이며 유기적 형태의 교회를 실험하는 부류들로, 닐 콜,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 조지 바나와 프랭크 바이올라 같은 사람들이다. “수정주의자”는 복음과 교회 전반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으로 복음과 교회의 형태 모두를 수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들에 속한 사람들은 이머징트 빌리지 출신의 지도자인 브라이언 맥클라렌, 토니 존스, 더그 패짓 등이 있다. Ed Stetzer, “Understanding the Emerging Church,” *Baptist Press* (January 6, 2006). <www.sbcbaptistpress.org/bpnews.asp?ID=22406> 참고. Jim Belcher, *깊이 있는 교회 (Deep Church)*, 전의우 역(서울: 포이에마, 2011), 64-65 참고.

88) Michael Frost, and Alan Hirsh, *새로운 교회가 온다*, 41.

89) 프랭크 바이올라와 닐 콜 모두 유기적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는 두 사람의 배경이 사뭇 다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프랭크 바이올라는 1988년부터 스스로 자신이 교단과 제도권 기독교를 벗어나 유기적인 모임들을 위해 애써 왔다고 고백한다. 따라서 그가 표현하는 방식은 현 교회의 완전한 해체와 집합이다. 하지만 닐 콜은 그레이스 형제 교회 연합회(Fellowship of Grace Brethren Churches)라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그 교단의 교회 개척 파트를 담당하면서 유기적 교회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교회의 체질 변화를 통해 유기적 교회의 실현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과정의 개념들)를 업그레이드하는 변화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가진 유기적 교회로 전환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의 변화만으로도 교회 그 자체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⁹⁰⁾ 그는 전통적인 교회가 ‘교회 3.0’⁹¹⁾으로의 업그레이드만 일어나도 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본다. 첫째,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큰 능력을 부여받고, 교회에 엄청난 영적 능력이 더해 질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모든 지체와 영역이 더 높은 기능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시스템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이다. 즉, 단순화와 기능 향상이 병행되면서 교회가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가속화 될 것이다. 셋째, 최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모든 전자 기기의 효과적인 사용이 일어날 것이다. 즉, 발전하는 시대에 맞는 흐름이 재창조될 것이다. 넷째, 더 많은 정보와 기능과 저장 용량의 확보를 통해 다양한 교회의 탄생을 돕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시스템의 활용 폭을 넓히고 더 흥미로운 교회가 됨으로 교회도 세상을 향해 매력을 발산하게 될 것이다.⁹²⁾

사래에 관해서도 자료를 남기고 있다.

90) Niel Cole, *교회 3.0*, 40-42 참고.

91) ‘교회 3.0’은 닐 콜이 쓰고 있는 교회의 변화에 관한 간략한 용어이다. 소프트웨어는 최초의 버전에서 최신의 비전에 이르기까지 개선과 변화를 계속 진행한다. 그에 따라 버전의 이름들이 1.0 혹은 2.0, 3.0으로 계속 바뀌어 붙여지는데, 소수점 앞자리가 변하는 것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변한 것을 의미하지만 1.1, 1.2, 1.2.1 등과 같은 뒷자리의 변화는 같은 버전의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약간의 수정에 불과할 경우에 붙여지는 이름들이다. 닐 콜은, 최초의 교회였던 1세기의 교회를 ‘교회 1.0’으로 부른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1.0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교회 1.1이라 할 수 있고,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 1.2, 고린도 교회는 교회 1.3 버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교회들은 압제 속에서도 단순하고 유기적인 공동체를 유지했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교회 2.0’은 시기적으로 좀 더 광범위한 시간대를 포함하고 있다.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기독교 승인이 있었던 AD 313년 이후 최근까지 일어났었던 모든 교회 갱신 운동은 다 교회 2.0에 해당하는데, 종교개혁(교회 2.0)을 필두로 다양한 교단의 형성들이 교회 2.0, 2.1, 2.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교회 1.0에서 교회 2.0으로의 변화에는 가장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이 시기에 교구를 담당하는 사제들을 임명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일부 신앙생활 형태를 제도화 했다는 것이다. 즉 오늘날 교회가 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스템(사제나 목사, 주일예배, 찬양과 설교, 헌금, 예배당의 구조 등)이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된 것이다. ‘교회 3.0’은 유기적 교회를 일컫는다. 이 유기적 교회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단순하고, 재생력 강하고, 관계 중심적인 교회를 의미한다. 이는 ‘중식’이라는 결과물을 통해 표현되는 교회, 교인들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그 사람들이 곧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를 의미한다. Niel Cole, *교회 3.0*, 34-40.

92) Niel Cole, *교회 3.0*, 36-40 참고.

교회는 교회 본질로서의 자체적인 유기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된 생명력으로, 그분이 베드로를 향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다. 교회에 이 생명력이 없다면 교회는 죽어있는 하나의 종교적 건물이거나 단순한 모임에 불과할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여전히 유기적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사역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사역 되어지는 교회를 의미한다. 즉,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교회 안의 모든 활동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 중심에 임재 하셔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나는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⁹³⁾

제 2 절 유기적 교회의 DNA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설명할 때, 이와 연관된 대표적인 표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바울의 사상(롬 12:4,5; 고전 12:12)이다. 바울은 교회의 유기체적인 의미를 주장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7)라고 언급한다. 즉, 교회가 생명력 있는 유기체로서 기능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바울의 몸 사상에 근거해 오늘날 유기적 관점에서 교회는 “셀”이나 “DNA”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바이올라와 콜 역시 이러한 바울의 몸 사상에 근거한 유기체로서의 교회 DNA에 관해 설명한다.⁹⁴⁾

93) Niel Cole, and Phill Helfer, *교회 트랜스퓨전 (Church Transfusion)*, 안정임 역 (고양, 경기: 스텝스톤, 2014), 42.

94) 교회를 셀과 DNA 외에 해부학적 관점으로 분석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는 존 맥아더(John F. MacArthur)이다. 그는 교회를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골격(근본 진리), 장기(영적 태도), 근육(여러 가지 기능), 살(프로그램의 형태)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들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만 없어도 몸으로 존재할 수 없듯, 해부학적 관점에서 본 교회 역시 서로 맞물려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교회를 표현한다. John F. MacArthur, Jr.,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The Master's Plan for the Church)*,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21.

1. 프랭크 바이올라(Frank Viola)의 DNA

DNA는 셀보다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교회의 본질에 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생겨난 교회에 관한 표현 방식이다. 프랭크 바이올라는 신약성서가 말하는 교회의 DNA(유전자)를 담고 있는 교회가 바로 유기적 교회라고 주장한다. 살아있는 생명체에 DNA가 존재하듯, 교회 역시 살아있는 유기체이기에 교회의 DNA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데, 신약성경 곳곳에 이 교회 DNA가 확인되고 있고, 이것이 유기적 교회가 가진 DNA라는 것이다.

바이올라가 주장하는 교회의 DNA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연관이 있다. 그는 이 삼위일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열쇠임을 발견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DNA임을 분명히 한다.⁹⁵⁾ 즉,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시는 관계 모형이 곧 교회에 남겨진 고유의 DNA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DNA는 교회의 공동체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 나타나야 한다. 쉽게 말해,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으로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교회는 그 삼위일체의 DNA를 품고 하나라는 공동체성을 드러내야 하고,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에 관해 스탠리 그렌츠(Stanley Grenz)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본질은 하나님이 사회적 또는 관계적이라는 뜻이다. 즉, 하나님은 '사회적 삼위일체'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이 '공동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공동체이다.⁹⁶⁾

여기에 관해 유진 피터슨(Eugene Peterson)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는데, "삼위일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는 것과 참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가장 포괄적이고도 통합적인 뼈대"⁹⁷⁾라고 주장한다.

95)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44.

96) Stanley Grenz, *Created for Community*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8), 52.

97) Eugene Peterson, *Christ Plays in Ten Thousand Places* (Grand Rapids, MI: Eerdmans, 2005), 45.

바이올라는 교회가 가진 삼위일체의 이 유전자(DNA)가 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 설명한다.

순수한 공동체, 지체들 상호간의 가족적 사랑과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무비건조한 의식 없이 함께 모이고자 하는 고유본능,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뿌리 깊은 관계성을 형성하도록 내재된 갈망,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모임을 향한 내적 충동,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사랑의 열망.⁹⁸⁾

유전자는 세포 안에 존재한다. 성경이 각 지체의 연합체로서의 교회(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하듯, 각 세포 안에 존재하는 교회의 DNA는 그 유전 정보(삼위일체의 연합)를 따라 각 지체의 활발한 성장과 활동을 유발한다. 그리고 이 활발한 지체들의 연합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따라서 이 교회의 DNA는 교회가 순수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며, 지체들 상호 간의 가족적 사랑과 헌신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돕는다. 또한, 이러한 예수의 DNA를 가진 유기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 교회의 이 DNA는 함께 모이는 특성을 발산하며, 이를 통해 뿌리 깊은 관계성을 지향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 DNA는 모두에게 열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랑의 공동체를 그대로 세상에 표현하도록 돕는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의 DNA를 교회가 고스란히 물려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다.⁹⁹⁾

교회의 생명력이 되는 이 교회 DNA는 교회가 반드시 네 가지 요소를 드러내도록 돕는다. 첫째, 교회의 DNA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되심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은 교회에서 인간이 머리 노릇 하는 것과는 정반대를 의미한다. 둘째, 교회의 DNA는 몸의 모든 지체인 성도 모두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허용하고 격려할 것이다. 이것은 한 사람 혹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의존된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셋째, 교회의 DNA는 신약성서에 내포된 신학을 세상

98)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56-59.

99) 프랭크 바이올라는 이와 같은 삼위일체의 관계성이 신성한 차원에서 사람의 차원으로 이진되었음을 주장한다. 그 통로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교회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즉 하늘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에게서 이 땅의 교회,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45.

에 드러내며, 그것과 일치하는 모양이나 형태로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에서 철저히 관습과 제도로 세상과 격리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가진 신학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바르게 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넷째, 교회의 DNA는 성도들이 공동체성을 함께 경험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것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기초로 하여 그 안에 드러나는 공동체성을 의미한다.¹⁰⁰⁾

이 교회의 유전자는 1세기의 여러 문화권에서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들을 통해 교회 자신을 드러냈었다. 즉, 초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DNA를 소유한 교회였다. 유전자는 외부의 어떠한 직접적인 자극이 없이는 결코 변질하지 않기에,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의 미래나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유전자이다. 하지만 제도권 교회는 본질적이지 않은 외부의 자극(제도와 관습과 관행과 틀 등)을 통해 교회의 본질적인 DNA를 변형시켰다.¹⁰¹⁾ 제도권 교회들은 이러한 신약성서에 뿌리를 둔 교회 DNA를 정면으로 거부한다. 대신 그 자리에 교회의 세속적 관행들을 집어넣고, 그 틀로 교회를 재정립해왔다. 이러한 관행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을 손상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의 역할 수행을 방해하며, 신약성서가 가르치는 신학을 거스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고착되어 온 것이다. 에밀 부르너가 말했듯이, “예수님에 의해 기초가 놓이고 성령에 의해 정착된 교제의 정교한 구조는 에클레시아의 특성 전부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제도적 조직에 의해 대체될 수 없다.”¹⁰²⁾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관행은 인간이 고안한 시대의 산물일 뿐이다. 성서적이라고 포장되었지만, 교회 자체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다른 선한 의도는 미비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2. 닐 콜(Niel Cole)의 DNA

닐 콜은 교회의 DNA를 두문자어(Acronym)로 설명한다. 즉, 교회 DNA는 “하나님의 진리(Divine truth)”와 “관계 강화(혹은 사랑의 관계, Nurturing relationships)”

100)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51-52.

101)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56.

102) Emil Brunner, *The Misunderstanding of the Church* (London: Lutterworth Press, 1952), 54.

그리고 “전도의 사명(Apostolic mission)”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¹⁰³⁾ 그리고 이 교회의 DNA는 예수님에서 출발한다.¹⁰⁴⁾

“하나님의 진리(D)”는 곧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혹은 ‘복음’을 의미한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각자의 영혼 깊숙한 곳에 스며들게 되면, 내면에서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¹⁰⁵⁾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진정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는 특별한 복음 전도의 기술들을 배제한 채 성경 그 자체를 복음 전파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서의 체질 변화를 위해 그가 추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그저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다.¹⁰⁶⁾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딤후 3:16)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딤후 3:17)을 갖추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관계 강화(N)”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은 사람을 성숙케 하는 도구가 된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관계를 통해 교회라는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는 이러한 관계의 발전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그룹들에 ‘죄를 고백’ 하도록 격려한다.¹⁰⁷⁾ 이러한 성도 간의 죄 고백은 앞서 언급한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것과 함께 가장 기본이 되는 유기적 교회 모임의 가치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사명(A)”은 교회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기초적인 접근을 근거로 한다. 그의 표현대로, “교회는 파송하는 조직이 아니라 파송 받은 사람들이다.”¹⁰⁸⁾ 따라서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연스러운 복음 전파가 일어나야만 한다. 이는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재생산 능력(자가 번식)’¹⁰⁹⁾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증식’은 곧 교회 DNA의 특성이자 생명력 그 자체라는 것이다.

103) Niel Cole, and Phill Helfer, *교회 트랜스포진*, 125.

104) Niel Cole, *오가닉 처치*, 181.

105) Niel Cole, and Phill Helfer, *교회 트랜스포진*, 37.

106) Niel Cole, *LTG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Life Transformation Groups)*, NCD 편집부 역 (성남, 경기: NCD, 2007), 120.

107) Niel Cole, *LTG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116-120 참고.

108) Niel Cole, and Phill Helfer, *교회 트랜스포진*, 48.

109) Niel Cole, *오가닉 처치*, 171.

콜이 주장하는 교회의 DNA는 교회의 사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즉,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복음화를 위해 함께 가르치며 배우고(D), 더 강한 유대감으로 치유의 공동체를 형성하며(N), 서로를 깊이 내어주며 전하는(A)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¹¹⁰⁾ 즉, 교회의 DNA는 궁극적으로 복음 속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는데,¹¹¹⁾ 이 DNA가 활발하게 작용하고 형성되어 갈수록, 교회는 사명을 따라 ‘보내는 교회(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에 대한 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¹¹²⁾ 따라서 교회의 DNA는 각각 따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결합할 때 더 큰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진리는 전도의 사명에 열정을 더해주고(행 1:8), 이 사명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낳게 된다(빌 1:27). 무엇보다 이 교회의 DNA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한다.¹¹³⁾

제 3 절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

프랭크 바이올라와 닐 콜이 주장하는 유기적 교회는 교회의 DNA를 바탕으로 일정한 핵심 원리를 따라 교회의 사명을 세상에 퍼뜨린다.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도 동일한 입장의 주장을 하는데, 그들은 교회의 핵심 DNA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실질적인 교회의 선교적 특질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¹¹⁴⁾

하지만 유기적 교회를 직접 언급한 프랭크 바이올라와 닐 콜이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를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신학적 소견과 경험에 따라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들을 펼쳐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중요한 핵심 원리도 있고, 각자 독특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핵심 원리들도 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주장하는 유기적 교회에 관한 이론들이 궁극적으로는 모더니즘 사

110) Niel Cole, *교회 3.0*, 94.

111) Niel Cole, *오가닉 처치*, 184.

112) 앤드루 존스(Andrew Jones)는 Missio Dei(하나님의 선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것은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개념이다.” Niel Cole, *교회 3.0*, 95.

113) Niel Cole, *오가닉 처치*, 180-181.

114) Michael Frost, and Alan Hirsh, *새로운 교회가 온다*, 34.

회에 종속된 교회에 대한 비판이면서, 동시에 포스트모더니즘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대한 대안 모델의 제시라는 점이다.

이 두 사람이 주장하는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는 모두 여덟 가지이다. 첫째, 유기적 교회는 성직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깨뜨린다. 둘째, 유기적 교회는 건물 중심의 패러다임을 벗어난다. 셋째, 유기적 교회는 교회의 모든 통제권을 그리스도께 드린다. 넷째, 유기적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룬다. 다섯째, 유기적 교회는 기능적 사고방식으로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한다. 여섯째, 유기적 교회는 작고 단순하며 친밀한 공동체를 이룬다. 일곱째, 유기적 교회는 유기체의 자연스러운 증식을 이루어 낸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유기적 교회는 하나의 교회, 네트워크로 발전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기적 교회는 교회의 '개념'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을 한다. 따라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여덟 가지 핵심 원리는 그동안 제도권 교회에서 알고 이해했던 교회의 개념을 청산하고, 유기적 교회에 관한 새로운 안목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1. 성직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깨뜨리다

유기적 교회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바로 제도권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성직자 중심의 패러다임에 관한 것이다. 프랭크 바이올라는 제도권 교회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완전히 그곳에서 떠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앞서 설명한 대로 그는 제도권 교회가 유기적 교회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본다. 제도권 교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그가 보는 관점은 과거의 수많은 노력을 통해 남겨진 저항과 좌절의 경험뿐이다.

바이올라가 보는 제도권 교회의 변화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비성서적인 성직자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¹¹⁵⁾ 이 성직자 제도는 위계 구조를 근거로 한다.

115) 프랭크 바이올라는 오늘날 개신교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곧 교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목사'라고 주장한다. 만일 교회에서 목사를 제거하면 대부분 교회가 공황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주장을 따르면, 바로 여기에 모순이 존재한다. 성서 전체에 현대 목사의 존재를 지지해주는 구절은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목사가 직책과 역할이 아닌 자리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경종의 메시지가기도 하다. Frank Viola, and George Barna, *이교에*

위계 구조(Hierarchy)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결과로 생겨난 끔찍한 결과물이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됨으로 서로 상호 교류하는 평등한 관계였던 것처럼, 창조된 세계와 인간들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창조 기사에는 단지 두 가지 흐름의 권위만이 나타난다. 첫째 권위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내려간 권위이고, 둘째 권위는 피조물의 대표인 그 인간이 다스려야 하는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해 행사하는 권위이다(창 1:28). 하지만 인간의 타락이 결국 서로의 관계 안에 있는 이 권위를 불통과 억압과 불화와 압제로 변질시켰다. 온전한 일치와 조화된 관계 대신 끔찍한 반대 구조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소위 말하는 힘의 원리를 따르는 위계 구조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위계 구조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¹¹⁶⁾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위계 구조의 대표적인 명칭인 ‘목사’에 관해 성경에서 언급하는 구절은 유일하게 에베소서 4장 11절뿐이다. 마이올라는 이 단 하나의 구절만이 목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오늘날 교회가 지지하고 주장하는 목회직에 관한 성경의 근거가 단지 에베소서 4장의 이 단 한 구절만을 의지한다는 사실이 목회직에 대한 빈약한 증거라는 것이다.¹¹⁷⁾ 에베소서에서 사용된 목사라는 용어는 복수형이다. 즉, 목회자들 혹은 목자들(ποιμένες, Pastors)을 의미한다.¹¹⁸⁾ 이들이 누구였든지 간에 단수가 아니라는 말은 오늘날 대부분 교회가 단일 목사가 주도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에베소서에서 이보다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사용된 목사라는 단어가 단지 교회 안에서의 특정한 역할을 묘사하는 은유적인 표현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직책이나 직위가 아니며,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가 부여하는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목회자의 개념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표현이다. 단순히 교회 안의 여러 기능 가운데 하나로 그리고 있을

물든 기독교, Chapter 5 ‘목사-모든 지체의 역할 수행을 방해하는 존재’ 참고.

116) Gilbert Bilezikian, *공동체(Community 101)*, 두란노 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09), 24-30.

117) 목회직에 관한 대부분 근거는 구약의 ‘제사장’ 개념에서 가져다 쓰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장 개념을 오늘날 목회직에 대한 근거로 보는 것은 다소 억측으로 보인다. Frank Viola, and George Barna, *이교에 물든 기독교*, 164-165.

118) William Hendriksen, *에베소서: 핸드릭슨 성경주석*, 신성중 역 (서울: 아가페, 1983), 246

뿐만 아니라, 즉,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양 떼를 돌보고 양육하는 기능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목사라고 부른 것이다.¹¹⁹⁾

목사를 포함한 성직자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립된 것은 2세기 이후의 일이다.¹²⁰⁾ 2세기 이전까지의 교회에서는 이런 공식적인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교회 안에 리더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종교적 직책이나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성격을 띤 실제적인 리더십만이 존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¹²¹⁾

사도들이 죽은 후 초대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면서 박해와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야만 했다. 이때 교회가 자신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방법이 바로 교부들을 그 중심에 두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1세기 말부터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교부들이 바로 로마의 감독 클레멘트(Clement of Rome)와 이그나티우스(Ignatius), 이레네우스(Irenaeus)와 키프리아누스(Cyprianus)이다.¹²²⁾

클레멘트는 주후 96년경에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클레멘트 1서)을 보냈는데, 그는 이 서신에서 교회의 분열을 피하고 하나 됨을 요청하면서, 직분에 있어서 질서 있는 계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즉, 그가 이 서신에서 그리스도가 사도를 보냈고, 사도들이 장로와 집사를 세웠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교회의 성도들은 임명된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요청이었다.¹²³⁾ 그는 이와

119) 사도행전 20:28에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는 말로 그들이 바로 기능적으로 ‘양 떼를 치는’ 사역자들인 목사와 동일한 사람들로 인정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목사”는 다른 곳에서 “장로들(resbyteroi)” 또는 “감독들(episkopoi)”로 불리는 사역자들과 쉽게 동일시 될 수 있다. E. K. Simpson, and F. F. Bruce, *뉴인터네셔널 성경주석(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이장립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8), 618-619.

120) 고대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Ignatius)의 “단일 감독” 또는 “절대 감독체제”가 성직자 개념을 확고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Frank Viola, and George Barna, *이교에 물든 기독교*, 170.

121) Frank Viola, and George Barna, *이교에 물든 기독교*, 168.

122) 김영선, *참된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22.

123) 클레멘트는 감독의 직이 영구적임을 주장했다. 1세기 말 고린도 교회에 내부적으로 일단의 부리에 의해 감독이 그 직분을 빼앗기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그러한 주장을 한 기록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감독직은 사도에 의해 제정된 영구적이라는 것이다. Clement of Rome, *The First Epistle of Clement to the Corinthians*, XXXVII, XL, in Arthur Cleveland Coxe, ed. *Ante Nicene Fathers*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 1994), I,

같은 생각 속에서 처음 사역자들을 비 사역자들에게서 구분해내기 위한 용어로 ‘평신도(laity)’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다.¹²⁴⁾

사도 요한의 제자로 37년간 안디옥의 감독으로 일했던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를 향해 로마로 끌려가는 도중에 일곱 개의 서신을 썼는데, 그중에 교회의 분열과 거짓 가르침의 위험을 걱정하며 교회의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감독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만을 교회라고 보았다.¹²⁵⁾ 그가 감독의 권위를 강조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성도들에게 도덕적인 원칙을 부여하기 때문이고, 둘째, 영지주의의 위협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사도적 권위를 정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¹²⁶⁾

이레네우스와 키프리아누스는 클레멘트와 이그나티우스가 주장한 감독의 권위와 직임에 관한 주장을 더욱 확고히 자리 잡게 했다. 이들은 주교와 사제가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진리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들의 권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레네우스는 사도적 전통이 감독들의 계승에 의하여 유지된다는 입장에서 감독이 있는 곳에서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¹²⁷⁾ 키프리아누스 역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근거로 교회는 감독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감독을 주님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의 참된 계승자로 보았으며, 감독을 교회의 절대적인 주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들에 따라 당시 교회의 성도들이 감독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었다.¹²⁸⁾ 이 키프리아누스는 전직 이교도 연설가이자 수사학의 교사였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 많은 글을 썼는데, 대표적으로 그는 교회의 직책들을 정의하려고 구약의 제사장, 성전, 제단, 그리고 희생 제사 등의 제도와 용어를 가져왔고, 감독들을 사제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습들은 3세기에 가서는 아예 일반화되었다.¹²⁹⁾

중세 서방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교회론을 기반

15, 17. 김영선, *참된 교회*, 22에서 재인용.

124) Frank Viola, and George Barna, *이교에 물든 기독교*, 171.

125) Ignatius, *The Epistle of Ignatius to the Smyrnaeans*, VII, in Arthur Cleveland Coxe, ed. *Ante Nicene Fathers*, 89. 김영선, *참된 교회*, 23에서 재인용.

126) Reinhold Seeberg, *The History of Doctrines* (Grand Rapids, MI: Baker Book, 1961), 66. 김영선, *참된 교회*, 24에서 재인용.

127) Irenaeus, *Adversus haereses*, III, ii, 2, in Arthur Cleveland Coxe, ed. *Ante Nicene Fathers*, 414. 김영선, *참된 교회*, 25에서 재인용.

128) 김영선, *참된 교회*, 25.

129) Frank Viola, and George Barna, *이교에 물든 기독교*, 171.

으로 교황권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그는 키프리아누스의 교회론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입장을 취하였다.¹³⁰⁾ 그는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다른 사도들을 지배할 수 있는 공식 우월권을 주었으며, 베드로는 로마의 초대 감독이라는 사상을 발전시켰다. 결국, 이 사상은 감독들에 의해 조장되어 교황수의권(the Primacy of Pope)을 확고히 하고 인정하는 데에 대대적인 홍보용으로 이용되었다.¹³¹⁾

초대 교회의 교부만이 아니었다. 교회가 성직자 제도를 가지게 되었던 저변에는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영향도 한몫을 하였다. 그리스 로마의 문화는 한마디로 계급제도로 대변된다. 로마는 근본적으로 힘에 의해 도시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군인사회였다. 초대 교회 당시 교회 안에 새로이 들어온 신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배경을 고스란히 교회에 반영했다. 따라서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그리스 로마 문화의 계급의식이 초대 교회 신자들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¹³²⁾

이러한 성직자 제도에 못을 박은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콘스탄틴에 의해 제정된 기독교의 국교화(AD 313)이다. 콘스탄틴이 교회를 국교화 하자마자 교회는 완전한 상명하달식의 계급조직으로 변질하였다.¹³³⁾ 그리하여 중세 교회는 성직자들과 일반 백성이라는 위계 구조와 권위주의적인 조직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고, 성직자들이 백성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마지못해 구원을 나눠주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어버렸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는 대신, 반공동체적인 모델로 고착화 되어버린 것이다.¹³⁴⁾ 윌 듀란트(Will Durant)는 이 시기의 기독교가 이교도의 신앙과 의식을 흡수해서 자랐고, 로마의 계급적 조직 방식과 그들의 사조를 물려받아서 역사적인 승리자로 군림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유대 나라가 기독교에 윤리를 주었듯이, 그리스가 신학을 주었고, 로마는 조직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해 기독교 신앙이 여기저기서 흡수한 신앙과 섞여서 마치 혼합의 종교가 되었다고 주장한다.¹³⁵⁾ 이러한 혼합주의가 결국 J. B. 라이트풋(Lightfoot)의

130) 김영선, *참된 교회*, 40.

131) 김영선, *참된 교회*, 41.

132) Frank Viola, and George Barna, *이교에 물든 기독교*, 174.

133) Frank Viola, and George Barna, *이교에 물든 기독교*, 176.

134)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60-61.

135) Will Durant, *Caesar and Christ: A History of Roman Civilization and of Christianity from Their Beginnings to A.D. 325*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44), 575, 618.
Frank Viola, and George Barna, *이교에 물든 기독교*, 176에서 재인용.

주장처럼 교회의 사역을 ‘성직’으로 보는 견해를 만들었는데, 그는 이것이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중요한 현상이라고 보았다.¹³⁶⁾

물론 이러한 성직자 제도에 직접적인 반기를 들고 개혁을 단행했던 시대가 있었다. 종교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이 가톨릭에서 기독교가 갈라져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성직자 제도에 대한 강한 거부감에서 촉발된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과 그들의 종교적 계급을 반대했다.¹³⁷⁾ 하지만 종교개혁도 사역에 대한 좁은 견해는 스스로 견어내지 못했다. 널 꼴에 따르면, 종교 개혁은 교회에 대변혁을 일으킨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종교적 계급의 근본적인 조직 체계를 크게 흔들어놓지 못한 ‘교회 2.0’ 버전의 변화에 불과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으로 촉발된 이후의 모든 개혁 운동 역시 크게 성직자 제도의 조직 체계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 그치는 ‘교회 2.0’ 버전의 ‘2.1, 2.2’ 버전들일 뿐이었다.¹³⁸⁾

오늘날 교회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다. 2세기 이후 발전된 성직자 제도를 조금도 벗어남이 없는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전통적인 제도권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지도를 따르면 행동하고 유익하며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 된다”¹³⁹⁾는 근거 없는 소리까지도 나온다.

오늘날 목회자들을 세울 때 시행되는 ‘안수’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성경에서 나타난 안수와 관련된 행위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과 병자들을 낫게 하시 기 위해 손을 얹으신 행위(막 6:5, 10:13-16 ; 눅 13:13)나 사도들이 일곱 집사를 뽑아 그들로 ‘공궤’하는 일을 하도록 한 것(행 6:2-6),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여행을 떠

136) J. B. Lightfoot, *The Christian Ministry: In Saint Paul's Epistle to the Philippians* (Wheaton, IL: Crossway Books, 1994), 144. Frank Viola, and George Barna, *이교에 물든 기독교*, 402에서 재인용.

137) Frank Viola, and George Barna, *이교에 물든 기독교*, 186.

138) Niel Cole, *교회 3.0*, 35.

139)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서 역대하 20장 20절이나 히브리서 13장 7절 혹은 민수기 6장 22-27절의 말씀을 내세운다. 하지만 역대하나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시적으로 필요 때문에 주셨던 지도자 혹은 선지자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고, 히브리서에 나타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구약의 리더들과 동일한 분류라고 보기에 는 다고 억측이다. 이들은 유기적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던(하지만 절대로 교회를 대표 하는 리더십들이 아니었던) 리더들, 즉 장로나 감독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김광선, *성경적 제 직* (고양, 경기: 세계교회부흥선교회, 2011), 70.

나기 전에 안수를 받은 일(행 13:2), 사도들이 개심한 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다는 표시로 두 번 안수한 일(행 8:17-18, 19:6), 바울이 디모테에게 안수한 일(딤후 1:6) 등이다. 중요한 점은, 이 안수가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위임하기 위한 기록한 수단으로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단순한 치유의 과정이거나 혹은 이미 자신들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은사와 사역의 위치를 '확정'해주는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거나, 특별한 경우 자신의 은사를 나누어주는 수단으로써 사용된 것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즉, 이것은 오늘날처럼 교회 사역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위임한다는 개념의 안수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디모테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치 말”(딤후 5:22) 것을 권면하였는데,¹⁴⁰⁾ 이것은 안수가 목회직의 승인의 개념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이거나, 사역의 위치를 확정해주는 수단이거나, 은사를 나누어주는 방법일 뿐이고, 심지어 이 안수를 함부로 주거나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관점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들 이후 나타난 교부들에게서는 세례와 안수가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즉, 세례의 맥락 속에서 안수를 성직 수임식으로 포함하고 있다. 오리겐(Origen)이 이와 같은 안수를 세례 의식에 종속되는 부수적인 요소라고 인정했고, 히폴리투스(Hippolytus) 역시 죄 사함과 성령 강림을 세례와 연관 지어 말하면서 기름 부음과 안수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이후 속사도 시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안수가 세례와 별개의 개념으로 성직 수임식의 목적으로 정착되게 된 것이다.¹⁴¹⁾ 이처럼 안수가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볼 때 어느 한쪽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이교도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이유는, 이 안수를 통해 성직자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¹⁴²⁾ 반면, 그리스도인의 직분에 있어 질

140)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196-198.

141) Marjorie Warkentin, *안수: 성경적 역사적 견해 (Ordination)*, 김영봉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7) 53-89.

142) 바이올라는 안수식이 로마의 행정 관리들(서기관들)을 임명하던 관습에서 본뜬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수식의 모든 과정, 사용하는 말까지도 모두 로마 관료사회에서 들여온 것인데, 4세기에 가면 이러한 로마 관리를 임명하는 데 사용되던 말과 교회 안에 안수 때 사용한 말들이 동의어가 된다. Marjorie Warkentin이 쓴 *안수: 성경적 역사적 견해*, Chapter 2 ‘안수 의식: 랍비적인 전통’을 보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Frank Viola, and George Barna, *이교에 물든 기독교*, 182 참고.

서 있는 계승이 필요함을 주장함으로써 성직자 제도의 기초를 세웠다고 볼 수 있는 초대 교회의 교부 클레멘트가 안수에 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다. 가장 빠른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가 안수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안수가 성경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의 또 다른 증거가 된다.

로버트 뱅크스(Robert Banks)는 성경에 나타난 안수가 단지 교제의 신체적 표현이었으며, 상징적인 동작이나 마술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안수는 그 본질에서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하는 단순한 기도 행위였고, 오로지 기도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따라서 그는 오늘날 '안수식'과 성경의 안수를 혼합해서 이해하지 말 것을 부탁하며, 성경적인 안수의 개념은 단순히 기도 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¹⁴³⁾ 한스 쿵(Hans Küng) 역시 동일한 주장을 하는데, 그는 교회는 성직자 중심이 아니며, 교회를 성직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며,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온 하나님의 백성이요, 온 에클레시아요, 온 신앙인의 공동체임을 강조한다.¹⁴⁴⁾

이처럼 21세기 기독교에서 가장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성직자 제도를 교회가 스스로 철저히 제거하지 않고 있고, 최소한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바꾸지 않는 한, 교회 생활의 유기적 본성으로의 회복은 반드시 이 성직자들에 의해 방해받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바이올라의 말처럼 다음과 같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다.

목사는 위협을 느낄 것이고; 스테프는 현상유지가 붕괴되는 것에 저항할 것이고; 교인들은 공황상태에 빠질 것이고; 신자 개개인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할 것이고; 그리고 변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공격의 목표물이 될 것이다¹⁴⁵⁾

이와 같이 실제로 유기적인 특성을 따라 교회를 개혁하려는 많은 시도가 이러한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한다. 그것은 지금 시대의 교회들 대부분이 성직자 중심으로 움직여

143) Robert Banks, *바울의 공동체 사상 (Paul's Idea of Community)*, 장동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0), 147-148.

144) 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Was ist Kirche?)*, 이홍근 역 (칠곡, 경북: 분도, 1994), 85.

145)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292.

지고 있기 때문이며, 사람들은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상상할 수 없고, 목회자가 이끌지 않는 교회를 비현실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닐 콜과 필 헬퍼(Phill Helfer)는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의 교회가 교회 성장과 목표 달성(교회의 목표가 절대 될 수 없는 것들조차도 목표로 삼았던)이라는 핑계로, 목사는 최고경영자로, 교인들은 영적 소비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지적한다.¹⁴⁶⁾ 교회가 점점 더 제도화되면 될수록 성도들 사이의 전교는 사라지고 오직 남는 것은 조직화한 시스템뿐이라는 것이다.¹⁴⁷⁾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지역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성직자 중심의 제도와 상명하복의 구조가 제거되지 않는 한, 교회 쇠신을 위한 모든 시도는 언제나 일시적인 시도에 불과할 것이다. 혹 그런 시도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제한적인 한계 안에서의 변화만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고, 또 이것이 잘못될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목회자와 평신도, 목회자와 목회자, 평신도와 평신도, 교단과 교단 간의 공공연한 대립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이올라는 제도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신 유기적 교회생활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소용없는 일이라고 결론을 내린다.¹⁴⁸⁾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유기적 교회의 첫 번째 핵심 원리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제도권 교회 내의 성직자들이 양심을 따라 성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바이올라는 실제로 그는 이와 같은 결단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다.¹⁴⁹⁾ 그리고 그런 결단을 한 성직자들 스스로 자신을 절대적으로 지도자가 아니라는 접근 속에서 자신들이 목회했던 제도권 교회를 유기적 교회로 전환하려고 시도했던 것을 도왔던 사례에 관해서도 소개한다. 이러한 전환은 지극히 과격한 것이지만, 제도권 교회가 유기적 교회로 전환될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 평가된다. 성직자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교회는 쇠신이 아니라 철저한 전면 개편으로 나아갈 수 있다.¹⁵⁰⁾

콜도 동일한 관점에서 교회의 변화를 예측한다. 그는 교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

146) Niel Cole, and Phill Helfer, *교회 트랜스포먼*, 43.

147) Niel Cole, *교회 3.0*, 37.

148)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306.

149)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307

150)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314.

저오기 위해 현재 존재하는 것들을 반드시 없애거나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교회의 변화는 작게 시작하여서 천천히 스며들어 가야 하는데,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반죽 덩어리에 퍼지는 것과 같이(갈 5:9), 이것은 교회가 시도하는 ‘체질 변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¹⁵¹⁾ 그래서 사역적인 면에서 널 꼴은 성직자 제도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방법을 채택한다. 그가 체험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들은 일반 평신도들에 의해 개척되며, 그들에 의해 세례와 성찬이 배풀어지고, 그들에 의해서 모임이 인도된다. 교회로 함께 모임 때도 마찬가지이다. 작은 숫자로 모이기 때문에 장소의 제약이 없고, 모임을 인도해야 하는 목사도 필요하지 않다. 결국, 그는 휘황찬란한 건물과 종교적인 계급체계의 성직자의 자리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유기적 교회를 추구하고 있다.¹⁵²⁾ 따라서 그는 건강한 교회라면 성직자 스스로 “언제든 폐기 가능한”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없어서는 안 될 목사”가 아니라 무대의 중심을 예수께 내어주고,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유기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⁵³⁾

이처럼 교회가 상명하복이 지배하는 성직자 중심의 위계질서를 벗어나면, 유기적 관계 안에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 구조는 ‘원탁’뿐이다. 강대상과 회중석으로 나뉜 교회 건물에서는 근본적으로 유기적 교회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의 구조는 원탁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수난을 준비하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셨던 그 모습(막 14:12~26; 눅 22:7~23; 요 13:21~30; 고전 11:23~25)처럼, 이 식탁 공동체가 바로 원탁 구조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만드시기 원하셨던 교회의 근본적인 구조이다.¹⁵⁴⁾ 교회가 이와 같은 ‘원탁’의 구조를 가지고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상하의 구분 없이 만날 때, 진정한 교제와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각의 지체의 역할(롬 12:4~5; 고전 12:12)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유기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바로 성직자 제도를 교회나 목회자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

151) Niel Cole, and Phill Helfer, *교회 트랜스퓨전*, Chapter 3 ‘체질 변화의 시작’ 참고.

152) Niel Cole, *오가닉 치치*, 88-89.

153) Niel Cole, and Phill Helfer, *교회 트랜스퓨전*, 164-169.

154)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65-68.

있던 유기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성직자 중심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그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아더 윌리스(Arthur Willis)는 교회가 이와 같은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혁신을 이루려고 할 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은 변화에 만족하다가 더 큰 변화를 놓치게 되는 것을 지적한다. 작은 변화는 초기에 교회에 활력을 불어주겠지만, 궁극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시도와 이전 구조 사이의 보이지 않는 투쟁관계를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과거의 구조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¹⁵⁵⁾ 따라서 오늘날 변화를 원하는 교회들은 이 둘 중의 하나의 선택에 놓여있다. 과거와 현재의 교회의 정체성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성직자 제도를 고수하며 지금의 모습 그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과 교회가 목회자에게 기는 모든 기대와 목회자들 스스로 성직자 제도를 내려놓고 초대 교회의 특성을 닮음으로 유기적 교회로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 이 두 가지이다.¹⁵⁶⁾

2. 건물 중심의 패러다임을 벗어났다

Giving USA라는 미국의 자선단체가 2010년에 내놓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미국의 예배 시설과 교단 운영을 위해 들어간 재정이 1,009억 5천만 달러였다고 한다.¹⁵⁷⁾ 그리고 이 재정의 대부분은 매주 한 시간 반짜리 예배와 그들이 모이는 건물을 유지하는 것에 투자되었다. 지난 세기 동안 한국 교회 역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 혹은 규모로서의 교회에 대한 사역에 집중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끌어 모으기 식’¹⁵⁸⁾의 교회를 지향해 왔고, ‘월마트 교회’¹⁵⁹⁾를 기대했

155) Arthur Willis, *The Radical Christian* (Columbia, MO: Cityhill Publishing, 1987), 87-88.

156) 프랭크 바이올라는 목회자가 성직자 자리를 내려놓을 때 그들에게 가족 부양의 부담이 당연히 커진다는 사실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목회자가 성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도 교회의 사례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을 돕기 위해 그는 [www.HouseChurchResource](http://www.HouseChurchResource.com)에서 Ex-Pastors Survival Guide와 같은 것들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그는 유기적 교회를 시행하는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선교적인 마인드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57) GIVING USA, 2010 The Annual Report on Philanthropy for the Year 2009, Online: http://cfbroward.org/cfbroward/media/Documents/Sidebar%20Documents/GivingUSA_2010_ExecSummary_Print.pdf

158) ‘끌어모으기 식이란? 전통적 교회가 특정한 동네와 이웃과 장소에 교회를 세우고 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 제 발로 올 것이라 기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있다. 이는 서구식 교회를 지향하는 모든 교회가 동조해왔던 바이다. 그러나 그러한 성장에 매달린 교회들이 마침내 교회의 성장(그들이 기대했던 양적 성장)을 가져왔는가를 살펴보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도 많은 프로그램과 친문학적인 재정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들은 양적으로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놓여있다.

하트퍼드 종교 연구소에 의하면, 주일예배 참석 교인 수가 2,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미국 전역에 200개가 넘는다고 한다.¹⁶⁰⁾ 그러나 대형 교회의 증가가 기독교인 숫자의 증가와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미국 기독교인 가운데 개신교인은 무려 86퍼센트에 육박했지만, 20년 정도가 지난 2008년에는 그 비율이 76퍼센트로 떨어졌다.¹⁶¹⁾ 산술적으로 기독교인이 감소했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개선된 점이 없다는 비판적인 대답을 한 분포가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다.¹⁶²⁾ 미국에서의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교회 밖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께는 꽤 관심이 있지만 교회에는 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¹⁶³⁾ 이것은 오늘날 교인수의 감소가 성경과 예수님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자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지금의 교회들은 일주일에 단 하루 예배당을 꽉 채우는 목표만을 향해 달려간다. 오직 단 하루, 그날을 위해 엄청난 에너지와 인원과 재정과 열정을 쏟아 붓는다. 그리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끌어 모은 성도들을 교회는 단지 구경꾼으로 내몰아버린다. 그저 예배의 좌석을 채워주고, 교회가 운영될 충분한 현금을 내

다.' Michael Frost, and Alan Hirsh, *새로운 교회가 온다*, 46.

159) '월마트 교회'란 대규모 시설과 장비들을 갖춘 대형 교회들이 훌륭한 프로그램과 멋진 음악 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를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대부분 수평이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Leith Anderson의 주장을 따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월마트 교회가 필요한 시대라고 주장했고, 그것은 현실화되었다. 하지만 그 폐해 역시 만만치 않다.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았고, 교회의 다양성은 사라졌다. 성도들은 대중 속에 자신을 감춘 채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전락했고, 그들의 생동감은 사라져버렸다. 단지 성직자들만이 교회를 근근이 버티는 존재가 되었을 뿐이다. Leith Anderson, *21세기를 위한 교회*, 67-70.

160) <http://hrr.hartsem.edu/megachurch/defindtion.html>.

161) B. A. Kosmin, and A. Keysar, *American Religious Identification Survey* (Hartford, Conn.: Trinity College, 2008). Niel Cole, *교회 3.0*, 103에서 재인용.

162) Niel Cole, *교회 3.0*, 103.

163) Niel Cole, *오가닉 처치*, 21.

이주면서, 교회가 요구하는 시시한 일들에 헌신하도록 만드는 구조 속에 몰아 넣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동감과 활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버려두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안주하도록 만들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추출되어버리도록 그냥 놔둘 뿐이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The Problem of Wineskins)*에서 현대의 교회와 그 건물들이 시사하는 것들에 대해 다섯 가지로 설명한다. 즉, 현대 교회는 부동산성(immobility)의 증거이고, 융통성의 경직(inflexibility)의 증거이며, 친교(fellowship) 부족의 증거이자, 우리의 자만심(pride)을 나타내는 증거이고, 마지막으로 계급의식(class division)의 증거이라는 것이다.¹⁶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직자 제도에서 이교적 사상을 상당 부분 수용한 교회는 그 여파로 건물을 통해서도 구조적으로 강대상(성직자)과 회중석(평신도)을 나누고 있다. 이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의 모든 실권이 성직자에게 주어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로, 이러한 교회 건물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유기적인 모임 장소였던 가정집에 비해 차갑고, 비인격적이고, 비우호적인 구조이다.¹⁶⁵⁾ 프랭크 바이올라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교회는 관계성보다는 제도에 의해 운영되고, 의식이나 프로그램에 더 의지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은 소위 전문가들(목회자 또는 성직자)이 자원봉사자들(평신도)의 협조를 받아 운영하는 건물 중심의 조직적 구조이다. 이러한 교회들은 스테프, 건물, 사례, 행정 등을 필요로 한다. 자원봉사자들이 이것들을 유지할 시간과 물질과 노동력을 주면 전문가들에게서 일주일에 한 번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종교적 공연을 관람토록 제공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¹⁶⁶⁾

크레이그 벤 겔더(Craig Van Gelder)는 자신의 책 *선교하는 교회 만들기*에서 교회에 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어떤 체계화된 프로그램과 활동도 아니다. 교회는 단지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어떤 제도에 묶여 있는 어떤 합법적인 권위가 아니다. 교

164) Howard A.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The Problem of Wineskins)*,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75-81 참고.

165) Frank Viola, and George Barna, *이교에 물든 기독교*, 90.

166)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25.

회는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 즉 하나님과 화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서로 화해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타인과의 상호 의존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사회적 공동체로서 교회는 삼위일체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다.¹⁶⁷⁾

여기서 겔더는 교회가 상호 의존이라는 메개 때문에 묶인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한다. 교회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과 화해된 인간의 관계에 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이 교회를 구성하는 기본 정신이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개념은 이해하지만, 실제적인 교회 운영에서는 건물 중심을 벗어나지 못한다. 오히려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력이 사라진 교회를 그만둘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프랭크 바이올라와 조지 바나(George Barna)는 건물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도권 교회를 가리켜 “대를 물려온 집 콤플렉스”¹⁶⁸⁾를 겪고 있다고 표현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벽돌이나 시멘트와 사랑에 빠져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건물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고, 시작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닐 콜은 교회란 헛간 건물이 아니라 밭에서부터 출발하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¹⁶⁹⁾ 더 나아가 그는, 예수님은 건물을 세울 계획이 없었으며,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셨지, 교회 건물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¹⁷⁰⁾ 즉, 교회의 문제점을 건물 중심의 교회론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건물 중심의 교회론은 사람들의 마음을 제단하고 건물에 맞출 것을 요구하는데, 활동의 제약에서부터 제도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건물이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이것은 교회의 성장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을 가리기도 한다. 건물도 문제이지만, 닫힌 시각 또한 건물과 마찬가지로 제도화에 빠질 위험성을 더욱 크게 만들기 때문이

167) Craig Van Gelder, *선교하는 교회 만들기 (The Essence of the Church)*, 최동규 역 (서울: 베다니, 2003), 163.

168) Frank Viola, George Barna, *이교에 물든 기독교*, Chapter 2의 제목.

169) Niel Cole, *오가닉 처치*, 75.

170) Niel Cole, *오가닉 처치*, 77.

다.¹⁷¹⁾ 어떤 이들이 건물이 없는 교회를 지향한다 해도 이미 건물에 익숙해져 있는 그들은 여전히 제도화의 함정에 빠져드는데, 이것이 바로 닫힌 시각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풀은 바람직한 교회론이란 기독교론에서 그 기원을 찾아 선교론을 거쳐 탄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기독교론과 선교론의 부산물이 곧 교회라고 보는 것이다.¹⁷²⁾

신약 성서 어디에도 교회나 성전이나 하나님의 집을 장소나 건물로 지칭한 적이 없다.¹⁷³⁾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앞서 언급한 대로 단지 건물 중심의 조직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폐해(弊害)일 뿐이다. 따라서 현대의 성직자들이 건물 중심의 패러다임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성직자와 평신도에 의해 운영되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다. 원래 교회를 지칭하는 헬라이 단어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는 헬라 도시국가의 시민들이 모인 무리나 민회(民會) 등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용법으로 혹은 ‘믿는 무리’, ‘회중’, ‘신앙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¹⁷⁴⁾ 김세윤은 이것을 ‘하나님의 회집체’라고 부른다.¹⁷⁵⁾ 즉, 교회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말이다.¹⁷⁶⁾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일컬었던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최초의 기록은 주후 190년경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AD 150~215)에 의해서였다. 그는 이 말(에클레시아)을 사용하여 ‘교회에 간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건물을 지칭한 그곳에 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였던 개인 가정집과 그 모임에 간다는 표현으로 쓴 것이었다. 김영선의 주장처럼,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여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자 공동체로, 정적인 기관이 아닌 회합의 사건으로만 실존하며,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특정한 행위를 위해 모인 공동체였다. 이것은 초대 교회가 에클레시아로서 고립된 종교 단체가

171) Niel Cole, *오가닉 처치*, 79.

172) Niel Cole, *교회 3.0*, 112-113.

173) 김영선, *참된 교회*, 67.

174) “ἐκκλησία”라는 말은 고린도전서에서만 22회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해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 혹은 사람들로 본다. C. K. Barrett, *고린도전서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국제성서주석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Vol. 35, 한국신학연구소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51.

175) 김세윤, *고린도전서 강해*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36-37.

176) 송인규,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7), 77.

아니라 상호 봉사하는 포괄적인 공동체로서 하나 된 지체라는 뜻이기도 하다.¹⁷⁷⁾

그리스도인들은 4세기 콘스탄틴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예배를 위해 특별한 건물을 세울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¹⁷⁸⁾ 예수님께서 용도 폐기¹⁷⁹⁾한 이러한 건물 중심의 패러다임이 다시 기독교 역사에 출현하게 된 것은 4세기부터 6세기에 걸쳐 로마 가톨릭이 그리스와 로마의 이교도 사상과 유대교 양쪽의 종교적 관습을 서서히 받아들여 이면서부터였다.¹⁸⁰⁾ 이로 인하여 로마 가톨릭은 전문 제사장 제도를 확립했고, 신성한 건물들을 건축하여 '교회'라고 이름 붙였다.

필립 샤프(Philip Schaff)는 자신이 저술한 *교회사전집(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제 1권 *사도적 기독교*에서 건물 중심의 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의 글을 남기고 있다.

사도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위한 특별한 건물을 세웠을 가능성은 그들이 전반적으로 가난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대단히 희박하다. ... 세상의 구주가 구유에서 나시고 승천하실 때도 그냥 산에서 승천하셨듯이, 그분의 사도들과 그들의 후계자들도 제 3세기에 이르도록 거리와 시장과 산과 배와 묘지와 동굴과 광야와 회심자들의 집에서 말씀을 전파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얼마나 화려한 교회당들과 소예배당들이 세계 도처에 건축되었고, 지금도 계속 건축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은 구주를, 낮아지셨을 때는 미리 둘 곳조차 없었던 그분을 기리고 있는가!(눅 9:58)¹⁸¹⁾

위의 글처럼 초기 기독교 역사는 그들이 모일 건물을 지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

177) 김영선, *참된 교회*, 67-68.

178) Frank Viola, and George Barna, *이교에 물든 기독교*, 63-64.

179)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대 유대교의 세 가지 요소를 폐하셨다. 그것은 성전, 제사장, 그리고 희생 제사이다. 주님은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살아 있는 집을 구현하셨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희생의 제사를 종결하셨고, 새로운 제사장 제도를 세워 모든 믿는 자가 기록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 Frank Viola, and George Barna, *이교에 물든 기독교*, 62-63.

180) 프랭크 바이올라와 조지 바나는 이 '그리스와 로마의 이교사상'과 '고대 유대교의 세 가지 요소' 사이에는 부정할 수 없는 유사점 있다고 말한다. 이교도들도 '성전'과 '제사장'과 '희생 제사'를 그들의 제사에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는 고대 유대교의 세 가지 요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Frank Viola, and George Barna, *이교에 물든 기독교*, 63.

181) Philip Schaff, *교회사전집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제1권 *사도적 기독교*, 이길상 역 (고양,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379-380.

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4~46절과 같이 서로 쓸 것을 위해 그들의 소유를 함께 나누었다는 것만 보아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형편은 그리 풍족하지 못했다. 신약 성서의 배경을 가진 1세기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건물을 가진 '교회'라는 개념을 전혀 상상하지 않았다. 더욱이 자신들의 집(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이 '바실리카'¹⁸²⁾로 전환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당시의 초대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개인 가정집을 기초로 한 네트워크의 구성이었을 것이다.¹⁸³⁾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없었다면 집회를 목적으로 한 특별한 건물을 지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박해를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가정집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올라는 다른 주장을 한다. 그의 주장을 따르면, 초대 교회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상당한 평안을 누렸고 급속도로 번져갔으며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행 2:46~47; 9:31).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모이는지는 비밀이 아니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초대 교회가 어디에서 모이는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행 8:3; 고전 14:23). 물론 박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AD 250년 이전에 있었던 핍박들은 산발적이거나 특정한 지역에 국한됐을 뿐이었다. 그것은 일단의 반대하는 무리(대부분 유대인)의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로마가 주도한 박해는 물론 아니었다. 그러한 박해는 한참 후에나 벌어졌다.¹⁸⁴⁾

이처럼 교회 건물에 관해 초대 교회 성도들이 준 교훈은 가정집 같은 작은 그룹 환경이 유기적 교회 활동들의 가장 적합한 토양이라는 사실이다. 교회가 “유기적인 활동”¹⁸⁵⁾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집과 같은 작은 그룹의 토양이 가장 적합하다. 즉, 교회의 공간적 환경은 신학적인 중요한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가정집과 같은 작

182) 바실리카(Basilicas)는 중세 고딕 양식의 정형화된 교회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로마 시대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한 정방형 형태의 집회 장소를 말한다. Frank Viola, *1세기 관계적 교회*, 71.

183) 닐 콜은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를 한 지역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묶인 네트워크로 본다. Niel Cole, *교회 3.0*, 183-191.

184)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101.

185) 프랭크 바이올라는 교회의 '유기적 활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상호 간의 참여(히 10:24-25); 영적 은사의 활용(고전 14:26);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도적이고 친밀한 공동체로 함께 싸우는 것(엡 2:21-22); 공동 식사(고전 11장); 지체들 상호 간의 사랑(롬 15:14; 갈 6:1-2; 약 5:16, 19-200; 서로 주고받는 나눌 수 있는 자유(고전 14:29-40); 그리고 성령의 코이노니아(나누는 삶, 고후 3:17; 13:24)”이다.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103.

은 규모의 공동체가 결국은 드넓은 공간이 주는 상호 교류와 관계성을 막는 틀에 박힌 분위기를 깨뜨리고, 안락하며 개인적인 나눔이 가능한, 상호 간의 교류와 진실한 나눔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관계적 의미의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¹⁸⁶⁾

닐 콜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란 어떤 모양과 어떤 특정한 건물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그가 개척한 유기적 교회 네트워크들은 절대로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장소들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공터나 공원, 주차장, 라커룸과 대학 캠퍼스와 학생회 사무실, 가정이나 기업의 건물, 혹은 선술집 같은 곳에서도 교회는 개척된다. 심지어는 스트립 바에서도 교회가 개척되기도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유기적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속성상 건물 중심이 아닌 작고 친밀하며 사역에 헌신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이다.¹⁸⁷⁾

3. 교회의 모든 통제권을 그리스도께 드리다

유기적 교회를 지향하는 모든 교회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주하시는 주님에게 깨어 있지 않다면, 결코 유기적인 교회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점이다.¹⁸⁸⁾ 이 말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 바로 성직자 체도가 차지했던 그 중심에 원래 계시야 했던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이다.

닐 콜과 필 헬퍼는 오늘날 교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강력한 지도자에게 의존되어 있는 모습에 관해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태를 ‘교회 의존증’이라 부른다.¹⁸⁹⁾ 즉,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아닌 종교지도자에게 의존된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로버트 쉘러(Robert H. Schuller) 목사가 이끌었던 수정 교회(Crystal Cathedral)를 들 수 있는데, 강력한 지도자 한 사람에게 의존되었던 교회가 어떻게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수정 교회는 한때 번영신학을 바탕으로 가장 강력한 메가 처치를 이루었었다. 하지만 쉘러 목사의 사임 이후 그의 아들이

186)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104-106.

187) Niel Cole, *오가닉 처치*, 60-61.

188) Frank Viola, *유기적 교회 세우기*, 60.

189) Niel Cole, and Phill Helfer, *교회 트랜스포지션*, 146-147.

후임으로 목회를 물려받았다가 결국 내쫓기게 되었고, 이후 술리 목사의 딸이 마지막으로 교회를 맡았지만 그녀마저 교회에서 축출되고 말았다. 이제 술리 목사가 개척한 수정 교회는 술리 목사나 그의 가족들과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렸다. 결국 수정 교회는 강력한 한 사람의 리더십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는 일이 생겨났고, 결국에는 막대한 부채와 방만한 재정 관리 때문에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후 교회 건물은 천주교 오렌지카운티 교구에 매각되어 버렸다. 그들이 주님을 위해 세웠다고 자부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이다.¹⁹⁰⁾ 오늘날 한국 교회도 비슷한 절차를 따라가고 있다. 한국 교회는 한 사람의 리더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교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교회 대부분이 현재 리더십의 세대교체시기에 놓여 있기에 여기저기서 갈등과 진통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 미래 학자들은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한국의 기독교가 거의 반 토막이 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다.¹⁹¹⁾

바이올라가 말하는바, 교회의 통제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곧 주님이 교회의 중심에 내주하신다는 의미이다. 즉, 교회의 “그리스도 중심성”을 말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손에 의해 교회가 시작될 수 없고, 또 운영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손에 의해 시작된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진정한 교회는 우리가 아닌, 주님께서 만드시고 시작하신다.¹⁹²⁾ 이 말은 곧 교회의 탄생과 모든 모임의 과정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의미이자,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초대 교회는 나누어지는 모든 말과 불렀던 모든 찬송, 그리고 드렸던 모든 기도에서 다 주님을 드러내고, 흘러가는 모든 방향에서 다 그리스도를 가리켰었다. 즉, 자신의 모든 삶에서 경험되는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모임이 바로 초대 교회 모임이었다.¹⁹³⁾ 따라서 최초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탄생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성을 이어받은 탄생이어야 한다.

교회의 그리스도 중심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드러나야 한다. 첫 번째는, “은사”의 활용에 관한 부분에서 드러나야 한다.¹⁹⁴⁾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직자 대부분의 고

190) <http://www.newsm.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8>

191) <http://www.newsm.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0>

192) Frank Viola, *유기적 교회 세우기*, 24.

193)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74.

194)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65.

민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성을 따라 은사를 발휘하게 되면 크나큰 혼란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염려이다. 따라서 그들은 사람들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처하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 성도들을 통제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¹⁹⁵⁾ 한마디로 말해, 성도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¹⁹⁶⁾

그런데도 사실상 아무런 성경적 근거도 없는 오직 통제의 원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이러한 ‘보호-책임(covering-accountability)’의 패턴은 교회 내에서 영적이라 불릴 만한 모든 관계에 다 적용이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관계는 인위적으로 이러한 패턴에 잘 맞게 다듬어져 있는데, 교회 내의 그 어떤 관계도 이러한 보호-책임의 패턴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 특히 평신도와 성직자(지도자)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¹⁹⁷⁾ 이러한 폐해는 교회가 앞서 설명한 대로, 건물 중심이기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다. 강대상과 회중석으로 나누어져 있는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계층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를 만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은 철저히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 중심성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다.

닐 콜과 필 헬퍼는 이러한 통제에 관해 인간적인 모든 활동을 철저히 배격할 것을 주장하는데, 이처럼 유기적 배가 운동의 모든 과정의 통제권을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하는 이유에 관해 세 가지를 언급한다. 첫째, 교회 배가 운동의 성장과 방향과 질서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DNA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195)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77.

196) 인간이 주도하는 이러한 통제는 실상, 커버링(Covering)을 뜻한다. 이 커버링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에서 작용하는 대표적인 구조적인 문제점(관행)이다. 커버링은 성도들이 다른 신자나 조직의 권위에 복종할 때 교리적인 오류나 도덕적인 결함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여기는 교회의 리더십이나 영적 권위, 제자훈련, 책임 등을 의미한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의 어떤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의존토록 한다는 의도된 부작용을 남기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결국, 이 커버링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수단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모든 신자는 교리에 의하여 더욱 높은 성직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복종해야 한다. 목사 역시도 자신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또 다른 목사에게 복종해야 한다. 목사도 교단 총회나 다른 교회 또는 영향력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 사역자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그 꼭대기에 있는 교단 총회나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 사역자는 누가 보호하고 통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결국, 커버링의 최상위에 누가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만 남기게 된다. Frank Viola, *누가 교회의 권위자인가?(Who is Your Covering?)*, 김명숙 역 (서울: 미션월드, 2008), 22-23.

197) Frank Viola, *누가 교회의 권위자인가?*, 22.

배가 운동이라는 말 그 자체가 각 세대의 자율적인 번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이 절대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결국, 유기적 배가 운동은 철저히 하나님의 지휘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만일 그 지휘권을 인간이 가지게 되면 동시에 즉각적인 위축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¹⁹⁸⁾

이처럼 그리스도 중심성을 말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회에 관한 이미지가 있다. 그것은 바울이 말씀한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미지이다(고전 10:16~17; 12:12~21, 롬 12:4~8).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 된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계시 뿐만 아니라 교회 그 자체로서도 실존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지상의 교회는 실존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형상이다.¹⁹⁹⁾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몸이자 이 땅에서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즉, 은사를 따라 다양하게 지어진 각 지체의 연합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직접 통제하는 상황 가운데 유연한 자발적 참여로 집회가 이루어졌고, 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개인적으로 받았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더 충만했던 것처럼,²⁰⁰⁾ 오늘날 교회 역시 그리스도 중심성을 드러내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랄프 네이버(Ralph W. Neighbour, Jr)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부여하신 곳”이라고 표현한다.²⁰¹⁾

두 번째로, 교회의 그리스도 중심성이 드러나야 하는 곳은 바로 “성찬(만찬)”이다.²⁰²⁾ 성찬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 된 교회의 유기적 관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모형인데, 이것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상징한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계속 거행하는 것이 주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라 믿었다.²⁰³⁾ 뿐만 아니라, 떡을 나눌 때 부서진 빵은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현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사실을 드러냄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

198) Niel Cole, and Phill Helfer, *교회 트랜스퓨전*, 71.

199) 김영선, *참된 교회*, 116.

200) Frank Viola, *1세기 관계적 교회*, 34, 41.

201) Ralph W. Neighbour, Jr., *그리스도의 몸*, 35.

202)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88.

203) 김영선, *참된 교회*, 223.

동체가 곧 하나임을 구체화하여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다.²⁰⁴⁾

바이올라와 콜의 유기적 교회는 언제나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이 성찬을 행하도록 권한다. 때로는 주의 만찬이 잔치의 자리만큼 넉넉한 음식이 준비된 가운데 행해지기도 하는데(고전 11:21~22, 33~34), 바이올라의 주장처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을 그냥 저녁 식사 중에 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식사는 잔치였다. 즉, 빵과 포도주가 포함된 팻럭(potluck) 저녁 식사였고, 가족이 다 함께 모여 교체하는 그런 식사 모임이었다.²⁰⁵⁾ 주의 만찬이 이러한 모임 안에서 자연스럽게 식사나 혹은 축제 때마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곧 모든 교회의 중심에 언제나 그리스도가 계심을 그들이 항상 소망하고 추구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들은 주의 만찬을 항상 나누며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것은 또한, 지체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몸과 한 피 아래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기도 했다.²⁰⁶⁾

세 번째로, 교회의 그리스도 중심성은 “진신자 제사장주의”를 통해 드러난다.²⁰⁷⁾ 1세기 교회의 모임은 사실상 ‘믿는 무리들’의 모임이었다(고전 11~14장). 물론 불신자들이 참석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의 모임은 대부분 신앙고백을 같이 한 사람에게 허락되었다.²⁰⁸⁾ 하지만 오늘날 관행처럼 설교자가 있고, 모든 사람이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형태는 아니었다. 이 모임에는 눈에 띄는 지도자도 없었지만, 대다수의 청중이 듣기만 하는 그런 일도 더더욱 없었다. 초대 교회의 모임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성령에 의해 주도되는 모임이었다.²⁰⁹⁾ 이에 관하여 바이올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모임에는 예식이 없고, 의식도 없고, 성례도 없었다. 기계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입재 가운데서 나왔다. 그 모임은 하나님의 영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유연한 자발성을 반영했다. 주님은 자신이 정하신 몸의 어떤 지체를 통해서든 자유롭게 역사하셨다(고전 14:26, 31). 그리고 만일 주님

204)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88-89.

205)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90.

206) Frank Viola, *1세기 관계적 교회*, 55-66.

207)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68.

208)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63.

209) John Drane, *초대교회의 생활 (An Illustrated Documentary)*, 이종수 역 (서울: 두란노, 1992), 65-68.

께서 모임 전체를 인도하시는 것이 허용되었다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되었을 것이다(고전 14:40).²¹⁰⁾

1세기의 교회 모임은 신약성서 전반을 통해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전신자 제사장주의’ 교리를 바탕으로 그리스도 중심성이 구체화하고 실현된 모임이었다.²¹¹⁾ 즉, 이 교회의 모임은 앞서 언급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반영된 상호 존중의 모임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은사가 성령에 의해 주도 되어 각 사람에게서 드러나 모든 사람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는 그런 모임이었다. 이것은 믿는 각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통해 중심되신 그리스도가 표현되도록 특별히 고안된 그런 모임이었다(고전 11-14장; 히 10:24-25).²¹²⁾ 쉽게 말해, 초대 교회는 전신자 제사장 주의를 통해 그리스도 중심성이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 나타나도록 고안된 교회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이올라는 이러한 전신자 제사장 주의를 표방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유기적 교회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도하려고 시도하지 않기를 권유한다. 모임의 모든 통제권을 그리스도께 드렸기 때문에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모임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당장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신에 그는 어떻게 모임의 모든 통제권을 그리스도께 드리고도 신선하고도 성령 충만한 모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체계적인 단계들을 조인하고 있다.²¹³⁾ 볼프강 짐존(Wolfgang JimJon)은 바이올라의 이러한 견해를 지지한다. 그는 초대 교회 성도들의 가정 교회는 모임을 위한 특별한 일정이나 예배 순서 같은 것이 없었음을 분명히 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일정과 순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셨다. 따라서 가정 교회로 모였을 때 그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았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가르쳐주시기를 기도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위해

210)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66.

211) Frank Viola, *1세기 관계적 교회*, 37-41.

212)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70.

213) ‘모임을 하는 방법 배우기’ 참고. 이것에 관해서는 ‘실제적인 조인’ 파트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중요한 점은 그가 조인하는 모든 과정은 과거의 제도적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라는 사실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유기적 모임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아예 없을 수 없지만, 그 노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하고, 전신자 제사장주의를 따라 만들어져 가야 한다. Frank Viola, *유기적 교회 배우기*, Chapter 15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도록 기도하고 애인하는 데에 집중했다.²¹⁴⁾

유기적 교회의 모임은 이처럼 그리스도 중심성을 적극 반영한 모임을 뜻한다. 즉, 은사의 활용과 성찬 그리고 전신자 제사장주의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지향하는 것은 곧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모든 통제권을 그리스도께 다 드린 유기적 교회의 모임이다. 바이올라는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성이 온전히 구현되는 예로 자신이 경험한 유기적 교회를 소개하는데,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없지만, 모두가 예배에 참여했고, 모두가 예배를 주관했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루어졌으며, 결코 무질서하지도 않은 모임이었다고 말한다. 모든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축복과 나눔은 다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을 근거하거나 그분의 가르침에 관한 나눔으로 채워졌었다고 고백한다. 결코, 그리스도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유기적 나눔이 있는 모임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다.²¹⁵⁾

4.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다

로버트 뱅크스는 교회란, “하나님이 서로에게 주신 사역을 통해 그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와 공동생활 안에서 성장하고 덕을 세우는 데”(고전 14:12, 19, 26)²¹⁶⁾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일이 지체들이 식사에 참여하고 성령을 통해 은사들을 서로 나눌 때 일어난다고 본다. 뱅크스는 이 교회의 목적을 초대 교회가 가정이라는 환경을 통해 추구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그는 권속을 뜻했던 ‘오이케이오이(oikeioi)’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가족’을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²¹⁷⁾ 즉,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 가족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모두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킬 때 썼다는 것이다. 이 가족의 가장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다.²¹⁸⁾ 따라서 이 가족으로서의 초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추구하고, 사랑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가족적이며 친밀한 환경

214) Wolfgang Simson, *가정교회: 침투적 교회 개척론 (Houses That Change the World: The Return of the House Churches)*, 황진기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152.

215)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82-85 참고.

216) Robert Banks, *바울의 공동체 사상*, 164

217) Robert Banks, *바울의 공동체 사상*, 97.

218) Robert Banks, *바울의 공동체 사상*, 98.

을 만들어 성자와 성부와 함께하는 사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소가 되도록 하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삶 속에서 연합체적인 실체가 되기를 노력”²¹⁹⁾했던 그런 공동체였다.

프랭크 바이올라가 주장하는 유기적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이다. 그는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가 여섯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첫째, 지체들은 서로를 돌본다. 둘째, 지체들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 셋째, 지체들은 상호 간의 따뜻한 마음을 서로에게 보여준다. 넷째, 이 하나님의 가족은 성장한다. 다섯째, 지체들은 책임을 함께 공유한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지체들은 그들의 관계성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반영한다.²²⁰⁾

가족은 유기적 교회의 가장 전형적인 모형이다. 이는 초대 교회가 가정의 모형을 가졌기 때문이다. 진정한 가족이 자신의 뗏줄을 돌보는 책임을 지는 것처럼, 영적인 가족은 서로를 돌본다. 야고보서 2:14~17절이 말씀하는바, 가족은 그들의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서로 돌보며 외면하지 않는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서로를 돌본다. 진정한 믿음이란 그 믿음 자체를 행동으로 반드시 옮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초대 교회는 자신들의 유대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한 분위기로 가정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의 분위기에서 초대 교회 성도들은 공통된 목적이나 활동인 성령의 일에, 다른 이의 믿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복음의 사역에, 재정적인 지원 등에 참여를 이루었다.²²¹⁾

바이올라는 가족으로서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돌봄은 단순히 영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인 도움 모두를 포함했던 것으로 본다.²²²⁾ 초대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돌봄에 있는 것은, 그만큼 초대 교회가 유기적으로 서로의 삶 전부를 나누는 돌봄이 있는 공동체였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교회는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돌봄이 일어나는 공동체’(행 2:46; 롬 12:10, 13, 16; 고전 16:20; 고후 13:12; 갈 5:13; 살전 5:26; 벧전 5:14)였다.²²³⁾

교회는 가족이기에 구성원들이 서로를 알기 위해 자기의 시간을 당연히 내야 한

219) Robert Banks, *바울의 공동체 사상*, 109.

220)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117-127.

221) Robert Banks, *바울의 공동체 사상*, 110.

222)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119.

223) Frank Viola, *1세기 관계적 교회*, 85.

다. 이것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규적인 모임 외의 시간도 함께 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예배 때만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얼굴을 보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그들은 주중에 함께 모였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 활발한 교류가 상호 간에 일어나는 것이 그 특징이었다. 이것은 성령이 그들 사이에서 유기적으로 이끄는 일종의 자식처럼 역사했기 때문이다.²²⁴⁾ 사도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했다(살전 5:26; 고전 16:20; 고후 13:12; 롬 16:16; 뱀전 5:14). 이 행위는 교회의 각 지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대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만큼 초대 교회의 지체들은 서로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다.²²⁵⁾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지체들은 서로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교회가 가족과 같은 친밀한 공동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서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일반 가정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며 서로를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책임은 직위나 직분, 혹은 위계질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유기적으로 영적인 생명력에 의해 움직여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²²⁶⁾ 그렇지 않고 직위나 직분, 계층의 구조 속에서의 주어지는 책임은 자신의 위치와 연관된 행동만을 양산한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나,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서로의 삶과 신앙과 영적인 성숙을 위한 돌봄의 책임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바울이 교회를 몸에 비유하여 설명한 이유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롬 12:5; 고전 6:15; 고전 12:12, 25; 엡 4:16, 30).

따라서 신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관계적인 교회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세 인격의 가족적인 교제가 바로 교회의 근원이자 목표이다.²²⁷⁾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가 말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류 속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에게는 소망의 대상일 뿐 아니라, 현재의 경험”이

224)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120.

225) Robert Banks, *바울의 공동체 사상*, 155-156.

226)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124-126.

227)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126.

되어야 한다.²²⁸⁾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세 인격의 가족적인 교제를 닮은 공동체를 추구하여야 한다.

반면, 오늘날 교회 내의 성도들은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곱씹리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친밀한 관계는 결국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일주일에 단 하루 그것도 대부분의 시간을 회중석에 앉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앞사람의 뒷머리만 쳐다보다가 집에 가는 것을 훨씬 선호한다. 그러면서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교회가 아닌 다른 모임들에서 대리 만족하려 한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자신들이 노출되도록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성도들에게 교회는 단지 일주일에 한두 번 참석하는 행사에 불과할 뿐이다.²²⁹⁾ 이들은 자신이 교회에 왔다가 가는 줄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리저리 도망 다닌다. 서로를 안아주는 친밀함의 관계보다는 사무적이거나 혹은 자신의 이익이나 가치가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관계가 태반이다. 이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서조차도 마찬가지이다. 서로가 친밀한 관계이기보다는 관리와 협조에 더 가깝다.²³⁰⁾ 목회자는 각종 신방을 통해 성도를 관리하고, 성도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노동을 통해 목회자의 요구에 협조한다. 거북하게 입맞춤하는 따뜻한 관계는 존재할 수 없고, 오히려 성도들은 목회자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숨어 다닌다. 어찌다가 눈에 띄는 날이면 여지없이 교회의 일이 자신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교역자와 성도의 관계는 개와 고양이의 관계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는 상호 간에 따뜻한 마음을 느낄 여지는 없는 것이다.

프랭크 바이올라가 유기적 교회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특징을 강조한 이유는, 그가 여전히 가정 교회와 같은 작은 모임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에게 교회는 대부분 주로 가정에 국한된 모임으로 한정된다. 이는 셀 교회의 운동과 일맥상통한 느낌을 주지만, 셀 교회가 자연적 성장으로 추구하는 제도권 교회(성장하는 교회)의 틀을 가진 것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그 역시 다양한 시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선호하는 것이 가정이다. 아무래도 가정이라는 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

228) Miroslav Volf, *After Our Likeness: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1998), 129.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127에서 재인용.

229) Niel Cole, *오가닉 처치*, 24-25.

230)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239 참고.

으로 보인다. 물론 가정 외의 다른 장소에서 모이는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²³¹⁾ 다만, 단순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이 가정에서의 모임이 유기적 교회를 실현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5. 기능적 사고방식으로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하다

교회가 만일 성직자 중심, 건물 중심의 위계적 리더십을 벗어나게 된다면, 신약 성경의 리더십 개념을 따라 '기능적 사고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바이올라는 이 기능적 사고방식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사역 중심적인 교회 안에 공동 책임과 구성원들의 공동체적인 상호 작용만이 있으며, 이 구성원들은 함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은사 안에서 서로서로 인정하는, 한마디로 신약 성경의 리더십 개념을 지향하는 유기적이고 사역적인"²³²⁾ 모습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교회가 이 기능적 사고방식을 따르게 될 때 하나의 조직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돌아가는지, 즉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지의 맥락에서 교회의 권위를 평가하고 지정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²³³⁾

레너드 스위트은 이러한 기능적 사고방식을 유기적 시스템으로 설명하는데, 그는 유기적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교회에 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교회의 유기적인 시스템에서는 가장 낮은 위치의 사람들에게도 결정권을 부여하고, 리더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또한 가장 낮은 시열을 포함하여 모든 스태프들이 자유롭게 창조력을 발휘하여 일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도록 격려하고, 권한과 권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한다.²³⁴⁾

231) 프랭크 바이올라는 그동안 자신이 개척했거나 돌보거나 영향력을 주었던 유기적 교회들의 예들을 통해 가정 외의 장소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시각을 보여준다. 이 예들 속에서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특별한 모임을 교회로 인식하는 유기적 교회의 예들도 있다.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129-134.

232) Frank Viola, *누가 교회의 권위자인가?*, 27.

233) Frank Viola, *누가 교회의 권위자인가?*, 26.

234) Leonard I. Sweet,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272.

그의 주장을 풀어보면, 유기적 교회가 기능적 사고방식을 따른다는 것은 기능적인 직무의 '수행'에 강조점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일부 가정 교회 지도자들이 제도적 교회가 고수하는 위계적인 '직책(Position)'을 옹호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²³⁵⁾ 유기적 교회는 직책보다는 사역을 강조하고, 또 직함보다는 수행해야 하는 그 일을 강조해야 한다. 신약 교회의 주된 관심이 바로 그 직책에 있지 않고 목자의 기능, 장로의 기능, 예인의 기능, 감독의 기능, 사도의 기능 등과 같은 활동 그 자체에 있다기 때문이다.²³⁶⁾ 다시 말해, 이 기능적 사고방식은 '동사' 즉 '행위'에 강조점이 있다.²³⁷⁾

교회가 이 기능적 사고방식의 테두리 안에 있게 되면, 교회는 생명 곧 '신적 생명'에 의해 작동하게 된다. 신적 생명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충돌하지 않으시고 기능적인 사고방식으로 움직이셨던 것과 동일한 모습이 된다는 의미이다.²³⁸⁾ 그러므로 삼위일체 안에 기능적 사고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간의 사역은 교회 구성원들이 훈련되고 계급적 구조가 없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며, 이럴 때 성도들은 상호 간의 책임과 동등한 권한의 교류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초대 교회가 '사도적 교회'²³⁹⁾로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의 은사들을 서로 인정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일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역시 기능적 사고방식으로 움직일 때 교회는 유기적 교회로서의 그 모형을 회복해 갈 수 있게 된다.

기능적 사고방식에 관한 대표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대 교회의 직책인 '장로'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장로'는 교회 위계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직책의 대표이다. 그러나 원래 헬라어로 장로에 해당하는 단어는 '프레스비테로스(presbuteros)'

235) 이것은 전통 교회가 교회론으로 주장하는 내용인데, 독특하게도 빈센트 브래닉은 가정 교회 운동을 하면서도 초대 교회 안에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을 구별된 어떤 칭호를 지닐 정도까지 충분히 형식화된 지위들(Position)이라고 본다. 이 지위들이 오늘날 교회의 직분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영속성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다. Vincent P. Branick,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The House Church in the Writings of Paul)*, 홍인규 역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5), 121.

236)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178.

237) Frank Viola, *누가 교회의 권위자인가?*, 26.

238)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257-260 참고.

239) '사도적 교회'라는 용어는 필립 샤프(Philip Schaff)의 *교회사전집* 제 1권 사도적 기독교에서 가져온 용어로, 신약성서의 유기적인 초대 교회를 의미한다.

인데, 이는 ‘공동체를 섬기던 성숙한 사람 혹은 연장자’라는 뜻으로, 단지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값없이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²⁴⁰⁾ 따라서 이 장로들은 오늘날과 같이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유기체인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함으로 배출됐던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선 교회의 유전자 안에 들어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안에 장로들이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 처음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함께 성장함으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장로라 불렸다.²⁴¹⁾ 장로들이 사도적 일꾼들에 의해 인정된 것은 교회 안에서 이미 ‘장로의 역할을 하던’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목사나 장로의 안수’가 아니었다. 기능적인 의미이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양 때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사람을 뜻했다.²⁴²⁾

이 장로와 함께 초대 교회에서 직책으로 여겨졌던 또 다른 단어는 ‘감독’과 ‘목자’인데, 사실 이것은 ‘장로’라는 단어의 또 다른 성격을 표현하는 말에 불과했다. ‘감독’은 장로가 하는 일의 ‘역할’을 가리키는 말로 ‘관리하는 사람’을 뜻했다. ‘목자’는 장로가 행한 ‘은사’를 가리키는 말로 그들의 ‘돌봄 사역’을 지칭하는 말이었다.²⁴³⁾ 이로 미루어 보건대, 장로의 영적 권위는 외적 지위가 아닌 섬김에서 오는 것임을 분명하다. 또 이것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장로라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을만한 인품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의미이기도하다. 따라서 장로들은 ‘본이 되는 사람’, ‘섬기는 중’, ‘조력자’, ‘아버지’, ‘영적인 관리자’, ‘양육하는 사람’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공동체 안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²⁴⁴⁾

길버트 빌지키언(Gilbert Bilezikian)은 바울 서신들을 하나하나 살펴본 후, 초대 교회에 리더십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하나같이 기능적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초대 교회에 존재했던 모든 리더십은 “구조가 눈에 잘 띄지

240) F. F. Bruce, *테살로니가 전후서 (1 & 2 Thessalonians)*, WBC 성경주석 vol. 45. 김철역 (서울: 솔로몬, 2000), 216-217.

241)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202.

242)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203.

243) Frank Viola, *1세기 관계적 교회*, 96.

244)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204.

않고 세심하며, 존재를 일부러 드러내려 하지 않고 융통성이 있으며, 교회의 환경과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을 조정하며, 성도들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는, 단지 필요할 때만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종들”이었다는 것이다.²⁴⁵⁾

기능적 사고방식에 관한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대표적 모형은 ‘사도적 전통’²⁴⁶⁾을 따라 초대 교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던 “순회 사도적 일꾼들”²⁴⁷⁾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적 전통이란 1세기 각 교회의 환경 속에서 사도들이 본을 보여주었던 유기적 관습들이 구체화한 것을 의미하는데,²⁴⁸⁾ 초대 교회는 이들 순회 사도적 일꾼들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사역(복음 증거, 교회 개척, 사회를 향한 선교적 사역, 회심자의 침례(세례), 평신도 및 사도적 일꾼 훈련하기 등)하며 사도적 전통을 계승했다.²⁴⁹⁾

프랭크 바이올라는 성경이 말하는 열두 사도(가롯 유다를 대신해 뽑힌 맛디아를 포함한) 이외에도 다른 사도들, 예를 들어 바울과 바나바(행 14:4, 14; 고전 9:1-6)와 주의 형제인 야고보(갈 1:19), 그리고 디모테와 실라(살전 1:1; 2:6) 등도 순회 사도적 일꾼으로 본다. 이것은 전적으로 직무 계승(기능적 사고방식에서의 계승)의 입장에

245)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125.

246) 프랭크 바이올라가 정의하는 사도적 전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도적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삶과 사역에 관한 이야기이다(이 내용은 복음서들에 잘 나와 있다). 둘째, 사도적 전통은 모든 교회들에게 전수된 사도들의 명령과 규례들(practices)을 포함하고 있다(고전 11:23 이후; 15:1-3; 벧후 3:1-2). 또한, 이 사도적 전통(전승)은 초대 교회의 표준적인 신앙과 규범(practices)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울이 모든 교회의 보편적 규범에 관해 언급할 때, 그것은 사도적 전통에 의존하는 것이다(고전 4:16-17, 11:16, 14:33-38).” 그는 F. F. 브루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사도적 전통에 관한 좀 더 구체화한 소견을 제시하는데, 브루스는 사도적 전통이 3가지 주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주장했다. (1) 신앙고백으로 표현되어졌었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기독교적 메시지에 강조점이 있었고, (2)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들과 그분의 가르치신 말씀들이었으며, (3) 그분에 의해 선포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윤리적 명령들이었다. 브루스의 주장을 따르면, 이와 같은 요소들을 반영하여 예수님의 사역에서 시작된 전통들은 사도들을 통해 전수되었고,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사도들 안에서 일어났었다. 따라서 계시와 사도적 전통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도 시대를 거치면서 이 전통을 유지하고 입증해 주시므로, 구진 되어오던 이 전통이 성경이 된 것이다. 따라서 사도적 전통이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계시를 부여하시는 한 방법이 있다.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279. *1세기 관재적 교회*, 198.

247)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209.

248)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279.

249)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283-285.

서 보는 사도의 정의이다. 이렇게 볼 때 순회 사도적 일꾼의 주된 임무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무조건 사도들에 의해서만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신약 성서의 ‘모든’ 교회는 이들 사도의 도움을 받았거나 그들에 의해서 개척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순회 사도적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건축자가 되셔서 기초를 놓으시고 자라게 하셨던 그 교회를 세우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이 사역을 위해 특별하게 부르심 받았고(롬 1:1; 딤후 2:7; 딤후 1:11),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양육하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일단 교회의 기초가 다져지고 성도들이 홀로 설 수 있게 되면 그들은 모든 책임과 감독권을 해당 지역의 성도들에게 다 넘겨주고 홀연히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결코, 어느 한 지역의 교회에 정착해서 그 교회를 구조적으로 완전하게 장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일단 교회를 떠난 후에는 결코 교회의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²⁵⁰⁾

프랭크 바이올라는 순회 사도적 일꾼들의 사역과 현대 교회 일꾼들의 사역의 차이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도적 사역, 또는 성경이 일컫는 ‘그 일’(the work, 헬라이로는 *ergon*, 행 13:2; 14:26; 15:38)은 교회들과는 별개의 실체로 존재한다. 그 일은 지역적인데 반해, 교회들은 국부적이다. 그 일은 일시적인데 반해, 교회들은 장기적이다. 그 일은 순회 사역인데 반해, 교회는 상주하는 공동체이다.²⁵¹⁾

이러한 순회 사도적 일꾼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서 통상적으로 조금밖에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데 평균 몇 개월의 시간만을 할애한 다음 모든 일을 그들의 손에 맡기고 곧 떠났다. 물론 공동체가 요구할 때는 적절한 조인의 편지를 전해주기도 했고(고전 7:1), 또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그들의 신앙의 진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하며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도 했지만, 결코 그들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계속 떠맡지는 않았다.²⁵²⁾

250) Frank Viola, *누가 교회의 권위자인가?*, 129-133 참고.

251) Frank Viola, *누가 교회의 권위자인가?*, 134.

252) Frank Viola, *누가 교회의 권위자인가?*, 134.

바울이 순회 사도적 일꾼이라는 증거는 첫째, 팀을 꾸리고 그 팀을 중심으로 그가 사역했기 때문이다.²⁵³⁾ 둘째,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받는 교회나 동역자들에게 권위적으로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⁵⁴⁾ 셋째, 그는 오래 머물러도 한 곳에 3년을 넘기는 경우가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넷째, 그는 자신을 교회의 기득권으로 주장한 적도, 그에 따른 자기 몫을 주장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단, 개척한 교회들에게서 일시적인 도움을 받기는 했다. 하지만 자신이 세운 교회라는 입장에서 이득을 취하려 하지는 않았다.

바울은 순회 사도적 일꾼으로서 자신이 개척하거나 혹은 자신이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영향력을 주었던 그 교회들을 끝까지 돌보며 책임지려 했다. 그가 순회 사도적 일꾼이면서도 그런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된 사람이었고, 그 굴복에서 오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사도적 일꾼들의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다. 그들의 전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거나 그분의 말씀을 옮겨오는 것이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일치될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권위를 입었고, 그 권위를 행사했다.²⁵⁵⁾

이처럼, 사도적 권위를 입은 순회 사도적 일꾼들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한 교회들은 기능적 사고방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따랐다. 이것은 신약 성서에서 드러나는 공동체적인 책임에 관한 것인데, 자세히 언급하자면, 지역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에 대한 책임을 중요한 원칙으로 지켜나갔다는 것이다.²⁵⁶⁾ 신약의 교회를 향한 '서로 혹은 피차'에 관한 권면과 관련된 구절들²⁵⁷⁾은 결국 교회의

253) Frank Viola, *누가 교회의 권위자인가?*, 140.

254) Frank Viola, *누가 교회의 권위자인가?*, 151.

255) Frank Viola, *누가 교회의 권위자인가?*, 144-145 참고.

256)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213.

257) '서로 혹은 피차'에 관한 권면과 관련된 구절은 다음과 같다. 서로 우애하는 것(롬 12:10), 서로 존경하는 것(롬 12:10), 서로 마음을 같이하는 것(롬 12:16; 뱀전 3:8), 서로 사랑하는 것(롬 13:8; 살전 4:9; 뱀전 1:22; 요일 3:11), 서로 덕을 세우는 것(롬 14:19; 살전 5:11), 서로 받는 것(롬 15:7), 서로 권하는 것(롬 15:14), 서로 문안하는 것(롬 16:16), 서로 같은 말을 하는 것(고전 1:10), 타락한 지체들을 판단하는 것(고전 5:3-5; 6:2-6), 교회의 일들을 질서 있게 하는 것(고전 11:33-34; 14:39-40; 16:2-3), 서로 돌보는 것(고전 12:25), 하나씩 하나씩 애인 하는 것(고전 14:31),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고전 15:58), 서로 종노릇 하는 것(갈 5:13), 짐을 서로 지는 것(갈 6:2), 서로 용납하는 것(엡 4:2),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엡 4:32),

모든 지체가 목회적인 돌봄의 책임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 쉽게 말하면, 초대 교회의 리더십은 한 사람에게 의해 주도 되지 않았다. 이 리더십은 모두가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도록 격려했으며, 이를 통해 성도들 사이에는 영적인 결속력이 강화되었고, 서로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나 단합이 촉진되는 일도 일어났다.²⁵⁸⁾ 길버트 빌지키언도 이러한 초대 교회의 리더십에 관해 동의하면서, “교회의 모든 사역에 온 회중들이 서로 종이 되어 전적으로 동등한 역할로 참여하는 것은, 십자가의 수평이 평평하다는 것과 모든 성도 간의 사역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²⁵⁹⁾는 주장을 한다.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교회는 의사 결정의 권위가 예수님에게서부터 회중에게로 주어진 것으로 이해한다. 의사 결정은 교회의 생명력을 좌우하고 교회 운영과 교회 구성원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섬기는 본을 따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도 거들먹거리거나 자신의 우월성과 힘을 과시할 수 없다.²⁶⁰⁾ 신약의 초대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잘 반영했다. 그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내부나 외부에서 어떠한 강압적인 분위기나 한두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에 좌우되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한 ‘합의’에 의해서 모든 의사를 결정했다.²⁶¹⁾ 초대 교회가 이러한 합의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가정으로 모이는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기적 교회에서의 장로들의 역할이 바로 의사결정이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로들은 가정에서 모이는 이 교회 가족의 결속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혜로운 연장자였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그리고 있는 것이다.

사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엡 5:19), 피차 복종하는 것(엡 5:21), 피차 용서하는 것(골 3:13), 피차 가르치는 것(골 3:16), 피차 권고하는 것(골 3:16), 피차 격려하는 것(살전 5:11),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것(살전 5:14),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것(살전 5:14),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것(살전 5:14), 피차 권면하는 것(히 3:13; 10:25),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히 10:24), 서로 기도하는 것(약 5:16),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약 5:16), 서로 대접하는 것(벧전 4:9), 서로 겸손하게 대하는 것(벧전 5:5), 서로 사권을 갖는 것(요일 1:7).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213-214.

258)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220.

259)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106.

260)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177.

261)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221.

닐 콜은 유기적 교회의 관점에서 보는 기능적 사고방식의 리더십을 ‘목회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신도를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사역하도록 이끄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모든 교인이 성직자’가 되는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 사역하는 그 사람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의미이다.²⁶²⁾ 이것을 통해 콜은 현대 교회의 폐단인 건물 중심이나 성직자 중심 혹은 최고를 지향하는 목표의식 등을 떠난 교회, 평신도들이 ‘구경꾼’으로 전락이 된 그러한 교회들을 지적한다. 성도들이 자기 권리는 포기한 채, 수입의 일정 부분을 교회에 바침으로 자신의 모든 책임을 다한 것처럼 여기면서, 교회가 그저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구경꾼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다. 유기적 교회의 목표란, 교회의 문턱은 낮추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누구든 교회를 세워 이끌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목표를 제시한다.²⁶³⁾ 즉, 교회란 지도자와 평신도라는 구분 없이 서로의 책임에 관하여 온전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인 것이다.²⁶⁴⁾

신약성서 교회의 유기적 공동체의 모습은, 그 리더십이 교회 전체에서 오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순회 사도적 일꾼들에 의해 개척된, 가정에서 모이는 이 교회는 형제자매들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된 방향과 의사결정을 따랐다. 그리고 성숙한 형제들(장로들을 포함한)은 각자의 은사를 따라 교회 안에 돌봄의 사역을 계속 제공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초대 교회는 기능적 사고방식을 따라 필요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었고,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이 합의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의사결정 수단으로 하나가 되었고, 상호 복종의 환경 아래에서 동등하게 서로를 진심으로 돌보는 목양하는 공동체로 발전될 수 있었다. 이것은 초대 교회 공동체가 기능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매우 유기적인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 준다.

6. 작고 단순하며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다

랄프 네이버는 셀 모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임의 구성원이

262) Niel Cole, *교회 3.0*, 104-105.

263) Niel Cole, *교회 3.0*, 121-122.

264)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181.

12-15명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12~15명을 성경이 지지하는 규모라고 본다.²⁶⁵⁾ 프랭크 바이올라는 모임의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모임의 장소가 개인의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단서를 붙인다. 그러면서 개인의 집에서 모이기에 교인수가 너무 많아질 경우에는 ‘집에서 집으로’를 원칙으로 지킬 것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초대 교회가 그 수가 증가함으로 인해 더 큰 장소를 찾아 옮기거나 다 함께 모일 건물을 지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정집들로 흩어져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²⁶⁶⁾ 따라서 그가 주장하는 모임의 숫자는 가정집이라는 한계 안에서 모여야 하는 작은 공동체여야 한다. 닐 콜 역시 효과적인 친교와 사역을 위한 인원을 2~3명으로 본다. 그는 팀원은 많은 것보다 제대로 된 일꾼 두세 명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²⁶⁷⁾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모임이 작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로버트 बैं크스는 초대 교회의 모임 장소가 ‘윗 다락’과 같은 곳이었으므로 모이는 사람의 수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꽤 부유한 가정의 기실이 30여 명의 인원을 편하게 수용할 수 있었고, “온 교회”가 함께 모임 경우는 40~45명에 이르고, 사람이 더 많아 안뜰까지 이용할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수(두배가 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가 모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²⁶⁸⁾ 물론 बैं크스의 이러한 견해가 네이버나 바이올라, 콜의 의견보다는 더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오늘날 주류를 이루는 교회들에 비하면 여전히 작은 수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초대 교회가 가정집의 모임을 고수했던 이유는, 가정집이야말로 가족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곳이자 동시에 친밀한 곳으로, 관계성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발한 열린 대화와 영적 응집력 및 거리낌 없는 교류를 가능케 하는 토양이기 때문이다.²⁶⁹⁾ 이런 토양은 결코 큰 규모에서는 경험할 수 없다. 너무 많은 사람이 함께 모임 때는 관계성과 유대감, 활발한 대화와 영적 응집력, 거리낌 없는 교류는 분명 방해받을 것이 분명하다. 콜은 이러한 토양의 반영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모임의 수를 2~3명으로 제한할 것을 제시한다. 모임의 숫자가 2~3명으로 제한되어야 그에 따르는 유익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첫째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지고,

265) Ralph W. Neighbour, Jr., *그리스도의 몸*, 122-125, 138.

266)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100.

267) Niel Cole, *오가닉 처치*, 300-301.

268) Robert Banks, *바울의 공동체 사상*, 76.

269)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106.

둘째는, 비밀 보장이 쉬우며, 셋째는, 명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넷째는, 자기표현에 제한이 가장 적고, 다섯째는, 모임을 위한 시간 배정이 쉬우며,²⁷⁰⁾ 여섯째는, 무엇보다 재생산에서 탁월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⁷¹⁾ 그의 생각에 두세 사람이 이루는 모임이야말로 변화에 가장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이다.²⁷²⁾ 이것이 유기적 교회가 작은 단위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유기적 교회가 작은 규모를 지향한다면, 그 구조에서는 단순함을 선호할 것은 분명하다. 그 이유는 첫째, 일단 사람이 적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가 불가능할 것이고, 둘째, 유기적 교회는 당연히 성직자 중심과 건물 중심의 제도권 교회의 복잡한 구조를 지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클레이 서키에 의하면, 의사소통은 사람이 더 많아질 때 더 많고 복잡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²⁷³⁾ 유기적 교회가 작은 규모와 단순한 구조를 지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규모가 크면 방향 설정이 어렵고, 사역의 배분과 조율이 어려우며, 복잡한 구조가 발생함으로 사역의 효과성이 방해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초대 교회는 이처럼 작고 단순하며 친밀한 구조를 통해 유기적인 생명력을 이어갔다.²⁷⁴⁾ 유기적 교회의 목적은 초대 교회 이상의 완전한 실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구조가 바로 작고 단순하며 친밀함이 있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다. 짐 벨처(Jim Belcher)는 이러한 작고 단순하며 친밀한 구조의 교회를 ‘유연한 교회’²⁷⁵⁾라고 표현한다. 그가 말하는 유연한 교회는, “정기 모임이 없고,

270) Niel Cole, *교회 3.0*, 229-235.

271) Niel Cole, *LTG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97-99.

272) Niel Cole, *LTG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94.

273) 클레이 서키는 영화를 보러 가는 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 그에 따르면 두 사람이 영화를 보기 위해 서로의 취향을 고려하여 결과를 얻어내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단순하다. 하지만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면 적어도 여섯 번의 합의가 필요하다. 의견 조율을 위한 과정이 여섯 배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만일 열 명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가려면 무려 45번의 합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Clay Shirky, *클릭하고 솔리고 들끓다*, 37-38.

274) Frank Viola, *1세기 관계적 교회*, 22.

275) ‘유연한 교회’는 짐 벨처가 피터 워드(Peter Ward)의 책 ‘유연한 교회(Liquid Church)’에서 가져온 교회론이다. 워드는 이 책에서 유연한 교회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모이는 회중으로 보는 데서 벗어난 일련의 관계와 소통으로서의 교회 개념을 주장한다. 따라서 키퍼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두세 사람도 교회라는 것이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단지 출석하는 곳이 아닌, 관계를 통해 연결하고 집단을 형성하며, 격식 없는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사소통을 이루어지는 소그룹 네트워크

지속해서 소통하며, 정형화된 틀이 없거나 제한적이며, 안수적이 없는 게 특징이다. 이것은 관계 중심이며, 수많은 집단과 활동으로 서로 연결된다. 목적은 매일 함께 사는 것이며, 모임은 다양하며, 예배와 기도와 연구와 활동도 다양하다. 이들 그룹이 모임 때 안수 받은 목사도 없고, 누구에게나 참여할 기회가 열려²⁷⁶⁾있는 그런 교회이다. 즉, 교회가 작고 단순한 구조로 나아갈수록 그 목적하는 바는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 그러한 교회가 바로 유연한 교회이다. 여기에 관한 보충 설명은 로버트 뱅크스의 주장이 도움이 된다. 그는 초대 교회 공동체 모임에 정해진 하나의 질서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을 따르면, 초대 교회 성도들은 고정된 예전 형태를 세우는 데에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런 것이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의 자유를 제한할 것을 염려했다. 공동체가 어떠한 구조를 통해서든 모임을 하겠지만, 그 구조가 인위적이지 않은 은사들의 특별한 조합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더 컸을 것이라는 것이다.²⁷⁷⁾

닐 콜은 사역적인 면에서의 효과성을 이루기 위해 유기적 교회 모임들이 지켜야 하는 원칙에 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이면서도 심오함을 담은 시스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시스템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동기를 건드려 줄 만큼 깊어야 하며, 동시에 이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손쉽게 넘겨줄 수 있을 만큼 단순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교회의 힘을 강화시켜주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한다.²⁷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서의 내적인 동기 즉,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그 삶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조가 결코 커질 수 없다. 가장 효과적인 단위는 바로 작고 단순한 단위의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고 단순한 구조는 교회의 질적인 성장과 더불어 양적인 성장에도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기적 교회는 그 시스템을 복잡하고 거대한 구조로 가져갈 수 없다. 그

라는 것이다. Peter Ward, *Liquid Church: Growing Faith Where Life Happen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06). Jim Belcher, *깊이 있는 교회*, 233에서 재인용.

276) Jim Belcher, *깊이 있는 교회*, 235-236.

277) Robert Banks, *바울의 공동체 사상*, 188.

278) Niel Cole, *LTG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73-74.

것은 유기적 교회가 경험하고 표현하려고 하는 가치와 반대되는 결정이다. 즉, 친밀한 주님과 교제와 성도 간의 서로 사랑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만 될 뿐이다. 결국, 유기적 교회의 모든 구조는 세분화하고 작게 단순하게 가져가야 한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초대 교회가 이러한 구조를 통해 확장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 역시 작고 단순하며 친밀한 구조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7. 유기체의 자연스러운 증식을 이루다

앞서 설명한 바대로, 유기체는 작고 단순한 구조를 지닌다. 이것은 유기적인 공동체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작고 단순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볼프강 짐손은 예수님 그 자신이 바로 복음이자 메시지였고, 교회는 그분의 몸 된 존재였기에 당연히 복음을 드러내는 단순한 공동체였음을 강조한다.²⁷⁹⁾ 그는 “구조적인 교회가 나쁜 소식이 되었을 때, 곧 폭발적인 메시지에 부합되지 않는 구조가 되었을 때 비로소 특별한 ‘복음’을 제시하는 기술에 대한 필요가 대두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²⁸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현대 교회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도 가지 못하며, 복음 전도에서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1999년 풀리 신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개척한 지 10년 정도 된 교회에서 1명을 전도하는 데는 약 85명의 성도가 필요하고, 개척한 지 4-7년 정도 된 교회에서는 1명을 전도하는 데 약 7명의 성도가 필요하며, 개척한 지 3년 이내의 젊은 교회는 1명을 전도하는 데 단 3명이 필요하다.²⁸¹⁾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간이 지나면서 작고 단순한 구조가 아닌, 더 크게 확장되어 제도적으로 굳어진 교회들이 복음 전도에는 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79) Wolfgang Simson, *가정교회*, 97.

280) Wolfgang Simson, *가정교회*, 96.

281) American Society for Church Growth, *Enlarging Our Borders: A Report Presented to the Executive Presbytery January 1999* (Corunna, IN: the Society, 1999).

프랭크 바이올라는 1세기 초대 교회 모임의 목적을 네 가지로 설명하면서, 그중 하나가 바로 복음전도를 위한 모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한다.²⁸²⁾ 즉, 유기적 교회의 모임은 복음전도의 목적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1세기의 교회가 그러했듯 오늘날 유기적 교회들이 복음 전도에 열려있어야 하는 것이다.²⁸³⁾

닐 콜은 유기적 교회의 목적은 바로 증식(교회 배가 운동)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당연히 증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콜의 지론이고, 이러한 생명체의 본성을 따라 증식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구조 역시 작고 단순한 모임이라는 것이다. 인원이 적을수록 배가는 효과적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의해 이루어진다. 그것은 복잡하고 정교한 계획이나 유능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모든 번식은 가장 작고 단순한 세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더 큰 덩어리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²⁸⁴⁾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강한 번식력을 소유할 수 있다. 건강한 교회 배가 운동은 결국 이러한 작고 단순한 구조 속에서 더 큰 역량을 발휘한다. 크고 복잡한 구조는 제 몸 굴리기에 바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작아야만 번식력이 강하고, 단순해야만 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⁸⁵⁾

이처럼 작고 단순한 유기체의 교회가 복음 전도에 관한 가장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작고 단순한 구조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교회가 되며, 그 DNA의 특성상 전도의 사명(A)을 완전히 구현할 수 있는 모형이 된다.²⁸⁶⁾

282) 바이올라가 생각하는 초대 교회 모임의 목적 네 가지는, 첫째, 사도적 모임, 둘째, 복음전도를 위한 모임, 셋째,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 넷째, 교회 모임이다.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62.

283) 그러나 바이올라는 방법적인 면에서 유기적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 그는 진정한 유기적 공동체를 시작하고 지속하기 위한 포괄적인 안내서로 '유기적 교회 새우기'라는 책을 쓰고 있지만, 이 책에서 불신자 진도에 관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그가 생각하는 유기적 교회가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전제로 두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가 시도하는 유기적 교회는 대부분 자신처럼 기성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교회가 해체됨으로 흩어진 성도가 참된 교회에 대한 요구를 따른 채 결집들로 구성된 것이다.

284) Niel Cole, *교회 3.0*, 150.

285) Niel Cole, *LTG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73-74.

286) Niel Cole, *교회 3.0*, 125.

이러한 작고 단순한 모임을 통해 교회 배가 운동(*Church Multiplication Movement*)²⁸⁷⁾은 폭발적인 복음의 확장과 배가를 통해 일어난다.²⁸⁸⁾ 데이비드 개리슨(*David Garrison*)은 그의 책 *하나님의 교회개척 배가운동(Church Planting Movement)*에서 교회 개척에 관한 기본적인 요소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헌신적인 기도, 둘째, 활발한 진도 활동, 셋째, 배가할 수 있는 교회 개척, 넷째, 하나님 말씀의 권위, 다섯째, 현지인 지도자, 여섯째, 평신도 지도자, 일곱째, 가정 교회, 여덟째, 교회가 교회를 개척함, 아홉째, 빠른 배가, 열째, 건강한 교회가 그것이다.²⁸⁹⁾ 이와 같은 10가지가 쫓아 말하는 작고 단순한 공동체의 배가 운동을 통해서 실현된다면, 궁극적으로 교회 개척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운동(Movement)'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쫓아는 이러한 배가의 법칙에 관해 “곱하기의 운동력”이라고 표현한다. 곱하기 운동력은 더하기보다는 천천히 더 느리게 진행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배가 운동 역시 다음 세대로 넘어갈수록 점점 더 빠른 속도속 배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²⁹⁰⁾ 만약에 교회가 이러한 배가의 폭발적인 열매를 교회가 거두게 된다면, 오늘날 제도권 교회들처럼 건물을 더 크게 짓거나, 조직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일 따위는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²⁹¹⁾ 지금껏 교회를

287) 배가는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가 주장하는 더하기가 아닌 곱셈의 변식을 의미한다. 이들은 더하기(Addition)가 아닌 곱셈 변식(Multiplication)의 관점을 주장하는데, 바로 신교적-성육신적 교회가 추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Michael Frost, and Alan Hirsh, *새로운 교회가 온다*, 128-130.

288) Niel Cole, *교회 3.0*, 132.

289) David Garrison, *하나님의 교회개척 배가운동 (Church Planting Movement)*, 이명준 역 (서울: 요단, 2005), Chapter 13 '교회개척 배가운동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열 가지 특징' 참고.

290) Niel Cole, *교회 3.0*, 136-137.

291) 닐 콜은 이처럼 큰 건물과 많은 사람에 혈안이 된 배가라는 유기적 교회의 특성을 따르지 않는 교회 성장을 다음과 같이 분류다. 첫째, 여러 세대에 전해지지 않는 교회 개척은 교회 배가 운동이 아니다. 모교회에서 자교회가, 자교회에서 손자 교회가, 손자 교회에서 증손자 교회가 개척되어 나와야 자연스러운 교회 배가이다. 세대마다 새로운 세대의 교회를 낳을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배가가 아니다. 둘째, 수평 이동하는 교인들을 모아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 역시 교회 배가 운동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이것을 '양 흠쳐 오기'로 부르는데, 가장 이리석은 교회 개척 유형이라고 말한다. 셋째, 대규모의 부흥 집회나 전도 대회는 결코 배가 운동이 될 수 없다. 이러한 행사들은 생명력 있는 교회를 탄생시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배가는 자신과 같은 존재의 복제를 의미한다. 교회는 배가를 통해 교회를 낳아야

운영하던 모든 방식을 신속하게 바꾸어 배가의 체계를 갖추어 가는 것만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²⁹²⁾

교회 배가 운동에는 두 가지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체 영속성(Self-perpetuating)과 자체 번식력(Self-propagating)이다.²⁹³⁾ 세포 분열을 통해 복제된 세포는 이 두 요소를 가지고 계속 복제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생명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유기적 교회는 이 두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콜은 이 두 요소를 바탕으로 한 교회 배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열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권력이 분산되어야 교회 배가가 일어난다. 둘째, 스스로 배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배가할 수 있다. 셋째, 최소한의 조직만 있어야 배가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넷째, 외부 지원에 의존하면 안 된다. 다섯째, 평신도들이 사명감으로 무장되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 조직이나 기관이 아닌 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 일곱째, 모든 차원에서 자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처음에는 작은 범위에서 출발하겠지만 이것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여덟째, 전략을 세우기 전에 신앙 강화를 통해 출발해야 한다. 사람이 변하면 모든 변화는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홉째, 개인의 회심에서 집단의 회심으로 옮겨가야 한다. 마지막 열째, 자신의 신앙 차원에서 사회와 문화 전체로 영향을 확대하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배가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²⁹⁴⁾

콜은 이 유기적 교회를 시작한 지 불과 5년 만에 5개 주와 5개 국가에서 69개의 유기적 교회가 개척되고, 그 교회들로 “딸 교회, 손녀 교회, 증손녀 교회, 고손녀 교회까지 다섯 세대의 교회가 탄생”했다고 말한다. 또한, 하나의 교회 네트워크가 90개로 늘어났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지금은 셀 수 없는 많은 네트워크와 교회가 개척

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교회를 통한 교회 개척은 결코 교회 배가 운동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지도력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 교회에서 안수받은 전문가와 헌신된 성도들을 파송하여 개척하는 모양새로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지도력이다.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복제된 세포가 모세포의 명령을 들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복제된 세포도 그 자체로 존재하며, 모세포처럼 단지 머리의 명령을 들을 뿐이다. 중앙의 명령 체계 아래에 놓여 있는 지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라 중앙 교회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지교회는 중앙 교회의 제정과 제도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결코 교회 배가 운동이 될 수 없다. Niel Cole, *교회 3.0*, 143-145.

292) Niel Cole, *교회 3.0*, 141.

293) Niel Cole, *교회 3.0*, 148.

294) Niel Cole, *교회 3.0*, 149-150.

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²⁹⁵⁾

콜이 이와 같은 교회 배가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데에는 전도의 대상에 대한 그의 독특한 관점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교회가 제자 훈련을 진행하면서 관심과 헌신도가 가장 높은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뿌리는 자의 비유(마 13:1~32; 눅 8:9~15, 막 4:10~20)를 설명하면서, 반대로 오히려 나쁜 땅(길가, 돌밭, 가시덤불)이 구원을 갈망하며, 정말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있는 사람들(Very Draining People, 불량아와 죄인들이)이 좋은 땅이라고 본다.²⁹⁶⁾ 즉, “나쁜 땅이 오히려 좋은 땅이 되며, 그들은 좋은 비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²⁹⁷⁾ 신약 성서에서도 좋은 땅이 될 만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그들은 바로 ‘나쁜 사람’(눅 5:32), ‘가난한 사람’(약 2:5), ‘어린 사람’(마 18:3), ‘하나님을 찾는 사람’(마 7:7), ‘교육 수준이 낮고 힘이 없는 사람’(고전 1:27), ‘보잘것없는 사람,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 무명인’(고전 1:28~29)들이다.²⁹⁸⁾

콜은 이러한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해 일곱 가지를 이야기한다. 첫째,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 둘째, 이들은 모범적인 교인들처럼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그 순간 한순간에 변화한다. 셋째, 이들은 자신들의 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받아들여면 기꺼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넷째, 이들의 변화가 그들 주변의 죄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된다. 다섯째, 이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다른 죄인들과 떼어 수 없는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러 왔다(눅 5:32). 일곱째, 이들의 변화는 그 자체로 이미 기적이다.²⁹⁹⁾

콜은 교회들이 배가 운동의 원칙을 따라 좋은 밭이 될 나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데, 이것은 그가 주장하는 유기적 교회가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를 따르고

295) Niel Cole, *오가닉 처치*, 68-69.

296) Niel Cole, *LTG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75-78.

297) Niel Cole, *오가닉 처치*, 125.

298) Niel Cole, *오가닉 처치*, 125-126.

299) Niel Cole, *LTG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78-79.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는 ‘성육신 중심의 교회’를 지향하며,³⁰⁰⁾ 이머징 교회의 가치를 따른다.³⁰¹⁾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에 따르면, 이 선교적 교회가 추구하는 성육신 중심의 선교 방식은 곧 ‘그들에게 가라(Go-To-Them)’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사회 속으로 침투하는 그런 교회”를 의미한다.³⁰²⁾ 다시 말해, 복음의 상황화(contextualization)에 관한 이야기인데, 상황화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간성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도록 기회를 주며,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³⁰³⁾

콜이 시작한 교회들은 평균 16명의 작고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작은 단위로의 LTG(Life Transformation Group)가 유기적 교회의 중심에 있다.³⁰⁴⁾ 그가 창안한 유기적 교회의 최소 단위인 이 LTG는 “두세 사람이 매주 함께 만나, 진정한 영적인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다. 성별로 나누어지지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이 모임은 서로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많은 분량의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매주 주님과 동행할 힘을 얻는다. 또 주님을 떠난 친구, 가족, 동료, 이

300) Niel Cole, *오가닉 처치*, 62.

301) 짐 벨처는 닐 콜의 지역적 특징을 이머징 교회로 분류한다. 에드 스테처(Ed Stetzer)에 따르면 이머징 교회는 크레 세 가지로 범주로 나누는데, 이는 ‘연결주의자(Relevants)’, ‘재건주의자(Reconstructionists)’, ‘수정주의자(Revisionists)’이다. 짐 벨처는 에드 스테처의 세 범주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각각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연결주의자(Relevants)는 역사적 형태의 제도적 교회와 같은 복음을 취하면서, 이머징 문화에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이들은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이며, 신학을 수정하기보다는 예배 형식과 설교 기법, 교회 체계를 쇄신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여기에는 코스타메이사의 락 하비 교회, 시에틀의 마스힐 교회, 산타 크루즈의 빈티지 페이스 교회 등이 속한다. 재건주의자(Reconstructionists)는 같은 복음을 취하지만, 교회 형태의 많은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재건한다. 이들은 전통 교회 모델뿐 아니라 구도자 교회 모델도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제세례파나 메노나이트들이 주장하는 교회 모델들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가정 교회와 새로운 형태의 유기적 교회를 시험하는데, 3세기 이전의 초대 교회를 모델로 삼는다. 여기에 속한 사람이 닐 콜,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 조지 바나와 프랭크 바이올라 같은 사람들이다. 수정주의자(Revisionists)는 복음과 교회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정한다. 이들은 신학과 문화에 관한 복음주의의 핵심 교리에 강한 의문을 제시하며, 대리 속죄의 성격, 지옥의 유무, 남녀의 상호보완성, 복음 자체의 성격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여기에는 이머전트 빌리지 출신 지도자 브라이어인 맥클라렌, 토니 존스, 더그 패짓 등이 있다. Ed Stetzer, “Understanding the Emerging Church,” 참고. Jim Belcher, *깊이 있는 교회*, 64-66 재인용.

302) Michael Frost, and Alan Hirsh, *새로운 교회가 온다*, 87.

303) Michael Frost, and Alan Hirsh, *새로운 교회가 온다*, 156-167 참고.

304) Niel Cole, *오가닉 처치*, 174.

웃들을 위해 기도하는”³⁰⁵⁾ 그룹이다. 콜은 경험상 이 LTG가 능력 있게 배가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가 몸담은 이 유기적 교회는 매주 잃어버린 사람들의 개심과 변화가 나타나며, 새로운 교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기적과도 같은 기도 응답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른 교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고 한다.³⁰⁶⁾ 이 교회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터나 공원, 주차장, 라커룸과 대학 캠퍼스와 학생회 사무실, 가정이나 기업의 건물이나 선술집, 심지어는 스트립 바에서도 개척되었다.³⁰⁷⁾

결론적으로, 닐 콜이 유기적 교회의 자연스러운 증식을 이루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음을 알게 된다. 첫째, 끌어 모으지 않고 나가서 전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둘째,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신의 집이나 직장이나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 교회를 개척했다. 셋째, 이 교회는 작은 단위로서의 LTG 모임(성별을 나누어 모임이며, 함께 죄를 고백하고,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고, 전략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임)으로 시작되며, 자연스러운 배가를 통해 16명 내외의 작은 크기로 확대되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으로 확장되었다. 넷째, 외부의 도움을 구하거나 목회자 중심의 구조가 아니며, 평신도가 교회의 모든 운영(심지어 세례와 성찬까지도)을 맡고 있다. 다섯째, 확실한 개인의 회심이 공동체의 밑바탕을 이루며, 관계 중심의 공동체성이 또 다른 개인을 회심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섯째,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며, 이 교회들은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그만큼 교회의 증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이다.

여기서 고려해 보아야 할 점 하나는, 바로 유기적 교회가 이처럼 자연스러운 증식을 지향한다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점이다. 조지 바나는 자신의 저서 *물 밖의 물고기*에서 “살아 있는 모든 유기체는 생명 주기를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³⁰⁸⁾ 그의 주장을 따르면,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태아기, 유아기, 사춘기, 청년기, 성인기를 거치는 것처럼, 조직과 리더들도 마찬가지로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 그가 보는 여섯 단계는 “태아기, 유아기, 확장, 균형, 정체, 무력”이다.³⁰⁹⁾ 마이클 프

305) Niel Cole, *오가닉 처치*, 66.

306) Niel Cole, *오가닉 처치*, 102-105 참고.

307) Niel Cole, *오가닉 처치*, 60-61.

308) George Barna, *물 밖의 물고기 (A Fish out of Water)*, 김주성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265.

로스트와 앨런 허쉬는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이것이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 주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생명 주기는 꿈, 신념, 목표, 구조, 사명, 향수, 문제 제기, 대립, 종결의 수순을 따른다.³¹⁰⁾ 분명한 점은, 이러한 생명 주기는 결국 한 공동체의 소멸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유기적 교회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교회가 완벽한 유기체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탄생-성장-소멸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증식을 이루는 유기적인 교회는 이와 같은 소멸을 담당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수용해야만 한다. 유기적 교회는 때로는 성장하여 기하급수적인 폭발적 배가를 이루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연스러운 소멸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작은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이 죽음은 배가를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³¹¹⁾

8. 하나의 교회, 네트워크로 발전하다

이성희는 1990년대 후반에 미래 목회에 가능하게 될 네트워크 목회에 관해 네 가지 정도를 소개한다. 첫째, 목회자와 목회자의 네트워크, 둘째, 목회자나 노회 혹은 총회 등 상회기관과의 네트워크, 셋째, 목회자와 정보 제공 기관과의 네트워크, 넷째, 기관과 기관 간의 네트워크이다.³¹²⁾ 네트워크라는 말 자체가 아직 목회에서 흔히 사용되지 않았던 이때에 네트워크 목회를 정립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매우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은 자신의 저서 *네트워크 사회(The Network Society)*에서 오늘날처럼 복잡한 사회를 네트워크 이론으로 정립한다. 그는 과거 정보와 지식이 지배했던 사회에서 이제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정보화주의, informationalism)이 근거가 된 또 다른 새로운 사회구조가 등장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바로 전자커뮤니케이션 기술로 발전된 '네트워크 사회'이다.³¹³⁾ 이것은 과거 정보와 기술을 가진 자가 모든 사회

309) George Barna, *물 밖의 물고기*, 265-266.

310) Michael Frost, and Alan Hirsh, *새로운 교회가 온다*, 317-318.

311) Niel Cole, and Phill Helfer, *교회 트랜스퓨전*, 269-271.

312) 이성희, *미래목회 대 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2000), 339-340.

313) Manuel Castells, *네트워크 사회(The Network Society)*, 박행웅 역 (과주, 경기: 한울,

구조를 지배한 것과 달리, 오늘날에는 ‘네트워킹 능력’이 모든 사회의 기관과 조직, 그 행위자를 지배한다고 보는 개념이다. 따라서 오늘날은 정보와 기술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잘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네트워크를 이루는 능력을 갖춘 자가 모든 정보와 기술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는 초복잡한 연결(Hyper-Connected and Complicated)이 대표적인 특징이다.³¹⁴⁾ 클레이 시키는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의 복잡성에 관해 긍정적인 요소를 먼저 생각한다. 그는 네트워크 사회의 이 복잡성이야말로, 이제껏 그룹 행동을 가로막던 장애물 대부분을 사라지게 했으며, 이제는 함께 모여 원하는 바를 해 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자유롭게 모색할 수 있는 시대를 오게 했다고 본다.³¹⁵⁾ 마이클 슬로터와 워렌 비드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의 시대를 하이테크인 동시에 하이티치의 시대로 부른다.³¹⁶⁾ 이들은 인터넷이 활발해진 것처럼 고도로 상호 작용적이고 매우 개인적인 신앙 공동체가 떠오를 것으로 예측하는데,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복잡성을 포기하지 못하면서도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다.³¹⁷⁾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시대의 복잡성을 거부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 할 수 있다.

유기적 교회가 주장하는 작고 단순한 교회의 구조는 다음의 그림과 같은 프랙탈 디자인(Fractal Design)을 따라 배가되는 특성을 가진다.³¹⁸⁾

2009), 73-74.

314) 1967년 하버드대학의 교수 스탠리 밀그램(Stanley Milgram)은 네브래스카 주의 오마하에 사는 사람 160명을 임의로 선정해서 그들에게 보스턴에 사는 증권 브로커에게 편지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 결과 성공한 편지가 42통이었으며, 평균 5.5명의 단계를 거쳐서 정보를 얻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실험을 ‘6단계의 분리(Six Degree of Separation)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연결된 사람의 수가 5명 정도만 지나면 지구 위의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1993년에 이 이론이 영화에 등장하게 되면서 ‘케빈 베이컨 게임’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김준호, 홍진환, *코앰블루션* (서울: 한스킨텐츠, 2011), 41,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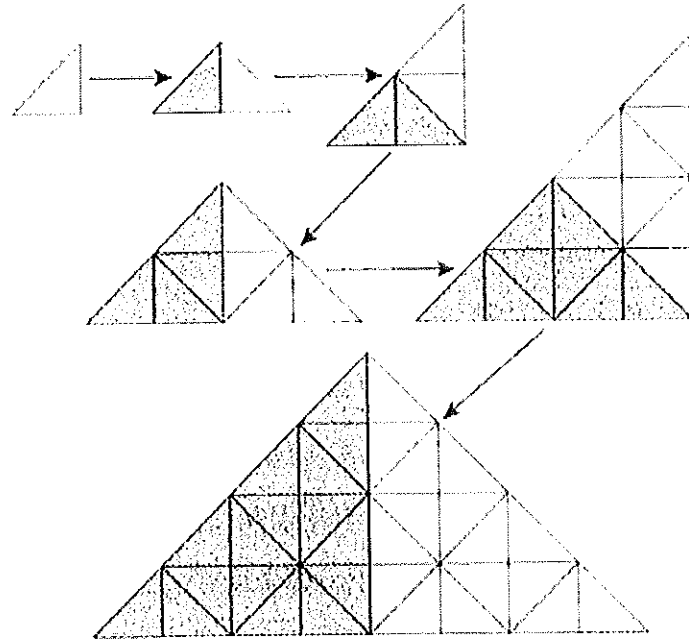
315) Clay Shirky, *클릭고 쏘리고 들끓다*, 30.

316) Michael Slaughter, and Warren Bird, *미래를 담는 교회*, 67.

317) Michael Slaughter, and Warren Bird, *미래를 담는 교회*, 106.

318) 프랙탈 디자인(Fractal Design)은 쉽게 말해, 단순 반복 패턴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직각 삼각형이 반복되어 복사되면, 그 형태는 변하지 않지만, 증식은 무한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커지던 기본 형태는 변함이 없는 원래의 직각 삼각형의 구조를 유지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프랙탈 디자인은 교회의 증식이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무한대로 증

<그림 1> 프랙탈 디자인(Fractal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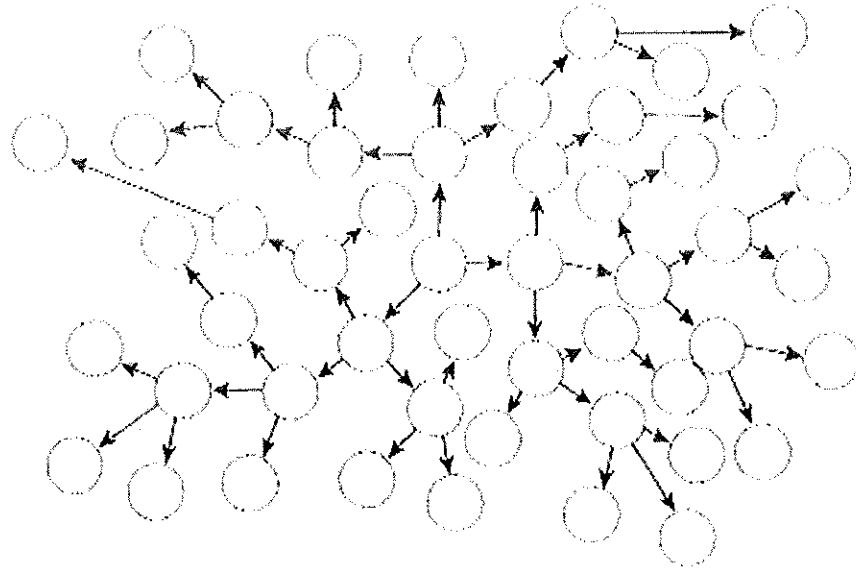
이것은 단순한 떼어주기 혹은 가르기가 아니다. 하나의 유기체가 무한대의 복제를 일으키는 구조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가가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면, 그 구조를 지탱하고 감당하는 또 다른 구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이다. 즉, 단순한 구조의 반복된 패턴의 증식이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면, 그것을 총체적으로 묶어내는 네트워킹 능력이 필요한데,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의 상명하복의 구조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킹을 이루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작고 단순하며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유기적 교회를 네트워크 사회 이론을 따라 네트워킹 능력을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묶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 중앙집권화 되어 있지 않고, 전체에게 분포된, 작은 단위의 집합체로서의 네트워크 구조라는 것이다. 즉, 유기적 교회는 바로 이 시대에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그 삶이 살아 계신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지향한다.

사실 이러한 유기적 교회들은 특별히 고안된 어떤 정형화된 구조를 따르지 않는

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Niel Cole, *오가닉 처치*, 196.

다. 이것은 생명이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지만 구조가 생명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즉,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는 정형화된 틀이 없지만, 그 생명력을 따라 확장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림 2> 확장되는 네트워크 구조의 예



이 네트워크 구조의 특징은 첫째, 단 하나의 중심이 없다. 그리고 둘째, 위계가 없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는 전형적인 조직의 구조라기보다는 통제를 벗어나 흩어지며 무한대로 확장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다만, 배가의 방식은 프랙탈 디자인을 따른다. 즉, 본질은 변하지 않고 계속 복제되어 곱하기의 법칙으로 증식해가는 모형을 따르는 것이다.³¹⁹⁾

프랭크 바이올라와 조지 바나는, 초대 교회가 본질에서 가정집을 기초로 한 모임들의 네트워크였다고 주장한다.³²⁰⁾ 하지만 이들은 이 가정집의 네트워크를 구조가 아닌 영향력의 문제라고 본다. 삶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예수님의 접근 방식이었던 두 가지 즉, 상호교류와 실천에 관한 영향력의 네트워크가 초대 교회에 있었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상호교류와 실

319) Niel Cole, *오가닉 처치*, 194-198.

320)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100-101.

천)을 통해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미치셨다. 그리고 이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삶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즉,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 현실화되었다.³²¹⁾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큰 네트워크 안에서 각각의 교회(에클레시아)들에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삶에 이르는 영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셨다는 것이다.

오늘날 본질적인 교회의 과제는 ‘누가 제일 많은 회중을 불러 모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교회인가?’하는 점이다.³²²⁾ 에디 깁스는 네트워크를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³²³⁾ 동시에 자유로운 통제와 자원의 배분은 네트워크를 통해 확장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을 세상에 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닐 콜이 표현하는 대로, “열매를 맺고 번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³²⁴⁾를 이 땅에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위 선교적 교회가 지향하는 바와 동일하다. 여기에 관해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는 ‘끌어 모으기 식의 교회’를 ‘경계 구조’라 부르고, ‘선교적-성육신적 교회’를 ‘중심 구조’라고 부른다.³²⁵⁾ 경계 구조는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서 사람들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인데, 누가 안에 있고 밖에 있는지를 가려내는 구조로, 제도적 교회들 대부분이 이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다. 반면, 중심 구조는 소위 양을 울타리 없이 우물 중심으로 방목하는 것과 동일한데, 그 중심에 있는 핵심 가치로 사람들을 중심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보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어떤 사람도 바깥에 머물지 않는, 넓은 의미에서 잠재적인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보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유기적 교회는 중심 구조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이 복잡한 네트워크를 서로 긴밀하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던컨 와츠(Duncan Watts)는 이러한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도 모든 것을 벗겨내고 뼈대를 들여다보면, 그저 일정한 형태로 서로 연결된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한

321) Frank Viola, and George Barna, *이교에 물든 기독교*, 323.

322) Eddie Gibbs, *텍스트 처치*, 53.

323) Eddie Gibbs, *텍스트 처치*, 89.

324) Niel Cole, *오가닉 처치*, 152.

325) Michael Frost, and Alan Hirsh, *새로운 교회가 온다*, 96-97.

다.³²⁶⁾ 즉, 복잡한 구조도 단순한 접근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닐 콜은 이것을 '관계'라는 고리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 관계가 교회를 하나로 묶는 집착재와도 같다는 것이다.³²⁷⁾ 또, 이 관계는 세상을 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계획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³²⁸⁾ 그의 주장을 따르면, 번식은 친밀함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 친밀함으로 이루어지는 번식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교회 번식 역시 친밀함의 결과로 생겨난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임무에 대한 친밀함, 그분의 영적 가족에 대한, 그리고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친밀함의 회복이 곧 교회의 번식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³²⁹⁾ 따라서 그가 개척하는 유기적 교회는 16명 내외의 사람들로 구성된 작은 그룹들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서로 긴밀한 관계 고리들로 연결되기도 한다. 때로는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어떠한 모임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다. 이러한 크고 작은 규모의 모임들은 유기적 교회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견고하게 결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³³⁰⁾

닐 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이끄신 데에는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소개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³³¹⁾ 따라서 콜은 유기적 교회가 취해야 하는 네트워크 모형을 '전방위적 네트워크(the All-Channel Network)'로 지정한다. 그는 전방위적 네트워크란 일종의 동기나 공통되는 신념 혹은 생각, 열정 등으로 모든 그룹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라 부른다. 이것은 다소 복잡하고 형성하기 까다로운 구조이다. 그러나 일단 형성이 되면 외부의 공격들을 견고하게 견뎌낼 수 있는 구조가 된다.³³²⁾ 이 전방위적 네트워크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마치 축구공의 오각형 모양이 일정하게 서로 교차하여 배열된 견고한 구조를 이루는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버키 볼(bucky ball) 모형과도 같다.

326) Duncan J Watts, *Small World-여섯 다리만 건너면 누구와도 연결된다 (Six Degrees)*, 강수정 역 (서울: 세종연구원, 2004), 27-35 참고.

327) Niel Cole, *교회 3.0*, 164.

328) Niel Cole, *오가닉 처치*, 239-24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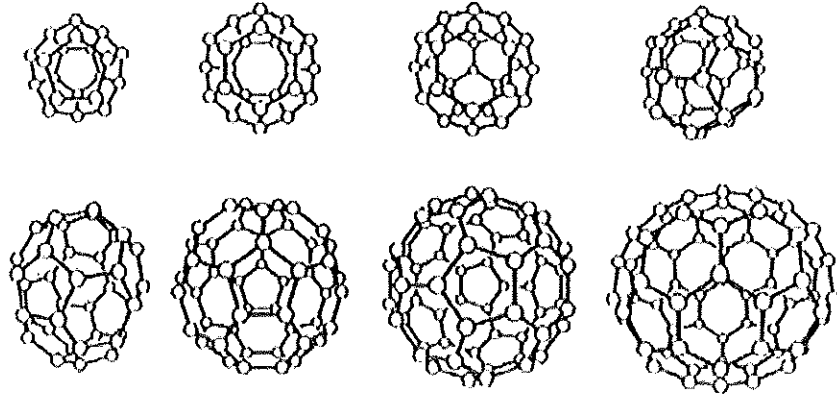
329) Niel Cole, *오가닉 처치*, 153.

330) Niel Cole, *교회 3.0*, Chapter 7. '대규모 집회도 여는가?' 참고.

331) Niel Cole, *오가닉 처치*, 238.

332) Niel Cole, *교회 3.0*, 164-165.

<그림 3> 크고 작은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버키 볼(bucky ball) 모형



교회가 프랙탈 디자인을 통해 배가되며 확장될 때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게 되는 데, 이것의 3차원적인 모형이 바로 버키 볼이라는 것이다. 즉, 유기적 교회가 그들의 모든 그룹을 서로 연결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자원과 생각을 온전히 공유하는 확장된 운동의 견고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모양이 바로 버키 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적 교회의 네트워크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신비로운 임재의 영적 연결에 의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교회이다. 이 말은 곧 전방위적 네트워크는 오직 공통의 유전자(DNA 즉, 하나님의 진리, 사랑의 관계 강화, 전도의 사명)를 배가하는 방법으로만 네트워크를 확장해 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³³³⁾

정리하면, 유기적 교회는 배가를 통해 증식될 때, 전통적인 교회의 상명하복의 구조, 성직자 중심, 건물 중심의 구조를 따르지 않는다. 오늘날 이 시대의 복잡 다양한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단순한 배가의 공식(프랙탈 디자인)을 따라 확장되는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는 견고한 버키 볼의 모양의 전방위적 네트워크를 이루어 가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333) Niel Cole, *교회 3.0*, 168.

제 4 장

유기적 교회 사례 분석

본 장의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들이 실제로 어떤 양상을 따라 제시하는 사례 교회들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는, 실제 미국 교회의 현장 가운데 유기적 교회를 만들었고 사역하고 있는 두 교회, 'The Mission House Church'와 'Vineyard House Church'를 그 사례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한인 이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기적 교회의 사례들 또한,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먼저 사례가 되는 앞의 두 교회의 조사를 위해서 The Mission House Church에서는 케이스 가일스(Keith Giles)를 인터뷰했고, Vineyard House Church에서는 빌 페리스(Bill Faris)를 인터뷰했다. 한국과 이민 사회에서 생성된 유기적 교회의 사례는 이남하를 인터뷰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유기적 교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자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두 사람, 프랭크 바이올라와 닐 콜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그 책을 번역한 사람들도 하다. 이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사전에 인터뷰 문항을 미리 이메일을 통해 전해주었고, 그에 대한 대답을 미리 받아 보충 질문을 준비하는 식으로 인터뷰로 진행하였으며, 만남이 힘든 경우 이메일을 통해 서면 인터뷰만 진행하였다. 또한, 인터뷰 시 개인적인 신앙 여정이나 교회가 지나왔던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은 자유롭게 대화하는 분위기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The Mission House Church는 개척 단계에서 유기적 교회로 자리 잡은 사례이며, Vineyard House Church는 기존의 제도권 교회에서 유기적 교회로 전환한 사례이다. 한국과 이민 사회에서 생성된 유기적 교회들은 개척과 전환 모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교회는 각각의 독특한 상황성을 가지고 있다. 인터뷰 전문은 167쪽의 부록을 참고하면 된다.

제 1 절 유기적 교회로의 개척 사례 : The Mission House Church

1. 교회 소개 및 인터뷰 진행 방식

The Mission House Church는 Orange County에 있다. 이 교회는 가정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유기적 교회의 개념과 가정 교회의 개념이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교단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며, 작지만 20여 명의 사람이 함께 모인다.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모임은 Orange County 지역에 있는 교회 식구들의 가정에서 모이는데, 대개 번갈아 가며 집을 오픈하지만, 대부분은 목사인 케이스 가일스의 집에서 모이고 있다. 개척 초반에는 목요일 밤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주일 아침에 함께 모인다. 주일 아침 모임의 순서는 우선 함께 모여 간단한 아침 식사와 교제를 한다. 이때 한 주간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을 나눈다. 식사가 다 끝나면 다 함께 거실로 옮겨서 찬양하고, 서로의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해 몇 사람이 간증한다. 이후 격려의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그날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을 나눈다. 이때 말씀은 미리 선정하지 않지만, 각자가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을 나누거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한 사람이 말씀을 선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한 후 매주 성찬식을 함께 진행하는데, 성찬식은 서로의 유대감과 신앙고백을 함께 나누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일스와의 인터뷰는 2014년 11월 24일 캘리포니아(California)의 산타 아나(Santa Ana)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진행되었으며, 그가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한정된 점심시간(오전 11시 ~ 오후 1시) 동안에만 인터뷰하였고, 통역으로는 황영실의 도움을 받았다.

2. 교회 개척 배경

케이스 가일스는 25년 전 텍사스(Texas)의 남 침례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 면허를 받은 목회자이다. 그는 캘리포니아로 이사한 후 빈야드(Vineyard) 계열의 교

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이후 그 교회를 통해 알게 된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교회 개척 사역을 돕게 되었다. 그리고 그와 아내는 개척하던 교회의 주일학교와 공휴일 사역 전담 사역자로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다른 교회 개척에 대한 소명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헌금을 구제에 사용하는 교회를 원하신다는 소명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이 그가 새로운 교회 개척에 대해 꿈을 꾸기 시작한 시점이다. 그 후 준비 과정을 거쳐 지금부터 8년 전 즈음에 Orange County에 있는 다른 가정들과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바로 지금의 The Mission House Church이다.

가일스는 개척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통적인 교회가 아닌 교회의 모든 헌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가정 교회를 개척하라는 분명한 비전을 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의를 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마침내 가정 교회의 형태를 띤 유기적 교회가 자신이 받은 소명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는 유기적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자신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건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했다고 한다. 개척에 대해 주변의 반대도 심했고, 이전에 섬겼던 교회나 친구들의 지원도 전혀 받지 못했다. 가장 힘든 일은 이전 교회에서 함께 교회 개척을 했던 친구와 목사가 가정 교회 개척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러한 비전에 응답한 한 가정과 한 명의 여 성도에 의해 자신의 집에서 유기적 교회로서의 가정 교회가 개척된다.

이 교회는 공식적인 웹사이트가 없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8년간 꾸준히 입소문만으로 사람들이 모였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

3.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들에 대한 비교 분석

케이스 가일스는 자신의 블로그나 책을 통해 유기적 교회를 주장한다.³³⁴⁾ 그가

334) Keith Giles의 지서로는 *The Power of Weakness* (Subversive Underground Publications, 2013), *This Is My Body: Ekklesia as God Intended*(Subversive Underground Press, 2011), *Subversive Interviews*(Subversive Underground Press, 2011), *The Gospel: For Here Or To Go?*(Subversive Underground Press, 2008) 등이 있다. 또한, 그는 블로그(<http://subversive1.blogspot.com>)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를 주장하는 이유는, “유기적 교회가 신약에서 읽을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³³⁵⁾ 그는 유기적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운영은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약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동등한 지체들로 그분의 리더십 아래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곳이라 말합니다.³³⁶⁾

이로 미루어 보건대, 가일스는 프랭크 바이올라와 닐 콜의 유기적 교회에 대한 이론에 관해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것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개척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유기적인 모형으로 만들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가. 핵심 원리 1. 성직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깨뜨리다

The Mission House Church는 성직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정면으로 부인한다. 목회자인 가일스 스스로 성직자 중심의 패러다임에 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그는 “성직자를 두지 말라”³³⁷⁾는 것을 강조했다. 바이올라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성직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성직자에 대한 언급 대신 성경이 강조하는 말은 ‘서로’라는 말이다. 이 ‘서로’가 58회에 걸쳐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교회에 관한 성경의 입장이 성직자 중심의 패러다임은 부인하면서, 서로 간의 평등하면서도 책임 있는 의무와 사랑에 관해 더 많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가일스는 성직자 한 사람에 의존되는 교회는 초대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유기적

335) “Keith Gile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Santa Ana, California. 2014년 11월), 질문 #4.

336) “Keith Gile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Santa Ana, California. 2014년 11월), 질문 #5.

337) “Keith Gile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Santa Ana, California. 2014년 11월), 질문 #13.

인 모든 원리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The Mission House Church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도 시행하고 있다. 즉, The Mission House Church는 성직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의 헌금을 목회자의 사례가 아닌 구제에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헌금이 교회 안에 목회에 전문성을 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성직자)에게 월급으로 주어지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 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목회자인 가일스로서는 자기 생존의 문제에 대해 교회가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포기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생계에 대해 스스로 대안을 찾기 위해 직업을 가지려고 1년간 노력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 기간 파트타임(part-time)으로 일하면서 버텼는데, 무척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다행한 것은 지금 그는 마케팅, 광고 분야에서 Copyrighter로 일하고 있고, 7년째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삶에 관해 “교회가 자신의 직장이 되는 과거의 사역자에 대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24시간 온전히 사역자로 살고 있다”³³⁸⁾고 고백한다. 자신이 만일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았다면, 이와 같은 시도를 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목회라는 구조 안에서 안주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있어서 The Mission House Church는 교회 사역의 결정권이 목회자인 가이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있다. 교회의 결정권을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잘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그것을 제외한 대부분 영역은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혼자 모든 결정권을 쥐고서 잘하지도 못하는 부분에 관해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그 분야에 대해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추진하도록 맡기고, 그것에 대한 결정권을 모두가 함께 공유함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³³⁹⁾

338) “Keith Gile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Santa Ana, California, 2014년 11월), 질문 #14.

339) “Keith Gile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Santa Ana, California, 2014년 11월), 질문 #19.

나. 핵심 원리 2. 건물 중심의 페러다임을 벗어나다

The Mission House Church는 교회 건물이 없다. 각자 자신들의 집에서 함께 모이는 가정 교회이다. 교회 건물이 없다는 것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나 지불해야 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이자,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The Mission House Church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이미 과거 가일스가 경험했던 교회 개척의 한계에 대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교회가 개척의 단계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을 겪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물을 임대하는 일이다. 가일스 역시 과거 교회 개척을 돕는 과정에서 건물 임대에 대한 어려움을 만났었고, 이 문제가 교회가 건물을 구입하기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이 목회하게 되는 교회를 꿈꿀 때, 그는 건물이 없는 교회를 생각했고, 그래서 가정 교회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³⁴⁰⁾

The Mission House Church는 모든 면에서 건물 중심의 페러다임을 벗어나는 결정들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교회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것이고, 모든 현금을 구제하는 사역에 쓰도록 한 점이었으며, 세례가 일반 가정집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³⁴¹⁾ 교회 이름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비영리단체 등록과 관련이 있다. 미국의 실정법으로 비영리단체로의 등록은 곧 교회가 내야 하는 실질적인 세금(건물, 토지, 인건비 등)에 관해 혜택을 보게 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The Mission House Church는 세금 혜택과 같은 이익을 누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 교회 건물이 없고, 목회자 사례가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거나 면제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교회 이름의 계좌가 없다는 것은 교회의 현금에 관해 일절 정산하거나 감시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현금은 다 구제 사역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많은 교회가 재정문제로 인해 깨어지고 갈라지고 있는 실정에서, 교회의 현금을 전액 구제 사역에 쏟아 부어서 조금의

340) "Keith Gile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Santa Ana, California, 2014년 11월), 질문 #3.

341) Keith Giles의 블로그 <http://subversivcone.blogspot.com>에는 가정의 수영장에서 시행하는 세례식에 관련된 사진들이 있다.

오용이나 오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계좌가 없다는 것은 그날의 헌금을 나중을 위해 남겨두는 일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온전히 남을 위해 구제하는 일에만 모든 헌금을 사용하고 있다.

건물 중심의 페리다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신도와 성직자 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만든다는 점이다.³⁴²⁾ 즉, 커버링이 존재한다. 목사와 장로, 집사와 평신도에 이르는 수직적 구조가 생겨난다. 하지만 The Mission House Church에는 이런 구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가족이고, 하나의 수평적인 관계만이 존재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 아래에 동일한 한 몸의 지체들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세례식과 관련된 문제도 집례자가 목회자 자신에게만 허락된 일로 보지 않는다. 그는 자신과 더불어 장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례를 가족 공동체의 축제로 여기도록 만들고 있다. 자신의 블로그를 보면 가정집 수영장이나 심지어 강가에서도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축하하며 축복하는 모습이 등장한다.³⁴³⁾ The Mission House Church가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는 건물 중심의 페리다임에서 벗어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다.

다. 핵심 원리 3. 교회의 모든 통제권을 그리스도께 드리다

The Mission House Church는 통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통제권과 관련된 세 가지 은사 활용과 성찬 및 전신자 제사장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매주 모일 때마다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지만, 각자 자신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전도의 목적으로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는 일에도 적극 임한다. 매주 성찬이 진행되고 있으며, 모두가 제사장이자 성도로서 평등한 입장에서 교회를 돕고 예배를 드리는 유기적 형태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 교회의 전반을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식사의 교제와 예배와 기도를 인도자 없이, 때로는 누구나 인도자가 되는 방식을 선택한다. 오직 자신들은 예

342)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54.

343) Keith Giles의 블로그 <http://subversiveone.blogspot.com>에 있는 세례식과 관련된 사진들 참조.

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이 주도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³⁴⁴⁾

가일스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을 시도한 여러 사례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유기적 교회를 이루는 데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여전히 목회자 중심주의, 즉 통제권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닐 콜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³⁴⁵⁾ 이것은 한낱 이론일 뿐이라는 것이다. 만일 전통적인 교회가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을 추구할 때 목회자 한 사람의 아이디어만으로 그러한 전환하려 시도한다면, 그 시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변화의 통제권이 그것을 제시한 목회자 한 사람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통제권이 그리스도께 있는 유기적 교회의 특성을 결코 반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가일스의 말을 따르면 닐 콜은 이러한 점을 의식해서 전통적인 교회가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을 시도할 때는 반드시 전통적인 제도권 교회의 장례식을 시행한다고 한다. 실제로 장례식을 하면서 전통적인 교회의 개념들을 땅에 묻는 행위들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주에는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Baby Shower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의 방식들에 대한 성도들이나 목회자의 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그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예전의 방식과 싸워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³⁴⁶⁾ 통제권에 관한 진지한 그의 대답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 개척'만이 대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는 닐 콜에게서 통제권으로서의 리더십이 아니라 각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서로 돕는 차원에서의 리더십에 관해서는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목회자가 성경에 대한 대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 질문을 던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⁴⁷⁾ 목회자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알려주며, 성도들 스스로 성경을 보고 씩씩하며 하나님

344) "Keith Gile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Santa Ana, California. 2014년 11월), 질문 #18.

345) Niel Cole, *교회 3.0*, 40-42 참고.

346) "Keith Gile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Santa Ana, California. 2014년 11월), 질문 #8.

347) Niel Cole, *LTG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97-99.

께 더 가까이 있으려고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이다.³⁴⁸⁾ 이것은 목회자가 교회의 모든 주도권을 쥌 존재가 아니라, 주도권은 하나님께 드리고 단지 협력자로서의 위치에 서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자, 동시에 순회 사도적 일꾼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라. 핵심 원리 4.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다

가일스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예로 들면서, 유기적 교회에서 나타나야 할 분명한 특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언급했다. 즉, 고린도전서 12장에서와 같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를 이루는 공동체인데,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시거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누어줄 것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그는 교회(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항상 서로 나눔이라는 것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다. 가일스는 The Mission House Church를 하면서 이것을 지난 시간 동안 배웠다고 고백했다.³⁴⁹⁾

가족은 함께 먹는 사람들, 즉 식구(食口)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가족의 의미는 서로 나눔이 전제된다. 유기적 교회는 이러한 나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서로 나눌 것이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 즉 유기적 교회인 것이다.

The Mission House Church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본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목요일 저녁 시간까지 함께 보내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늘 만날 때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교회 제정의 전부를 구제에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성을 세상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³⁵⁰⁾ 먼저 이들 안에 그러한 나눔과 사랑이 없다면, 제정의 전

348) "Keith Gile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Santa Ana, California. 2014년 11월), 질문 #15.

349) "Keith Gile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Santa Ana, California. 2014년 11월), 질문 #21.

350) "Keith Gile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Santa Ana, California. 2014년 11월), 질문 #16.

부를 구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한 마음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모여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내면의 성장을 의미한다. 처음 가일스가 유기적 교회로서의 가정 교회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모았을 때는 아무도 그러한 교회가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함께 모인 사람들도 자신들이 하는 이 교회가 과연 성경이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 유기적 모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함께 나누며, 함께 자라가며, 함께 모임에서 이들 안에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다. 자신들이 하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이고, 유기적 교회가 곧 생명력 넘치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삶을 나누며, 함께 말씀 안에서 자라남으로 인해 확고한 유기적 교회의 신념을 배우게 되었고, 그 정체성으로 함께 책임을 공유하며 지금껏 교회를 이끌어 왔다. 하나님의 삼위 연합과 같이, 성도 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로 지금껏 교회를 세워왔다.³⁵¹⁾

마. 핵심 원리 5. 기능적 사고방식으로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하다

The Mission House Church는 모든 성도가 각자의 은사를 따라 각자의 역할로 섬기는 유기적 유형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떤 이는 찬양으로, 어떤 이는 주방 봉사로, 어떤 이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기도로 등등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들로 교회 안의 여러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 가일스는 자신을 처음 소개할 때 교회의 일원일 뿐이라고 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은 어느 교회와 같은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표성이나 목회자로서의 권위 같은 것은 교회 개척과 함께 내려놓았다고 고백했다. 자신은 The Mission House Church에서 함께 모이는 일원일 뿐, 그들과 동일하게 일주일에 5일을 직장에서 일하고, 주일에 교회로 함께 모이는 평범한 한 사람이라는 것이다.³⁵²⁾ 그는 설교를 주도하지도 않으며,

351) “Keith Gile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Santa Ana, California. 2014년 11월), 질문 #21.

352) “Keith Gile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Santa Ana, California. 2014년 11월), 질문 #14.

새례를 혼자서 독점하여 집례하지도 않는다. 자기 자신도 소위 말하는 목회 전문가의 위치에 있지도 않고, 또 그런 사람도 없으며, 모두가 평등한 관계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한 몸의 지체들일 뿐이다. 이들은 말 그대로 가정집의 토양 위에서 유기적 활동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에클레시아이다.³⁵³⁾

가일스는 목회자로서 자신이 없어도 모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목회와 설교의 자리를 내려놓고 구제 사역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의 가족은 한 달에 한 번 호텔에서 열리는 구제 사역을 위해 The Mission House Church를 떠난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The Mission House Church는 일상과 다르지 않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모임을 지속한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각자에게 맡겨진 자발적인 역할이 이미 있고, 그 역할에서 누군가가 빠져도 채워줄 수 있는 역량이 모두에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가 구제 사역으로 자리를 비우지 않을 때는 가끔 찬양이 시작됨과 동시에 혼자 모임 장소를 떠나기도 하는데,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교회가 목회자인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는 유기적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목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 교회와 예배를 섬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날에 전할 말씀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유기적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실제로 이 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³⁵⁴⁾

The Mission House Church는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라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거나 하지 않는다. 직분에 따라 익지로 일하거나, 자연스럽게 상하의 계급 구조가 생기는 그런 교회를 지양하고, 목회자나 직분자가 없어도 각자 잘할 수 있는 일들로 교회를 섬기는 건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일스 자신은 바울 사도와 같은 순회 사도적 일꾼이기도 하다. 교회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에게 의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도 한 구성원으로 교회의 작은 부분을 최선을 다해 책임지기도 하는 그 모습에서 순회 사도적 일꾼의 한 면이 나타나고 있다.

353)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103.

354) "Keith Gile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Santa Ana, California, 2014년 11월), 질문 #8.

바. 핵심 원리 6. 작고 단순하며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다

The Mission House Church는 프랭크 바이올라가 주장하는 “친밀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관계성과 유대감 그리고 활발히 이루어지는 열린 대화와 영적 응집력 및 거리낌 없는 교류를 가능케 하는 토양”³⁵⁵⁾으로서의 작고 단순한 교회인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The Mission House Church는 많어도 18~20명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며, 함께 모임일 때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나눔’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교회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며 봉사를 한다. 기복적인 신앙의 형태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 제도권 교회의 모습이다. 하지만 유기적 교회로서 The Mission House Church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만난다. 따라서 이들은 매주 아침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 이유는, 가일스의 말처럼 함께 모인 사람들이 아무도 음식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의 말씀처럼 누구든 영적으로 풍성히 나눌 것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이 The Mission House Church의 대원칙이다. 즉,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³⁵⁶⁾ The Mission House Church는 주일 아침에 나누는 식사 자리에서 서로의 관심사와 고민에 애정을 쏟고, 삶에 대한 나눔을 이어간다. 이 자리를 통해 서로의 고민과 관심사를 알게 되고, 이를 위해 한 주 동안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또한, The Mission House Church는 예배를 통해서도 이 작고 친밀한 공동체로서의 유익들을 함께 나눈다. 즉, 일방적인 설교 위주의 전통적인 교회들의 예배와는 달리, The Mission House Church의 예배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인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도와 축복과 애인은 나눔의 대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즉, 내가 축복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축복하게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모임과 예배를 통해 실현하고 있다.³⁵⁷⁾ 따라서 The Mission House Church는 초대 교

355)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106.

356) “Keith Giles와의 인터뷰”, 대답 이준형, 황영실(Santa Ana, California, 2014년 11월), 질문 #21.

357) Ibid., #21.

회의 이상이 실현되는 구성원 간의 관계성과 유대감의 친밀하고도 영적인 만남을 모임과 예배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³⁵⁸⁾ 이것은 그만큼 이들의 모임이 더 깊은 친밀함과 영적인 만남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제도권 교회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구조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친밀함을 이루는 근간에는 The Mission House Church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율성’이라는 큰 그림이 있다. 이 자율성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인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자 모든 모임과 예배의 기본 뼈대이기도 하다. 이들의 예배에는 인도자가 없다. 또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어야 하거나, 미리 확정된 본문도 없다. 그 대신, 누구나 찬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으며, 고백하고 싶은 말은 누구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성령 앞에서의 민감함이 있고, 자유롭게 순서 없이 간증과 기도할 수 있는 포용성이 있다. 남녀노소의 차별이나 인종 간의 차별 같은 것도 없다. 그런데도 그들의 예배는 2시간을 훌쩍 넘는다.³⁵⁹⁾ The Mission House Church가 이러한 모임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곧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 핵심 원리 7. 유기체의 자연스러운 증식을 이루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The Mission House Church에는 닐 콜이 주장하는 바처럼 ‘폭발적인 자연적 증식’³⁶⁰⁾은 없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첫째, 이들은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 개척, 확장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유기적 교회에 관해서는 철저히 프랭크 바이올라의 입장을 따른다. 교회의 증식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그 자체의 정체성(교회 됨)이다. 즉, 교회의 관행보다 유기적인 본질 그 자체의 자연적인 발생으로 자생하는 유기적 교회를 더 추구하고 있다.³⁶¹⁾

그렇다고 해서 전도에 전혀 무관심한 것도 아니다. 한 생명의 소중함이나 영혼 구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지 않다. 다만, 적극적인 전도 활동의 결과로서의 증식

358)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106.

359) “Keith Gile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Santa Ana, California. 2014년 11월), 질문 #19.

360) Niel Cole, *LTG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97-99.

361) Frank Viola, *다시 그려보는 교회*, 56-57.

에 관심이 없고, 닐 콜의 주장과 같은 배가의 경험이 없을 뿐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사람을 모으는 방식의 전도가 아닌, 음식으로 구제하는 사역을 한 달에 한 번 호텔에서 시행하고 있다. 두 달에 한 번은 이 사역을 그 지역의 전통적인 교회와 연합하여 시행하면서 호텔의 주차장에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교회가 이와 같은 구제 사역을 하는 이유는, 구제가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실현해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많은 교회가 구제를 전도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지만, The Mission House Church는 구제 그 자체를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식한다. 그 사명을 위해 The Mission House Church는 탄생했으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함께 모이고 있다.

그 대신 The Mission House Church는 유기체로서 성도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큰 관심을 가지며 돕는다. 그리고 그 일로 교회의 증식이라는 부분을 어렵게나마 채우고 있다. 그에 대한 사례로, 교회의 구성원들이 한 일들이 있다. 한 자매는 자신의 하우스 단지에서 이웃들에게 독립 기념일 팬케이크를 돌리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그녀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주변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어떤 멤버는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이웃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이를 거점으로 복음 전할 사람을 찾고자 한 것이다. 이 교회에 있는 한 한국인 자매는 자신의 집에서 '커피와 차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모임을 기획하고 주변 이웃들을 초청했다. 그녀는 이 모임의 프로그램으로 마가복음을 함께 읽는 것을 선택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그 모임에 참석했던 이슬람 신자인 한 이웃은 마가복음을 읽을 때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고 한다.³⁶²⁾ 성도들이 각자 이 모든 사역을 진행하는 이유는, 다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들이고, 자연스러운 증식을 위한 시도들이라 할 수 있다.

362) "Keith Gile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Santa Ana, California, 2014년 11월), 질문 #20.

아. 핵심 원리 8. 하나의 교회, 네트워크로 발전하다

The Mission House Church는 단 하나의 가정 교회이기 때문에, 증식의 경험이 없다. 따라서 교회의 네트워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일스는 외부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것은 오렌지 카운티(Orange County) 지역의 가정 교회들의 네트워크이다. 가일스는 이 네트워크를 “유연한 네트워크”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서로의 교회에 대한 간섭은 없지만, 정보가 공유되고, 또 서로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⁶³⁾

물론, 가일스의 주장처럼 정보가 공유되는 가정 교회들의 네트워크는 필요하다. 특별히 가정 교회라는 별로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매력도 없어 보이는 교회를 하는 사람들 간의 정도와 감정의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네트워크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한마디로 The Mission House Church에는 네트워크가 없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후 교회의 성장이라는 상황을 예상하고 네트워크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 해보았지만, The Mission House Church가 성장, 혹은 증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므로, 네트워크로의 발전 가능성 그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옳으리라 판단된다.

4. 평가

The Mission House Church는 핵심 원리에서 널 콜의 입장보다는 프랭크 바이올라의 입장을 따르는 교회라 볼 수 있다. 물론 유기적 교회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간과할 수 없는 콜의 주장들 가운데 일부는 수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작고 단순한 구조를 따르기는 하지만, 내부적인 효과를 제외한, 외부적인 효과인 유기체로서의 자연스러운 증식은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기능적으로 은사를 따라 사역하지만, 사역의 다양성과 효율성이 그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네트워크 또한 내부적인 네트워크는 없고, 가정 교회 간의 네트워크뿐이

363) “Keith Gile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Santa Ana, California, 2014년 11월), 질문 #23.

다. 한마디로 말해 외적인 효과의 측면에서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없고, 지지부진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초대 교회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은 유기적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The Mission House Church 성직자 중심이지 않으며, 건물 콤플렉스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교회의 모든 통제권이 그리스도께 있도록 애쓰고 있으며, 작고 단순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은사를 따라 기능적으로 사역하는 태에 가장 효과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고, 그렇다고 고립되거나 사역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고, 서로 친밀한 도움을 주고, 또 받고 있다. 만일 이 교회가 더 양적으로 성장한다면, 분명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유기적 교회는 ‘개념’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에 대한 이해의 폭과 넓이가 곧 유기적 교회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The Mission House Church는 개척의 방법을 통해 이러한 유기적 교회를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 교회를 그 구조로 선택했다. 이것은 개척의 중심에 있었던 가일스뿐만 아니라 이후 함께 구성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동의 아래 선택된 구조이다. 무엇보다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기적 교회에 관해 잘 이해하고 있고, 이것에 관한 신학적 안내를 교회 구성원 스스로도 찾아가지만, 또한 가일스의 도움도 꾸준히 받고 있다. 무엇보다 그들이 유기적 교회에 대해 잘 아는 것은 몸으로 자신들의 교회를 유기적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머리로 유기적 교회를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몸으로 유기적 교회를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일스나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유기적 교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유기적 교회로서 경험하는 한계는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답할 때 그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 가일스의 대답은 “예수님에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나의 대답입니다.”였다.³⁶⁴⁾

364) “Keith Gile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Santa Ana, California. 2014년 11월), 질문 #27.

제 2 절 전통적인 교회에서 유기적 교회로 전환 사례: Vineyard House Church

1. 교회 소개 및 인터뷰 진행 방식

Vineyard House Church는 빈야드 교단에 속해있는 교회이다. 이 교회는 교단 내부적으로 Newport 빈야드 지역구에 속해 있다. 교회의 구성원은 목회자인 빌 페리스(William T. Bill Faris)를 비롯해 10대에서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30여 명의 사람이 세대를 초월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Vineyard House Church의 모임은 벤슨(Benson)이라는 교회 구성원의 집에서 모이는데, 그 이유는 그의 집이 모임에 가장 적합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또 그가 모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집을 열어주고 있으며, 매번 모임 장소를 옮겨 다니는 수고로움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주로 모임은 오전 9시에 함께 모여 아침 식사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이들은 각자의 삶을 나눈다. 그리고 10시가 되면 거실에 다 함께 모여 예배를 시작하는데, 예배 인도는 5명의 예배 인도자가 번갈아가면서 각자가 맡은 날에 인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5명의 예배 인도자는 11살 된 피아노를 치는 여자아이, 15살 된 기타를 치는 여자아이, 집을 제공하는 벤슨과 기타를 치며 인도하는 20대 청년, 그리고 피아노를 치며 인도하는 성인 여성이다. 각자의 역량이 다르고 예배를 인도하는 스타일도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며 예배를 드린다. 혹, 어린아이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지만, 이들은 어린아이가 그날의 예배를 잘 인도할수록 더 진지하게 예배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런 어른들의 공감과 지지 속에서 그날 예배를 인도하는 아이는 예배 인도의 진지함을 배우게 된다고 한다. 하나의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 Vineyard House Church는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 리더들을 위해 배려하며, 그들이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의 예배 순서는 찬양 후 대개 간단한 5~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말씀의 주제와 내용은 하루나 이틀 전에 목회자인 페리스가 Powerpoint를 SNS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교회 구성원들은 SNS를 통해

공유된 정보를 하루나 이틀 정도 묵상하고, 예배 때는 그 주제에 관한 토론과 함께 각자가 찾은 관련된 성경 말씀과 묵상을 함께 나누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페리스는 자신이 예배에서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다만 가르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했다. 이에 관해 그는 이 가르침이 나눔에 있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제시해주고 이 이야기들이 그 포인트에 맞추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볼 때, 일반적으로 페리스의 역할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가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Vineyard House Church는 페리스가 없을 때도 이 예배의 구조로 동일하게 진행되며, 그의 역할(가르침)을 구성원 중 다른 누군가가 진행하고 있다.

Vineyard House Church에 관한 페리스와의 인터뷰는 2014년 12월 6일 캘리포니아(California)의 터스틴(Tustin)의 한 식당에서 진행되었으며, 점심시간인 오후 12시에서 2시 20분까지 진행하였다. 통역으로는 황영실의 도움을 받았다.

2.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 배경

Vineyard House Church는 처음부터 유기적 교회는 아니었다. 원래 페리스는 빈야드 교단 안에서 전통적인 교회인 Newport Vineyard Church를 개척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교회가 Vineyard House Church라는 가정 교회로 전환되었다. 처음 Newport Vineyard Church를 개척했을 당시에는 학교를 빌려서 교회 건물로 썼었다. 그러다가 3년 뒤 교회 건물을 빌리게 되는데, 이 기간에 교인들은 약 100명까지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교회가 있는 곳이 릭 워렌(Rick Warren) 목사가 시무하는 새들백교회(Saddleback Church)³⁶⁵에서 약 5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기에, 더는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약 8년간 페리스는 이 교회를 잘 이끌어 왔었고,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컸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8년이 지나 교회를 되돌아보았을 때, 자신들의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교회가 '우리가 여기 있으니 너희가 이곳으로 오라!'는 전통적인 시구식의 사고에 젖어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건물 임

365) 새들백교회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saddleback.com>이다.

대비용 문제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당시 교인들과 목회자인 페리스의 생각에 교회 건물은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멋있고 좋은 시설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형편에 맞지 않는 교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전통적인 교회가 아닌 다른 방식의 교회를 해보자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페리스가 그 해답으로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이 바로 가정 교회³⁶⁶⁾였다.

페리스가 생각한 교회는 단순하고, 교회가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런 구조의 교회였다. 대신 사랑과 돌봄이 있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였다. 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교회의 여러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을 때 중국의 가정 교회를 둘러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중국의 가정 교회에서 많은 것을 느꼈고, 전통적인 방식의 교회를 벗어버리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교회의 전환을 위해 페리스는 6개월 간 교회의 장로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교인들 전체의 동의와 이해를 얻기 위해 교회 전체가 모이는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성도들의 반대는 아주 심했다. 교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가 이런 전환이 싫다며 교회를 떠나 주변의 다른 빈야드 교회들로 떠나 버렸다. 물론 페리스와 당회는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 갔다. 떠나는 교인들을 위해 작별의 파티를 준비했고, 각자의 길이 다르지만 서로 축복해주며 이별함으로,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훌륭하게 잘 소화하도록 도왔다.

이후 페리스와 남은 50명의 교인은 3개의 가정 교회를 개척한다. 가정 교회의 특성상 한 그룹으로 하기에는 교인의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힘겹게 시작된 3개의 가정 교회 중 한 곳이 1년 뒤에 문을 닫게 되었고, 또 다른 한 곳은 3년 후 구성원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많이 가서 문을 닫게 된다. 지금은 통합된 단 하나의 가정 교회만이 남아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7년 동안 잘 유지되고 있다. 이 교회가 바로 Vineyard House Church이다.

페리스가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을 고민할 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책은

366) Bill Faris는 가정 교회와 유기적 교회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그는 가정 교회가 유기적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유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앨런 허쉬(Alan Hirsch)가 쓴 *The Forgotten Ways*³⁶⁷⁾이다. 그는 이 책에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첫째, 세상에 숨어서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둘째, 전통적인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으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³⁶⁸⁾ 이것은 곧 가정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교회라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전통적인 교회의 배경들을 버리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전통적인 교회가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을 시도할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라고 당부한다. 새로운 변화들과 함께 잃어버리게 될 옛것에 대해 새롭게 정립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들에 대한 비교 분석

페리스는 유기적 교회라는 용어보다 가정 교회를 더 많이 썼다. 이것은 그가 유기적 교회가 곧 가정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그의 저서들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대부분 그는 유기적 교회의 개념을 가정 교회에 접목하고 있다.³⁶⁹⁾ 그는 가정 교회를 처음 중국에서 접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할 때 즈음 중국 가정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 중국의 가정 교회들을 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는 이 시대의 유기적 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교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유기적 교회들만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소비주의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이 페리스가 가진 생각이다.

367) Alan Hirsch, *The Forgotten Ways: Reactivating the Missional Church*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9).

368) “William T. Bill Fari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Tustin, California. 2014년 12월), 질문 #6.

369) William T. Bill Faris의 저서로는 *How Healed Do You Want to Be?* (Boise, ID: Ampelon Publishing, 2009), *Homegrown* (Raleigh, NC: Lulu press, 2011)이 있다.

가. 핵심 원리 1. 성직자 중심의 페리다임을 과감하게 깨뜨리다

Vineyard House Church는 목회자가 존재한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지만, 목회자로서 페리스의 역할은 사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이 주장하는바, 그는 권위적인 목사는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기능적으로 목회자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페리스는 목회자로 결혼 주례도 하고, 교단의 목회자들 모임에도 가고, 성도들의 가정을 심방하는 등, 보통의 목회자들의 사역을 수행하지만, 목회자로 그 위치가 주는 정신적인 의미의 권위적인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다. 자신의 표현대로, 그는 교회가 서커스를 하는 것에 지쳤었고, 회의를 가졌었고, 이제는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평가한다.³⁷⁰⁾

전통적인 교회에서의 목회자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서 교회의 방향과 비전을 듣고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이다. 하지만 페리스가 말하는 유기적 교회에서 목회자의 위치는 단지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이것은 모든 구성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진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른 점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뜻이다.³⁷¹⁾ 따라서 그는 목회자를 교회의 구성원 중 하나로, 교회 안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권위적인 성직자로 지시와 순종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페리스는 이러한 관점을 관철하기 위해 교회에서 받는 사례는 최소한으로 줄였다. 나머지 모든 일체의 사례는 자신의 또 다른 직업을 통해서 채우고 있는데, 그는 전문적인 상담가로 한 달에 65~70건의 상담을 한다. 또 그의 아내는 간호사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목회자의 생계 문제에 관해 전통적인 교회가 가진 시각과 마찬가지로 목회직에 대한 대가로서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사역적인 면에서 교회가 보수를 주고 목회자를 고용한다는 생각을 하거나, 오로지 목회자에 의해서만 교회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라도 목

370) “William T. Bill Fari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Tustin, California. 2014년 12월), 질문 #2.

371) “William T. Bill Fari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Tustin, California. 2014년 12월), 질문 #2.

회자 스스로 파트타임(part-time)의 일이라도 할 것을 권유한다. 목회자가 일하는 모습만으로도 성도들은 동질감을 느낄 것이며, 그들 스스로 목회자를 돕겠다는 생각의 전환이 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³⁷²⁾

페리스는 Vineyard House Church가 유기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위해 스스로 성직자 제도는 내려놓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권위적인 성직자의 자리를 포기했다. 그에 대한 증거로 대부분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들 역시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닐 콜이 주장하는 바처럼, Vineyard House Church는 ‘언제든지 폐기 가능한 목사’³⁷³⁾를 두고 있는 셈이다.

나. 핵심 원리 2. 건물 중심의 페리다임을 벗어났다

Vineyard House Church의 시작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건물 중심의 페리다임에 대한 심각한 회의 때문이었다. 감당할 수 없는 건물 임대료로 인해 교회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했던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페리스는 교회가 이러한 전통적인 페리다임을 거부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선택을 해야 했을 때, 개인적으로 자신이 ‘Jesus People Movement’의 영향 아래에서 보냈던 십대 시절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이 운동에 헌신된 사람들은 대부분 교단의 배경 없었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모일 수 있는 자체적인 건물도 없고, 모임을 관장하던 조직적인 체계도 없었다. 어떻게 보면 유기적 교회의 모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페리스에게 있어서 과거의 이 경험은 유기적 교회로서 가정 교회를 선택하고 전환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다.³⁷⁴⁾

Vineyard House Church는 기본적으로 가정 교회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372) “William T. Bill Fari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Tustin, California. 2014년 12월), 질문 #8.

373) “폐기 가능한 목사”에 관한 주장은, 닐 콜이 교회의 문제가 곧 지도자의 문제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는 지도자로서의 목회자가 교회의 문젯거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이양하는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초대 교회의 모델을 회복하는 것이고, 유기적 교회의 입장에서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입장에서 목회자는 해가 가능한 자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Niel Cole, and Phill Helfer, *교회 트랜스퓨전*, 164-169.

374) “William T. Bill Fari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Tustin, California. 2014년 12월), 질문 #1.

강대상과 회중석의 구분이 없다. 가정집에서 모이기 때문에, 비교적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실제적인 에클레시아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들의 예배와 모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Vineyard House Church는 복회자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일방적인 구조를 탈피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모든 연령층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 인도자가 10대에서 성인 여성에까지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배가 단지 완성된 작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고 함께 드러지는 개념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이들은 4~5개월에 한 번은 수도사들의 전통을 따르는 거룩한 독서인 'Lectio Divina'를 하는데, 이것은 세 사람이 한 그룹을 이루어 성경 말씀 하나를 뽑아 돌아가면서 세 번을 읽고, 마지막으로 다 함께 큰소리로 한 번을 읽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조용히 자신만의 묵상 시간을 가진 다음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들을 나누는데, 그때마다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된다고 한다.³⁷⁵⁾

다. 핵심 원리 3. 교회의 모든 통제권을 그리스도께 드리다

페리스는 미국의 대부분 교회가 교인들을 소비자 채질로 바꾸어버렸다고 주장한다. 대형 교회들이 이러한 신앙의 소비자들을 공략해 가는 방법이 결국 마켓처럼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것이었다. 어린이 사역부터 성인 사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들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교회가 철지하게 계산된, 소비자 중심주의로 매출과 이윤을 추구하는 모습으로의 변질이라고 비판했다. 규모가 크고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교회들은 결코 자신의 통제권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³⁷⁶⁾

페리스는 전통적인 교회가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을 시도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으로, 규모를 줄이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통적인 모든 방법을 다 유지하면서, 규모만 작게 나누는 것은 유기적 교회가 아니라

375) "William T. Bill Fari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Tustin, California. 2014년 12월), 질문 #2.

376) "William T. Bill Fari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Tustin, California. 2014년 12월), 질문 #2, #6.

는 것이다.³⁷⁷⁾ 이것은 교회를 하는 방법의 완전한 변화를 시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리더가 될 수 있고, 교회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에 함께하며,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작지만 특수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일이다. 유기적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원칙은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페리스는 유기적 교회란 그 구조와 형태(사람, 건물 등)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라고 주장한다.³⁷⁸⁾ 전통적인 교회를 개척하는 대부분 사람은 교회의 형태인 사람과 건물과 조직을 먼저 갖춘 다음 자신들의 사명을 고민한다. 그러나 이러한 순서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지역을 섬기길 원하실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확신해야 한다. 섬겨야 할 대상이 결정되면 인재, 어디에서 모일 것인가 하는 점은 그다음에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반드시 주일 아침이 아니어도 되고, 반드시 교회 건물이 아니어도 된다. 찾아가서 만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 모이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 모임의 구조나 형태는 사명을 확증한 다음에 선택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사명이 그리스도에게서 왔다면, 그 구조와 형태도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Vineyard House Church는 전통적인 구조의 교회에서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을 시도한 교회이기 때문에, 통제권에 관해서 확실한 체질 개선이 필요했다. 그러나 페리스는 한 번에 바뀌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꾸면 흥미롭고 흥분되겠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Vineyard House Church가 전환을 시도했을 때 교인 중 누군가는 한동안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했다. 특히 교회를 오래 출석하신 분들은 새로운 변화와 함께 옛날의 좋은 것들을 새롭게 재정립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했다. 따라서 지금도 여전

377) “William T. Bill Fari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Tustin, California. 2014년 12월), 질문 #6.

378) “William T. Bill Fari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Tustin, California. 2014년 12월), 질문 #14.

히 Vineyard House Church는 이러한 통제권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핵심 원리 4.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다

Vineyard House Church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차별 없이 함께 모여, 모든 모임과 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진행된다. 이들은 가족적이며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복음을 위해 세상에 헌신될 준비를 하는 연합적인 실체를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Vineyard House Church의 구성원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에 참석하는 수준으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나누어 먹을 영적인 것들을 책임지기 위해 일주일을 살고, 서로 나누기 위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시간 예배나, 빨리 왔다가 빨리 사라지는 모습 같은 것은 Vineyard House Church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또, 가족 공동체로서의 Vineyard House Church는 서로에 대한 돌봄도 책임 있게 감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를 위한 돌봄의 자세 또한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다. 모임이 이루어지는 그 지역이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와주었던 일이나 교회가 시행하는 로드 트립과 같은 사역은 지역을 향한 돌봄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Vineyard House Church의 구성원들은 어느 겨울 홍수와 산사태로 망연자실한 가정들을 이틀 동안 도와준 적이 있었다. 심지어 교인 중 한 사람이 알고 있는 건설 장비 업체까지 동원해서 집과 수영장의 모든 흙을 치워주었다. 이후 Vineyard House Church가 부활절에 동네 한 곳,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의자를 놓고 주변의 모든 이웃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피해를 수습했던 것이 2월이고, 부활절 예배를 드린 것이 4월인데, 그 부활절 예배 때 당시 피해를 봤던 가정의 한 남자가 노래를 만들어 들려주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가 만든 곡의 제목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라”였다. 이 노래는 산사태를 도왔던 Vineyard House Church의 활약에 관해 기록한 것이었는데, 교회가 이웃들에게 배풀었던 선이 그런 노래와 고백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이다.³⁷⁹⁾

Vineyard House Church가 시행하는 로드 트립은 비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그들의 집에서 가정 교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집만 열어주면 맛있는 음식과 멋진 찬양과 기도와 사람들 모두를 준비해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방문한 집에 무엇이든 한두 가지 요청을 받는다. 그 요청은 평소에 해결하지 못한 집안일이기도 하고, 가끔은 사소한 문제일 경우도 있다. 이 요청에 대해 진지하게 응답함으로써 Vineyard House Church의 방문자들은 비 그리스도인 집 주인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지금까지 약 20여 회의 로드 트립을 시행했는데, 대부분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이 로드 트립은 ‘우리에게 와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집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그 집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는지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고, 말씀을 존중하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섬기며 사는 것을 보게 된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을 통해 제자들을 보내신 것과 그들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 그 집을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다.³⁸⁰⁾

마. 핵심 원리 5. 기능적 사고방식으로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하다

Vineyard House Church의 사명 선언문은 매일 평신도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역량 강화(empowerment)를 해주는 것이다. 즉,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보통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도록 돕는 것이다. 페리스는 이것을 빈야드에서 자주 쓰는 말로 설명한다. “누구나 다 하는 역할이 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유기적 교회 안에서는 일어난다는 것이다.³⁸¹⁾ 즉, 전통적인 교회의 관점이 무언가를 받기

379) “William T. Bill Fari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Tustin, California. 2014년 12월), 질문 #12.

380) “William T. Bill Fari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Tustin, California. 2014년 12월), 질문 #11.

381) “William T. Bill Fari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Tustin, California. 2014년 12월), 질문 #3.

위해 교회를 가는 것이라면, 유기적 교회에서는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주는 것을 고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전통적인 틀을 벗어버리면 모든 세대가 함께 에베드리며,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³⁸²⁾

이를 위해 Vineyard House Church는 두 가지 방향의 사역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구성원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위해 모든 예배와 모임이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돕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지역 사회에도 동일한 적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선한 영향력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도 동일한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무엇보다 페리스는 자신이 섬기는 이 교회가 크지 않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작지만 자신들의 교회 역시 특수한 어떤 사역에 관해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큰 울타리에서 작지만 받은 은사를 따라 분명히 이루어야 할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바. 핵심 원리 6. 작고 단순하며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다

페리스는 유기적 교회를 실천하는 최적의 환경이 가정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는 경험을 통해 유기적 교회가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 부산물이 곧 가정이라는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신약의 초대 교회들이 대부분 가정 교회였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적의 환경이 가정이라는 것이지, 반드시 가정 교회만이 유일한 유기적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³⁸³⁾

Vineyard House Church는 30여 명으로 구성된 작은 교회이다. 가정 교회이기 때문에 작고 친밀하며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의 관계성과 유대감이 있는 그런 교회

382) “William T. Bill Fari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Tustin, California. 2014년 12월), 질문 #3.

383) “William T. Bill Fari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Tustin, California. 2014년 12월), 질문 #9.

이다. 이들은 함께 모일 때마다 팻 렉의 식사를 나누며, 식탁 공동체를 형성한다. 또 함께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역시 서로의 세대 차이에 대한 거리낌이 없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10대의 자녀를 축복하며, 그의 인도에 순종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리더의 나이와 경험은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경험이 적고 나이가 적은 아이가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³⁸⁴⁾

작고 단순하다는 것은 결정할 것에 관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Vineyard House Church는 이러한 유기적 원리를 잘 따르고 있다. 실제로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맨슨의 가정이 속한 지역이 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상당한 피해를 봤을 때, 이들은 피해를 입은 가정을 돕자는 선택을 매우 빠르게 진행했다. 모든 모임을 아예 간단한 예배와 함께 홍수를 입은 가정으로 찾아가 그 가정의 수해를 돕는 것으로 진행했다.³⁸⁵⁾ 이러한 빠른 판단과 결정은 그 구조가 작고 단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사. 핵심 원리 7. 유기체의 자연스러운 증식을 이루다

Vineyard House Church는 작고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 효과성이 배가에 있지는 않다. 즉, 자연스러운 증식을 이루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3개로 시작된 가정 교회가 하나로 통합되어버린, 증식이 아닌 소멸의 경험을 거쳤던 교회이다.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 이유는, 증식의 구조를 갖기에 부족했던 시간과 역량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껏 교회가 전환에 더 초점 맞추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다른 이유를 찾으려면, 빈야드 교단 자체에 가정 교회의 모델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Vineyard House Church가 전도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홍수로 산사태를 입은 집들을 교회가 돌아보았던 일만 해도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역에는 반드시 복음의 확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홍수로 피해를 입은 가정들을 도와

384) “William T. Bill Fari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Tustin, California. 2014년 12월), 질문 #10.

385) “William T. Bill Fari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Tustin, California. 2014년 12월), 질문 #12.

주었던 그 일은 매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일을 겪고 난 후 Vineyard House Church의 구성원들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확장된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³⁸⁶⁾

그 외에 Vineyard House Church는 로드 트립(Road Trip)이라는 것을 통해 전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페리스는 이러한 로드 트립이 자연스러운 증식을 가능케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아. 핵심 원리 8. 하나의 교회, 네트워크로 발전하다

Vineyard House Church는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두 개의 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Oregon에 또 다른 가정 교회가 Vineyard House Church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 있는 것이다. Oregon에 있는 이 가정 교회는 페리스나 Vineyard House Church의 일원들에 의해 개척된 교회는 아니다. Oregon에 살고 있던 한 여 성도에 의해 개척되었는데, Vineyard House Church와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게 된 이유는, 그녀가 가정 교회를 개척할 때 페리스와 Vineyard House Church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빈야드 교단에서 Vineyard House Church 외에 가정 교회에 대해 알고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는 없었다. 그래서 개척된 2014년 9월부터 지금까지 Oregon의 이 교회는 Vineyard House Church와 한 네트워크 안에 있다.³⁸⁷⁾

Vineyard House Church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Oregon의 가정 교회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들의 사역을 공유한다. 다양한 상황에서 먼저 그 길을 걸었던 Vineyard House Church가 실제적인 도움을 Oregon의 가정 교회에 주고 있다. 또 Vineyard House Church는 주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고, 세금 면제의 혜택이 가능한 교회이기 때문에, Oregon의 교회가 이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다.³⁸⁸⁾

386) “William T. Bill Fari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Tustin, California. 2014년 12월), 질문 #12.

387) “William T. Bill Fari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Tustin, California. 2014년 12월), 질문 #13.

388) “William T. Bill Fari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실(Tustin, California. 2014년 12월), 질문 #13.

페리스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발전할 가능성을 두 가지 경우로 본다. 첫째는 닐 콜과 같이 개척되는 교회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이는 경우이고, 둘째는 원래 있던 전통적인 교회가 가정 교회로 전환하거나, 기존의 전통 교회는 그대로 두고 가정 교회들을 개척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경우이다. 이 둘의 경우 모두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사역을 돕고 하나 됨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4. 평가

Vineyard House Church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유기적 교회로 전환한 경우이다. 따라서 이 교회가 완전한 유기적 교회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든다. 우선, 목회자의 비중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모든 모임에서 페리스는 가르치는 위치에 존재한다. 그는 이것을 다양한 은사 중 하나로 인식하지만, 실제로 함께 모이는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인식할지는 미지수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그가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일부 사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의 위치가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

커버링의 문제도 있다. 그는 자신의 교인들을 심방한다고 했다. 이 심방이 한 교인이 다른 교인을 심방하는 수준은 분명 아닐 것이다. 목회자가 교인의 가정에 심방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 사회와 같은 위계가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가 목회자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방을 받는 교인들을 위축시키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페리스는 이 문제를 전환의 과정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닐 콜이 말하는 전환이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일어나고 있을 뿐,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이다.³⁸⁹⁾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시간의 문제였다. 구성원 모두가 충분히 유기적 교회를 이해하고 수용하기까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전환의 기준이나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전통적인 교회의 틀을 빨리 벗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보았다.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의 성패는 전통적인 교회의 틀을 벗는 그 시간에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의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

389) Niel Cole, *교회 3.0*, 40-42 참고.

이 이러한 경험에서 내려진 결론이었다. 그래서 그는 Vineyard House Church가 처음 세 개의 가정 교회로 출발했던 일에 관해 후회하고 있었다. 만일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하나의 교회로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한다.³⁹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전환의 과정이 그만큼 어렵고, 시행착오가 많으며, 무엇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기적 교회로의 다급한 전환은 구성원들에게 기준이나 방법 모두를 백지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악수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마이클 프로스트와 엘런 허쉬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 사례라 판단할 수 있다.³⁹¹⁾ 물론 Vineyard House Church는 혁신적인 전환을 시도했다. 페리스의 판단에는 여러 번의 공청회를 통한 설득의 과정이 충분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구성원들이 느끼는 상실감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뷰 내내 페리스는 유기적 교회가 아닌 전통적인 다양한 교회를 인정하는 발언들을 여러 번 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다양성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드시 유기적 교회만이 대안이라고 할 수 없고, 유기적 교회가 아니라 전통적인 교회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이것은 페리스가 전통적인 교회에서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에서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면, 다른 유형에 대한 일단의 평가는 보류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페리스는 혁신적인 변화의 순간, 이러한 생각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그래서인지 Vineyard House Church는 전환의 과정에서 성직자 중심의 페리다임과 통제권 문제에서 다소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Vineyard House Church가 건물 중심의 페리다임을 확실하게 벗어난 것과 기능적 사고방식으로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있는 점, 작고 단순한 친밀한 공동체로서 자연스러운 증식을 준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들이 자립한 교회이고, 목회자인 페리스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은 이 교회가 앞으로 유기적 교회로서 더 나은 변화로 나아갈 충분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90) “William T. Bill Faris와의 인터뷰”, 대담 이준형, 황영설(Tustin, California. 2014년 12월), 질문 #7.

391) Michael Frost, and Alan Hirsh, *새로운 교회가 온다*, 41.

제 3 절 한국과 한인 이민 사회에서의 유기적 교회 사례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을 구조적인, 제도적인 한계로 보는 이들은 한국과 한인 이민 사회에서 유기적 교회를 목표로 한 다양한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실제적인 유기적 교회로 기론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면 발견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두 가지 정도의 이유에서 유기적 교회의 발견은 쉽지 않다. 첫째, 유기적 교회 사역은 거창한 어떤 결과물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이슈를 만드는 것에도 거부감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가 길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둘째, 유기적 교회는 그 규모가 작아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로 구성되어서 다양한 집합체를 형성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럴만한 사례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유기적 교회의 직접적인 실례를 찾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 한국과 이민 사회에서 유기적 교회를 찾아내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은 분명히 존재한다.

아래에 소개할 사례는 이남하³⁹²⁾ 목사에 의해 알게 된 유기적 교회들로서, 한국과 이민 사회에서 실제적인 유기적 교회를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그가 소개하는 유기적 교회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유기적 교회의 사례들을 한국과 이민 사회에서 찾

392) 이남하는 한국과 이민 사회(워싱턴과 브라질)에서 유기적 교회를 실천하고 있다. 그는 20대 후반에 목회자가 되어 복음주의자로 18년을 목회했었는데, 성경공부, 재자훈련, 셀 교회, 신교에 중점을 두고서 열심히 사역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실마리로 인해 목회 진반에 대한 회의를 경험하면서 우연찮은 기회에 유기적 교회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구원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을 남겨두신 그 계획하신 목적이 바로 유기적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가 정의하는 유기적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과 사랑과 교제가 이 땅에, 그리고 영원히 확장된 상태이다. 즉,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 그대로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여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죽은 후가 아닌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영원토록 가게 되는 것”이다. 현재 그는 2009년부터는 워싱턴에서 유기적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그리고 볼리비아에 개척된 유기적 교회들을 사이에서 순회 사도적 일꾼으로 유기적 교회들을 섬기고 있다. 그가 쓴 저서로는 “예수님짜리”, “예수님 자리”, “예수님짜리 인생 예수님짜리 교회”, “거품 빼고 보는 요한계서록”, “우린 예수님짜리”, “평범한 사람들의 변란 교회”,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이교도에 물든 기독교”, “영원에서 지상으로”, “오래된 교회 가정집 모임”, “다시 그려보는 교회”, “유기적 교회 세우기”가 있다. 홈페이지 <http://www.yejja.org> 참고. “이남하와의 서면 인터뷰”, 대담 이준형(2015년 12월), 질문 #1 #2.

아 제시하면 좋겠지만,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유기적 교회를 이해하고 직접 이 용어를 사용하는 한국과 이민 사회의 교회의 사례가 거의 없고, 그런 교회를 찾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본 사례로는 이남하가 소개하는 교회들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인 것은 그가 단순히 프랭크 바이올라의 책을 번역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유기적 교회를 실천하고 있는 것과, 또 그러한 교회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스스로 유기적 교회의 핵심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고, 더불어 그러한 교회들을 돕고 있으므로, 적절한 사례로서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남하가 소개하는 유기적 교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들 교회는 이름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교회를 소개할 때 임의로 지역 명을 따라 교회 이름을 사용하겠다. 그에 의하면, 이들 각 유기적 교회들은 운영 방식에 의해 어떠한 제약도 없으며, 성도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따라 운영된다. 예배의 순서 및 장소, 시간 등도 딱히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그들 자신이 거룩한 산제사(벧전 2:5)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므로, 예배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지,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인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예배는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찬양과 기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서로 말하며 함께 나누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³⁹³⁾ 이들의 모임은 대개 일주일에 한 번 전체모임을 가정별로 가지고 있고, 주중에는 자유롭게 형식 없는 모임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자매 모임, 형제 모임, 기도회 등으로 모이는 것이다. 그리고 각 교회는 지역 교회의 필요에 따라 각각의 활동들을 하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규제나 하달되는 명령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을 해야 할 부담은 없고, 필요하다면 함께 그 일을 하는 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³⁹⁴⁾

1. 한국에 세워진 유기적 교회들

이남하에 의하면, 그와 연결된 한국의 유기적 교회는 모두 7개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대부분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단위로 교회의

393) “이남하와의 서면 인터뷰”, 대담 이준형(2015년 12월), 질문 #3.

394) Ibid., 질문 #3.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에 10가정, 경기도 파주에 5가정, 경상북도 경산에 7가정, 경상북도 울산에 15가정, 부산에 24가정, 전라북도 전주에 12가정, 제주도에 9가정으로 모두 82가정이 활발한 유기적 교회를 이루고 있다.³⁹⁵⁾

교회가 진행돼 온 과정들로 이들 교회를 분류하면 모두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제도권 교회에서 유기적 교회로 전환한 사례들이다. 여기에는 경산 교회와 울산 교회, 부산 교회가 해당한다. 두 번째는 가정교회로 개척되었다가 유기적 교회로 전환한 사례이다. 여기에는 전주 교회가 해당한다. 세 번째는 이남하가 인도한 유기적 교회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개척된 사례들이다. 여기에는 서울 교회와 파주 교회, 제주도 교회가 해당한다.

각각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전통적인 제도권 교회에서 유기적 교회로 전환한 사례에 해당하는 경산 교회, 울산 교회, 부산 교회는 실제로 각 교회의 담임 목사들에 의해 전환이 이루어진 사례이다. 이들은 이남하와 오랫동안 쉼 교회 운동을 함께 했던 동역자들인데, 이남하를 통해 유기적 교회를 접하고서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와 그들이 힘을 모았던 쉼 교회의 방식조차 포기하고 유기적 교회로 전환한 사례이다. 그 과정에서 이들 교회 모두가 교인들이 절반 이상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함께 유기적 교회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남아서 현재의 유기적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경산에 7가정, 울산에 15가정, 부산에 24가정이 유지되고 있다.³⁹⁶⁾

이들 교회는 유기적 교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목사들 스스로 목회직을 내려놓고 교인들과 동일하게 생업에 뛰어들었다. 그들 가운데 40대의 목사는 대리 운전기사를 거쳐 현재 학원 버스 운전사로 일하고 있으며, 50대의 목사는 건설 인부를 거쳐 현재 목수로 일하고 있다. 60대의 목사는 심장병이 발병하여 일할 수 없어서 교회의 지체들이 사랑으로 함께 모아 후원하는 재정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목회자의 사례비는 아니다. 단지 어려운 지체를 돕는 그들의 사랑의 표현일 뿐이다. 이들 교회 모두 예전엔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가정집에서 함께 모이고 있다.³⁹⁷⁾

395) Ibid., 질문 #3.

396) “이남하와의 서면 인터뷰”, 대담 이준형(2015년 12월), 질문 #5.

397) Ibid., 질문 #5.

이들 교회의 특이점은 왕성한 셀 교회를 경험한 교회들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로 친밀하고 가족처럼 지내는 것에는 익숙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유기적 교회의 삶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방해가 되기도 했다. 즉, 이들은 과거 셀 사역의 경험들을 통해 왕성한 성장을 목표로 친밀함과 재자도와 전도 및 선교에 과도하게 몰입하도록 몰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교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자연스러운 교회를 경험하고 함께하는 것에 대해 오해하고 힘들어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구성원들이 과거처럼 인위적인 사역이나 강력한 지도력을 원하지도 않으며, 탁월한 성장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기보다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자연스러운 유기적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함께 교회를 운영하며 잘 모이고 있다.³⁹⁸⁾

둘째는, 가정 교회로 개척되었다가 유기적 교회로 전환한 사례이다. 전주 교회는 원래 장로교회의 교인이었던 7가정이 가정 교회를 하겠다고 13년 전(2002년)에 뛰어나와 교회를 개척하여 출발한 가정 교회이다.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그들은 자기들끼리 교회를 이루기는 했지만, 이것저것을 시도하는 가운데 지친 성도들이 반 이상 교회를 떠나는 것을 경험했었다. 약 1년 반 전에 이남하와 연락이 되어 현재는 그의 도움을 받으며 유기적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³⁹⁹⁾

이 교회는 가정 교회로 출발하긴 했지만, 전통적인 교회의 구조와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이라는 환경만 바꾸어 가정 교회를 시도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시스템을 따르다 보니 성도들이 지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가정 교회의 시스템과 전통교회의 시스템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지금은 유기적 교회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통해서로 교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떠났던 가정들이 돌아오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더해져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는 12가정으로 확대되어 유기적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⁴⁰⁰⁾

세 번째 사례는, 이남하의 유기적 교회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개척된 경우이다. 이 교회들은 약 1년 전 즈음부터 개척되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교회가 놀랍게 성

398) Ibid., 질문 #5.

399) Ibid., 질문 #5.

400) Ibid., 질문 #5.

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 교회와 파주 교회, 제주도 교회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서울에 10가정, 파주에 5가정, 제주도에 9가정이 개척되었다.⁴⁰¹⁾ 이 세 번째 사례는 유기적 교회의 개념에 가장 근접한 모형으로 자연스러운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이민 사회에 세워진 유기적 교회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이 유기적 교회는 이남하가 6년 전 그곳으로 이사하면서 몇 가정이 함께 모여 교회가 개척된 사례이다. 또 아홉 개의 지역들에 모이는 모든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이남하와 함께 살면서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다. 이남하는 언젠가 때가 되면 이 교회를 떠나 또 다른 곳에서 교회를 개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교회에서 이남하는 자신의 역할을 복음을 끊임없이 소개하면서 그것들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처음 교회가 개척될 당시만 해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었지만, 이제는 그의 삶을 통해 함께 유기적 교회를 체험하고 이해하며 이루어가고 있다. 이남하 부부도 과거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는데, 그는 자신이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유기적 교회 모임의 한 지체라는 사실에서 이러한 삶을 지향했다.⁴⁰²⁾

그 외 이민 사회에 세워진 유기적 교회의 예는, 볼리비아 라파스 교회인데, 약 7년 전(2008년) 이남하가 말씀 사경회의 강사로 초청되어 볼리비아에 가면서 시작된 유기적 교회이다. 이 교회를 전통적인 교회에서 유기적 교회로 전환된 사례로 함께 분류하지 않은 이유는, 이민 사회에서 탄생한 첫 전환 사례이자 그 전환되는 과정의 독특성 때문이다. 이 교회는 전환을 시도할 때 담임 목사와 교회를 세웠던 원로 장로, 그리고 교회를 책임지던 시무 장로가 함께 마음을 맞춰서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이다. 따라서 담임 목사의 주도로 전환되는 대부분 유기적 교회들과는 사뭇 다른 사례에 해당한다.⁴⁰³⁾

볼리비아 라파스 교회가 유기적 교회로 전환되는 과정 가운데 어려운 점이 없었

401) Ibid., 질문 #5.

402) Ibid., 질문 #5.

403) Ibid., 질문 #5.

던 것은 아니다. 절반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많은 아픔이 있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유기적 교회를 고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확고한 신념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 부부는 매년 워싱턴 교회를 방문하여 유기적 교회를 경험하고 확신을 얻는다. 그 결과 담임 목사는 교회의 목회직을 내려놓았다. 현재 그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만 교회를 섬기고 있다. 즉, 기능적인 사고방식에서 주어진 사역만 감당하고 있다. 볼리비아 라파엘 교회는 현재 교회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대상과 장의자는 모두 없었다. 물론 예배의 순서와 교회의 조직과 직분 모두 없애 버렸다. 현재 교회의 모임은 교회 건물이나 가정집을 돌아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날마다 이 유기적 교회에 함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⁴⁰⁴⁾

3.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과 이민 사회에서도 실제적인 유기적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유기적 교회들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적을 뿐이다. 따라서 유기적 교회에 관해 이해하고 그 삶으로 동참하는 사람은 현재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 교회에 동참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 삶이 변하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 땅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남하는 지금까지 한국과 이민 사회를 대상으로 모두 아홉 번의 유기적 교회에 대한 세미나를 인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 가운데 자신의 목회직을 내려놓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만큼 유기적 교회를 이해하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적은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다.⁴⁰⁵⁾

이남하가 순회 사도적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 이 유기적 교회들은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여덟 가지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들 가운데 #1~5의 핵심원리를 주로 반영하여 유기적인 교회를 실현하고 있다. 즉, 닐 콜보다는 프랭크 바이올라의 입장을 따라 유기적 교회를 하고 있다. 반면, #6처럼 교회가 반드시 작고 단순하고 친밀하다고 해서 모두 유기적 교회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크기

404) Ibid., 질문 #5.

405) “이남하와의 서면 인터뷰”, 대담 이준형(2015년 12월), 질문 #6.

와 구조와 상관없이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복음, 교회)을 따라 유기적 집합체가 되느냐가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7의 유기체의 자연스러운 증식에 대해서도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 관심에서 벗어난다고 못 박는다. 또 #8의 네트워크 역시 유기적 교회의 자연스러운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관계 형성으로 보고 있지, 그것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구조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⁴⁰⁶⁾

무엇보다 가장 큰 의의는 유기적 교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실제로 한국과 한인 이민 사회 안에서 이 유기적 교회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많은 사람이 한국적인 토양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하는 이 유기적 교회의 실레이자 현재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 비록 아직은 교회가 개척 혹은 전환된 지 얼마 시간이 안 지난 상황이긴 하지만, 유기적 교회의 실현 가능성을 현실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들 유기적 교회가 한국과 한인 사회 가운데 어떠한 교회 운동을 일으키는 지, 어떤 자정의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 의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406) “이남하와의 서면 인터뷰”, 대담 이준형(2015년 12월), 질문 #4.

제 5 장

한국적 상황에서의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의 적용

유기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다룬다. 이것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행해 왔던 모든 방식과 전통적인 교회 제도에 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기존의 교회가 행하는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도록 자극한다.

본 장에서는 한국적 상황에서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다룰 것이다. 즉, 유기적 교회라는 새로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먼저는 한국적 상황에 관해 다룰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한국적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모델로서의 유기적 교회의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난 후 핵심 원리에 기초해서 유기적 교회를 시행하기 위해 각각의 원리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함께 다루어 볼 것이다.

제 1 절 한국적 상황에 대한 이해

과거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 사회의 발전에 힘을 보태며 그 길을 함께 걸었던 것이 바로 교회였다. 그뿐만 아니라 발전되는 사회의 어두운 쪽에서도 그 책임을 다했던 것이 바로 한국 교회였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회적으로 그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사회가 발전되는 만큼 교회가 그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한국 교회는 그 위상조차 흔들리고 있고,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지금 교회가 처한 한국 사회에서의 위치에 관해 살펴보고, 확산하는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살펴볼 것이다.

1. 한국 사회에서의 개신교의 위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회가 잘되기를 기대하고, 또 제대로 본질에 가깝게 교회가 운영되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실은 교회들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들만 가득 차 있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기독교 용어들로 '개독교'나 '목레기' 같은 것들이 널리 퍼진 것은 대표적인 교회에 대한 반감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교회에 대해 이러한 반감을 품은 이들은 교회가 물신(황금, 돈, 권력)과 대형화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을 비판한다.⁴⁰⁷⁾ 즉, 교회가 교회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이다.

한국의 교회는 1960년대에 들어 급격한 외적 성장을 이루었다. 교회 수가 1960년대에 5천여 개였는데, 2000년에는 6만 개로 40년 동안 12배의 고도성장을 이루어 냈다. 교인 수 역시 1960년대에 60만 명에서 2000년에 970만 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16배 증가했다.⁴⁰⁸⁾ 이러한 한국 교회 성장의 배경에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영역에서의 변화라는 상황적 요인들도 일정 영향을 미쳤다.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도약, 급격한 도시화 및 경제 발전 등이 교회 성장의 큰 주축을 이루었다는 것이다.⁴⁰⁹⁾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모든 종교의 성장률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데, 한국 개신교 역시 동일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게 된다.

문제는, 한국 개신교가 급성장할 때와는 달리 점점 그 세력이 약화하는 시점에서,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대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혁배는 자신의 저서 *한국 기독교 윤리 쟁점*에서 이 시대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부정적 행태에 관해 네 가지를 언급한다. 첫째, 친미반공주의, 둘째, 배타주의, 셋째, 권위주의, 넷째, 물량주의이다.⁴¹⁰⁾ 그는 이러한 네 가지 부정적 행태가 교회에 반영되면서 나타

407) 개독교는 '개만도 못한 기독교'를 지칭하는 줄임말이고, 목레기는 '쓰레기만도 못한 목사'를 지칭하는 줄임말이다. 이것들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직접 표현해주고 있다. 인터넷: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5368 참고.

408) 교회성장연구소, *교회 선택의 조건 - 한국교회 교인의 수평이동 및 교회 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보고*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146.

409) 교회성장연구소, *교회 선택의 조건*, 147-148.

410) 이혁배, *한국 기독교 윤리 쟁점* (서울: 동연, 2010), 17-27 참고.

나게 된 한국 교회의 세 가지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즉, 첫째, 이러한 네 가지 행태를 표방하면서 성장에 성공한 중대형 교회들, 둘째, 이런 이념을 수용하면서도 성장에 성공하지 못한 소형 교회들, 그리고 셋째, 이런 가치들에 맞서는 대안 교회들이라는 것이다.⁴¹¹⁾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교회는 포스트모던 사회를 살고 있다. 포스트모던 사회는 관계 중심적이고, 진실성을 중요하게 다르며, 체험을 중시하고, 신비와 여정을 추구하며, 다양성을 인정한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은 포스트모던 사회를 향해 그 문을 굳게 닫은 채로 고착화된 길을 자초했다. 사회가 모든 부분에서 다원화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종교 역시 하나의 주도적 종교가 존재하지 않는 다종교 상황을 보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교회만은 대중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면서 자신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⁴¹²⁾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이 유일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써 그 관계성 안에서 존재해야 하는 사명의 참뜻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모더니즘 사회에서 고착화로 인해 파생된 배타주의, 물량주의, 권위주의 등이 교회의 가치와 문화를 지배하고 흐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기독교를 선망하고 따라올 사람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도 공신력 없는 한국 교회가 정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들려오고 있다. 지금의 교회가 과거보다 더 소비 지향적이고 물량 지향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나라의 문제를 떠안고,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던 그런 모습을 더는 기대할 수 없다.⁴¹³⁾ 지난 시대 한국 사회에 개신교는 종교 영역의 헤게모니를 잡고서 교단의 조직적 운영, 신도들의 동원, 의례 구성 등에서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개신교의 현실 정치 참여를 시민 단체들의 영역으로 돌리자는 주장이 팽배하다.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정치 참여는 제한하고, 현실 참여를 사회 참여의 영역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하

411) 이혁배, *한국 기독교 윤리 쟁점*, 28.

412) 이혁배, *한국 기독교 윤리 쟁점*, 31.

413) 이혁배, *한국 기독교 윤리 쟁점*, 32.

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⁴¹⁴⁾

목회자의 윤리 의식에 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거룩한 이미지를 소비하려는 신도들의 욕구가 증대될수록, 목회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한국 교회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⁴¹⁵⁾ 신학생들의 윤리 교육과 신앙 훈련에 상당한 재정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현 교육제도에서 재정적 자립을 이루지 못해 제대로 된 교육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신학교들이 부지기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질의 교육과 바른 목회자의 배출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게다가 요즘 신학이나 목회자는 매력적인 학문이나 직업에 속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이처럼, 한국 개신교는 한국 사회 안에서 설 자리조차 점점 잃어가고 있다. 예전에 사회적 대안으로 자리 잡았던 교회가 이제는 그 자리를 내어준 채 유리방황하고 있다.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면서 더는 세상과 대화하기를 싫어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한국 개신교의 '단절'이라는 극단적인 성향에 관해 레너드 스위트는 현대 교회들이 'JDD' 즉, '예수결핍장애'(Jesus Deficit Disorder)를 앓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수결핍장애는 예수가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장애이기도 하지만, 그 증상이 그대로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⁴¹⁶⁾ 즉,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만을 경험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고, 이것이 세상에서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좋아하지만 교회는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단절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 교회는 이러한 단절 현상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14) 이혁배, *한국 기독교 윤리 쟁점*, 34-36.

415) 이혁배, *한국 기독교 윤리 쟁점*, 39.

416) Leonard I. Sweet, and Frank Viola, *예수 선언 (Jesus Manifesto)*, 장택수 역 (서울: 넥서스CROSS, 2011), 8.

2. 한국 개신교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

1997년 한국 갤럽이 시행한 조사를 따르면, 대부분 종교단체가 종교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점에 '그렇다'는 응답이 72.2퍼센트, 이러한 종교단체들이 교세 확장에만 관심이 있다는 점에 '그렇다'는 응답이 79.6퍼센트, 대부분의 종교단체가 인간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 '그렇다'는 응답이 62.9퍼센트로 나타났다.⁴¹⁷⁾ 1998년에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의 도움으로 시행된 한국 갤럽의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종교별 인상에 대한 비교조사 설문에서 개신교에 대한 인상으로 표현되는 말들로 '교세확장 치중', '헌금 강조', '규율 강조'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언급되었고, 그밖에 '교파분열', '양적 팽창주의', '자기교회 중심적' 등이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에게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언급되었다.⁴¹⁸⁾

이밖에도 개신교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많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구글(Google)에서 '반기독교'를 검색했을 때, 그와 관련된 내용만 약 226,000개가 검색된다.⁴¹⁹⁾ 그리고 '반기독교 연합'을 검색했을 때는 약 120,000개에 이르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반감을 품은 이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에서는 반기독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한국에서의 반기독교라는 용어는 단어자체로선 기독교의 반대의 의미일 뿐이었고, 현대의 반기독교 운동은 순수히 기독교에 반대한다는 의미로서 반기독교 단체를 주축으로 일어났지만, 이러한 한국의 반기독교 단체들은 자기모순, 거짓된 정보, 극단적 성향, 논점의 한계, 이중 잣대 등에 의해 반기독교 항목에서 설명하는 기독교에 대한 차별, 혐오, 적대만을 위한 조직이 되어 버렸다.⁴²⁰⁾

417) 교회성장연구소, *교회 선택의 조건*, 151.

418) 한미준, 한국 갤럽,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 조사보고서: 타종교인 및 비종교인과의 비교분석* (서울: 두란노, 1998), 219-223.

419) 2015년 9월 16일 검색.

420) 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B3%98%EA%B8%B0%EB%8F%85%EA%B5%90/%ED%95%9C%EA%B5%AD> 참고.

반기독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때 반기독교 연합이라 부른다. 놀라운 점은, 이들은 단지 기독교를 싫어한다는 공통점만으로 연합을 이룬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인본주의자, 세속주의적 리버럴, 무신론자, 국수주의자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타 종교 비방, 박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불교나 유교, 그리고 증산도 같은 민족 종교 계열까지 함께하는 특징을 보인다. 유일한 공통점이라고는 오직 기독교에 대한 반감뿐이라는 것이다.⁴²¹⁾

한국 갤럽 리서치가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대표:이동원 목사)의 의뢰로 한국 기독교인의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분석하는 설문조사를 2004년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1개월간 전국 6대 도시에 사는 만 18세 이상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각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한국 갤럽 리서치가 설문 조사 대상자들에게 개신교로의 개종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하지 않을 것이라 응답했던 사람들이 모두 65.9퍼센트였다. 그 이유가 대표적으로, 종교적인 믿음에 대한 강요(8.2퍼센트), 이미지가 좋지 않다(5.2퍼센트), 사상이 마음에 안 든다(4.1퍼센트), 시끄럽다(4.1퍼센트)였는데, 그 외에도 교세 확장, 헌금 강요, 종교지도자 자질, 영적 문재 해답 제공 등에서도 모두 불교와 천주교보다 이미지가 부정적이라고 나타났다. 이에 관해 한국 갤럽 리서치는 기독교가 지나치게 활발한 자기중심적인 전도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반감을 준다는 점, 그리고 보다 인근 지역을 위한 나눔과 봉사로 이미지 제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⁴²²⁾

교회의 본질에서 체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의 교회는 한국 사회 안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다. 에드 스테치(Ed Stetzer), 리치 스텐리(Richie Stanley), 제이슨 헤이즈(Jason Hayes)가 시행한 방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교회를 통해 신앙적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17퍼센트 정도인 반면에, 그리스도인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은 91퍼센트라고 한다. 이 설문 자료에 의하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10명의 청년 가운데 9명이 다른 그리스

421) Ibid.

422) 노충현, “한미준·한국 갤럽 ‘크리스천의 교회 활동과 신앙 생활 분석’ 리서치,” 기독교신문 (2005년 2월 1일). 인터넷: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75>

도인의 신앙 간증을 들어보겠다고 했고, 5명 중 3명은 친구가 성경공부를 같이하자고 제안하면 기꺼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⁴²³⁾ 이것은 교회가 구조나 프로그램이 아닌 관계성으로 승부해야 사회 안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존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전체적인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서, 그러나 본질적인 개혁을 작게 세밀하게 시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더 작게 쪼개져야 하고, 더 세밀하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결론은 교회성장연구소 교회경쟁력연구센터가 2006년에 발표한 내용과도 동일하다. 이들은 교회성장의 영적 자원 요소 10가지 가운데 ‘평신도 동역화’와 ‘평신도 양육’이라는 두 요소만 교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계속 높아진다고 발표했다.⁴²⁴⁾ 이것은 작게 세밀하게 사람들을 양육하고 움직여가는 것만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다.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들은 교회를 단순하고 작은 구조로 가져가도록 돕는다. 이것은 작게 세밀하게 사람들을 양육하고 움직여갈 수 있는 구조로는 최적화된 교회에 관한 이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기적 교회는 오늘날 한국의 상황에서 교회를 바꾸고 개혁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라 말할 수 있다.

제 2 절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한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의 적용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는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들은 모두 여덟 가지이다. 유기적 교회는 살아있는 유체로서 성직자 중심과 건물 중심을 벗어난,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의 통제권이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서로가 평등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에클레시아를 의미한다. 이 교회는 제도권 교회가 추구하는 비본질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서로가 은사를 따라 기능적으로 움직이며, 작고 친밀하며 단순한 구조를 가지면서, 유기체로서의 자연스러운 증식을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는 교회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것은 예수님이 세우시기 원하셨

423) Ed. Stetzer, R. Stanley, and J. Hates, *Lost and Found: The Younger Unchurched and the Churches That Reach Them* (Nashville, TN: B&H, 2009), 44.

424) 교회성장연구소, *한국교회 경쟁력 보고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6), 162.

던 그 교회로의 본질적인 회복을 추구하는 교회이다.

이 모든 핵심 원리는 하나같이 유기적 교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들인데, 한국적 상황이라는 장에서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유기적 교회가 문자적으로는 정의할 수 있지만, 적용에서는 다소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목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것은 많은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자원을 들여도 이찌면 이를 수 없는 교회의 한계에 관한 도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적 상황에서 유기적 교회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큰 어려움으로 제기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 교회의 경우 아직도 유교의 영향 아래에서 상대적으로 평신도인 자신들은 목회자의 목회 방침과 목회 철학에 따라 움직여 가는 존재들로 인식하고, 건물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통제 없는 교회를 무질서한 것으로 보고,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성을 단지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고 같은 교회에서 일하는 것으로만 치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 본질에 관한 고민이나 도전 같은 것들에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고, 리더십의 권위에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 혹은 개척을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임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자, 그분이 이 땅에 남겨놓기로 작정하신 그런 교회를 실현하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기적 교회를 논하는 데 있어서, 핵심 원리를 실현 가능한 선으로 옮겨오는 과정은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적어도 이 핵심 원리들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원리와 부차적인 원리로 나누어 현재의 교회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교회에 적용해야 한다. 그럴 때, 뜻하지 않는 어긋난 길로 교회가 변질되는 위험성에서 교회를 지켜낼 수 있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 유기적 교회에 가까운 교회를 실현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1. 실행 가능한 유기적 교회 모델 제안

앞서 4장을 통해 살펴본 세 가지의 사례는 유기적 교회를 실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근본에서부터 고민하게 한다. 우선, Vineyard House Church와 한국과 이민 사회에서 전환된 유기적 교회들의 예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고민은, 전환만이 과연 유기적 교회를 정착하고 시행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목회자인 페리스와 Vineyard House Church는 전통적이었던 자신들의 교회를 전체적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유기적 교회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한국과 이민 사회에서 전환을 시도한 교회들도 동일한 판단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교회 구성원의 절반이 공동체를 떠나갔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새롭게 시작된 가정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통해 통합되는 아픔의 과정을 또다시 거쳐야만 했다. Vineyard House Church는 교회가 전체 100여 명의 구성원으로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을 시도했지만, 남게 된 사람은 겨우 30여 명에 불과했다. 물론 한국과 이민 교회의 전환 사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만일 대형 교회가 이러한 전환을 시도한다면, 그 여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전환의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을 놓친 것에 관해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교회가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을 시도할 때는 이와 같은 전체적인 전환의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Mission House Church와 한국과 이민 사회의 유기적 교회의 개척 사례는 이러한 전환의 한계에 새로운 시각을 더해준다. 즉, 전환이 아니라 개척이 때로는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척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Mission House Church와 한국과 이민 사회의 유기적 교회의 개척 사례는 개척이 오히려 유기적 교회를 실현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잘 보여준다. 물론 개척에도 한계가 있다. 증식의 과정까지 가는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린다는 점과 개척의 과정에서 목회자가 반드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은 기존의 교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들 사례의 교회들이 주는 교훈들을 집목하면, 한국적 상황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유기적 교회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첫째, 무조건 개척을 통해 유기적 교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유기적 교회를 원론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만들어갈 방법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는 그대로 두고, 교회 안에 가정 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들을 새롭게 개척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또 다

른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접붙이는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방법은, 개척된 유기적 교회들은 네트워크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고,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는 자생하는 유기적 교회를 통해 서서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작고 다양한 유기적 교회들의 네트워크가 세대와 시대를 포용하면서 서서히 성장하게 되고, 이후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교회를 대체하도록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결국, 유기적 교회의 모임들의 네트워크가 교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가. 개척으로 실현하는 유기적 교회

유기적 교회를 실현 여부는, 얼마나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를 충실하게 지켜내고 성취할 것인가 하는 점에 달려있다. 즉, 유기적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이기에, 예수님의 DNA를 따라 교회가 그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유기적 교회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개척이다. 이미 고착화된 한국교회를 개선하기보다는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에 보다 충실한 교회를 개척이라는 방법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개척은 두 가지로 실현될 수 있다.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개척,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개척이다. 닐 콜이 소개하는 유기적 교회들은 앞의 선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Mission House Church는 뒤의 선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개척

닐 콜은 개척이라는 방법으로 실현해 나가는 유기적 교회를 직접 경험하면서 유기적 교회에 대한 이론들을 하나하나 정립해 나갔다. 그는 2~3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LTG 그룹을 체계적으로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분명히 큰 영향력으로 확장하고 증식되는 유기적 교회를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개척의 경험들을 통

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교회를 개척할 것을 권유했고, 실제로 그러한 교회들이 점차 증가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았다.

개척만큼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를 가장 잘 적용하면서도 그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에 좋은 장은 없다.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없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개척하는 교회는 기존의 교회에 대한 고정된 관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동일하다. 처음부터 교회에 대한 그릇된 그림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개척은 유기적 교회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이 된다.

따라서 유기적 교회를 개척을 통해 실현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점은, 개척하는 사람들의 유기적 교회에 대한 이해이다. 이점에 관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Mission House Church와 Vineyard House Church의 예가 분명한 교훈을 준다. 이들 교회가 공통으로 유기적 교회를 추구하지만, 시행되는 방식과 방향에서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유기적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시작할 때부터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 유기적 교회의 실현 가능 여부와 방향과 형태까지도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우선되는 고려사항은 유기적 교회에 대한 이해의 정립이다. 이것만이 전통적인 교회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에서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특별히 한국처럼 유교적 영향이 많은 사회에서는 유기적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정확하게 짚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를 가르치고 그 효과를 경험하기에 최적인 사람들은 원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기존의 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고정 관념을 이미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유기적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전통적인 교회를 추구할 경향이 다분하다. 따라서 유기적 교회의 개척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아예 신앙생활에 발을 딛지 않았던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다. 이들은 교회에 대한 고정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를 뿐더러, 그분이 주시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은 더 좋은 밭이고, 유기적 교회를 실현하기에 더 좋은 사람들이다. 앞서 4장을 통해 널 꼴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좋은 땅”이다.⁴²⁵⁾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철지

하게 예수님의 말씀에서 반대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을 가능성이 높고, 복음에 더 쉽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좋은 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변화는 엄청나게 놀라운 파급효과를 낸다. 자신과 동일한 삶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기에 이보다 더 좋은 사람들은 없다. 따라서 유기적 교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들보다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수밖에 없다. 이미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입견을 따라 교회가 이렇게 혹은 저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체험하는 그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 줄 알고, 유기적 교회를 몸으로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에서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는 이러한 개척을 실현 가능한 선으로 끌고 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오히려 유기적 교회의 개척 방법이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유기적 교회의 개척은 개개인의 만남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방식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널 꼴의 방식대로, 두세 사람이 한 사람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를 자신들의 교회로 초청하기 때문이다.

또, 유기적 교회의 실현에 있어서 교회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은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유기적 교회의 실현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 교회를 함께 개척하고 만들어갈 때 찾아오는 제일 큰 유혹은 전통적인 교회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혹이 맞서서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들을 끝까지 고수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에 대한 반감을 품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개척된 교회의 자성 능력을 향상할 것이고, 교회가 끝까지 유기적 특성을 반영하며 나아가도록 도울 것이다.

(2) 믿는 사람들과의 개척

유기적 교회를 실현하고자 할 때, 현실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과의 개척이 쉽지만은 않다. 지금처럼 교회가 포화상태인 한국적 상황에서는 개척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

기가 힘들다. 또, 그 많은 기존 교인을 아예 외면하고 유기적 교회의 실현을 위해 개척이라는 방법만을 고집하며 그들을 배제하는 것도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다. 따라서 기존의 성도들을 붙잡는 것과 유기적 교회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는 믿는 이들과의 개척밖에 없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교회의 모든 방법을 포기하는 것을 약속받고 그들과 함께 개척이 방법이다. 이것이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 개척의 방법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교회의 자립에 관한 것이다. 제정적으로 자립하는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성도들과의 개척은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나은 점이 있다. 이들은 십일조와 헌금에 훨씬 더 많이 훈련되어 있고, 그만큼 교회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열정에 대한 기대치가 처음 신앙을 접해본 사람들보다는 높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과의 개척을 실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들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교회 개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 교회만큼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교세확장’과 ‘헌금 강조’, ‘규율 강조’ 등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새로운 개념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은 너무나도 크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의 교회 개척은 몇 가지 중요한 선행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교육이다. 무엇보다 유기적 교회에 대한 이해와 그 핵심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의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기존의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작업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유기적 교회가 말하는 그 핵심 원리들을 잘 파악하고, 선입견이 없는 상태로 이러한 교회를 이해해야 하므로, 이 과정의 성취에 따라 유기적 교회의 실현이 좌우될 수 있다.

교육의 차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개척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를 심어주는 방향의 교육이겠지만, 이들은 전통적인 교회에서 학습되어 온 것들을 버리도록 하는 방향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별히 한국적 상황에서 이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간에 누구나 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

구자의 경우에도, 유기적 교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거쳐 왔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존의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은 채, 유기적 교회를 계속 접목하려 했던 것이다. 그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개념으로의 교회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공부가 필요했다. 기존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신들의 고정된 생각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교회 개척을 꿈꾸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둘째, 유기적 교회 개척 이전에 유기적 교회 모임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 머리로 배우고 아는 것만으로는 개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유기적 교회 모임을 경험하면서, 사전에 교회 개척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그려 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4장의 사례 중에 볼리비아 라파스 교회가 이러한 과정을 잘 활용한 교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주변의 유기적 교회로 운영되는 가정 교회들을 방문해서 어떻게 유기적 교회의 원리들을 실현해 갈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받으면, 교회를 개척할 때 나타나는 여러 어려움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유기적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경험은 앞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유기적 교회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들을 충실하게 지키며 가정 교회를 시행하는 곳이 드문 것이 현실이다. 다만 최소한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 몇 가지만 이라고 충실하게 지켜지는 교회를 만나게 된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전통적인 교회에 접목하는 유기적 교회

앞서 다룬 것과 같이 Vineyard House Church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전통적인 교회가 유기적 교회로 전환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도, 교회 개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현실을 돌파하며 유기적 교회를 실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핵심 원리를 볼 때 전통적인 교회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들어놓을 수밖에 없는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은

더욱 이루기 힘든 과제이다. 그만큼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은 그 충격이 크고, 실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는 큰 도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전통적인 교회가 유기적 교회로 전환할 때 대안적인 방법은 이러한 충격을 다소 완화하는 ‘접붙이기 방법’이다.

교회 안에 유기적 교회를 접붙이는 방법은 기존의 교회를 그대로 두고, 교회 내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다소 큰 새롭게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젊은 청년들 혹은 젊은 부부 그룹들을 유기적 교회 모임으로 새롭게 만들어보는 방법이다. 이것은 교회가 당장 전체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를 준다. 늘 그렇지만, 전체적인 변화를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교회를 혼란과 위협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헌신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그룹들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닐 콜이 제시하는 LTG 그룹들을 교회 안에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이 LTG 그룹은 두세 사람으로 모이는 작은 그룹이므로, 교회 전체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들의 변화가 곧 교회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 면에서는 탁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상황에서도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 성경을 주어진 분량만큼 매주 읽고, 매주 만나서 그 분량을 확인하고,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과정을 통해 진솔하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모임들을 하게 된다면, 그 모임에 대한 기대가 공동체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렇게 확장되는 LTG 그룹들을 통해 교회 전체의 시스템을 유기적 교회로 끌고 갈 수 있다.

이 방법은 두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유기적 교회 본래의 개념을 충실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접붙이는 방법은 기존의 성도들에게 급격한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변화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없다. 그들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변화하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그대로 두고 아예 새로운 그룹들을 교회 안에 확장해 나가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를 통해 교회가 유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붙이기 방법은 기존의 해게모니를 쥐고 있던 성도들이 새로운 유기적 교회의 모임들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시

작되는 유기적 교회의 모임들은 기존의 성도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그 추구하는 핵심 원리들을 잘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이러한 얼리 어댑터(early adapter)들이 기존 교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다. 기존의 교회를 변화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고착화된 한국 교회의 실정에서 변화는 그리 반가운 일로 여겨지지 못한다. 그러나 교회 안에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그룹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기존 교회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상황 하에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다면, 교회 개혁의 가능성은 보다 가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유기적 모임들로 구성된 얼리 어댑터들은 교회를 보다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요청하게 될 것이다. 기존 성도들과 전혀 다른 유기적 교인들의 삶이 그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지지하는 방식으로 지속해서 교회 안에서 유기적 교회의 핵심원리를 따르는 영향력을 확장해 간다면, 적어도 그들의 반발에는 부딪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원래 유기적 교회가 추구하던 핵심원리들은 훼손되지 않고, 성도들 전체가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을 위해 하나의 운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상황을 펼쳐가면서 성장하게 되는 유기적 교회 모임들을 기존의 교회 조직으로 다시 첨가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구조는 그 가치를 담는 그릇인데, 과거의 구조에다가 새로운 가치로 탄생하는 모임들을 가두게 되면 결국에는 자생이 아닌 죽음밖에 남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유기적 교회 모임들은 네트워크 구조로 움직여야 한다. 네트워크 구조만이 유기적 교회를 실현하는 가장 적합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방위적 네트워크를 통해 유기적 교회 모임들을 연결하고, 기존의 교회 조직들에 복속시키거나 간섭받지 않도록, 자생하는 유기적 모임들을 계속 양산해나가는 방법이 교회를 전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교회가 이러한 전환을 시도함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어려움은 유기적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기존의 시스템으로 회귀하려는 유혹이 남아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과의 개척에서도 다루었던 것처럼, 교육과 경험을 충분하게 다루어 주어야만 한다. 자신들과 다른 유기적 교회에 대한 교육과 경험은 그들의 과거로 회귀하도록 하려는 욕구를 일단 단절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회의 실현은 리더인 목회자 자신의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목회자가 먼저 성직자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지도자의 자질 문제였다. 교회의 담임 목사와 부목사들, 그리고 장로들과 같은 지도자들의 자질이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서 교회를 교회답게 이끌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4장에서 인터뷰했던 페리스나 가일스, 이남하처럼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스스로 유기적 교회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과 소명을 가질 필요가 있고, 구 시스템에서의 목회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목회자 없이 움직이는 유기적 교회 모임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계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마음과 결단,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삶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교회 지도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이다. 그들이 먼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신들 스스로 엘리 이딴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단과 움직임들이 결국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의 적용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기적 교회를 실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개척을 통해서이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교회에 유기적 교회를 접붙이는 방법이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 두 가지의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동일하게 고민해만 하는 것은,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들이 가장 잘 실현되고 드러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들을 분석하고 분류하면서, 적용할 때 어떤 것을 먼저 적용하고, 어떤 것을 그보다 나중에 다루어야 할지를 파악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기적 교회의 핵심원리는 모두 여덟 가지이지만, 크게 보면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교회 본질에 관한 이론적 개념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이것들을 실천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에 대한 것이다. 즉 이론과 실천이라는 큰 두 개의 그림이 전체적인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를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본 연구에서 다룬 유기

적 교회 핵심 원리 #1~4까지는 첫 번째 범주에 해당한다. 즉, 성직자 중심과 건물 중심을 벗어난,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의 통제권이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서로가 평등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바로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 본질에 관한 언급이면서, 동시에 실천적 핵심 원리들인 다음의 #5~8까지의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들을 파생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5~8까지의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는 서로가 은사를 따라 기능적으로 움직이며, 작고 친밀하며 단순한 구조를 가지면서, 유기체로서의 자연스러운 증식을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 구조로 발전되는 교회를 의미한다. 이것들은 유기적 교회가 앞의 네 가지 첫 번째 범주에 속한 원리들을 잘 지켜나갈 때 나타나는 결과물들과도 같은 것들이다. 물론 이 하나하나가 모두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들로서 손색이 없는 것이다. 전통적인 제도권 교회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현상들이기도 하고, 교회가 유기적인 원리들을 따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1~4에 해당하는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의 실행 없이 부차적인 핵심원리들만으로는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라고 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대적 움직임인 포스트모던에 발맞추지 못한 채 고착화된 한국 교회라는 상황에서 교회 회복을 위해 핵심 원리들을 제시하려면, 먼저 앞의 네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동시에 뒤의 네 가지 핵심 원리들이 자연스럽게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가. 선행되는 핵심 원리의 적용

유기적 교회를 실현하는 방법은 개척과 접목을 통해서이지만, 그 원리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모양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교회 전체의 변화를 시도하는 일이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시도이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과 모양만이 탄생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적용되는 과정이나 유형을 확정하기보다는 보다 유연한 결과물을 창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더 낫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유연한 결과물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 #1~4를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잘 적용하면 네 가

지 유형의 교회가 탄생한다. 바로 평신도 주도형 교회, 건물 없는 흩어지는 교회, 통제 없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 교회이다.

(1) 평신도 주도형 교회

유기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 #1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직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의 평신도 주도형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 실례로 언급했던 가정 교회들 대부분 이러한 평신도 주도형 교회를 표방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 교회가 목회자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패러다임을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교회가 목회자 의존도를 줄이는 이 첫 번째 핵심 원리에 관한 문제는 유기적 교회를 얼마나 실현 가능한 것으로 옮겨오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 교회만큼 목회자 의존도가 높은 교회는 없다. 지금까지의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대소사는 물론, 그들의 고민과 아픔과 실제적인 모든 문제를 낱낱이 알고 도움을 주어야 했다.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하면 좋은 목사라는 평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들 대부분이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되거나 바뀌게 되는 시점에서 몸살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정은, 그만큼 한국 교회가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교회의 비전과 소명이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 그 자체의 비전 즉, 성도 모두의 비전과 소명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목회자 한 사람의 비전과 소명은 개인의 욕망의 투영일 위험성이 존재한다. 사실 수많은 한국 교회가 목회자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는 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평신도 주도형의 교회는 교회의 비전과 소명을 평신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회를 말한다. 이것은 한 사람에 의해 주도되는 교회가 아니다. 평신도 모두의 비전과 소명이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교회이다.

이러한 목회자 중심을 탈피하여 평신도 주도형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는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 #3에서 다루었던 그리스도 중심성을 회복하는 교회를 실현한다. 즉, 이것은 교회를 몇 사람의 리더십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관계에서, 오직 그리스도 아래에서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고, 이것

이 평신도 주도형 교회라는 말이다. 따라서 유기적 교회를 개척하거나 집목하기 위해 새롭게 모임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평신도 주도형 교회의 구체적인 실현 여부이다. 유기적 교회는 결국 각각의 유기체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유지되고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신도들이 이러한 평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나가면 유기적 교회의 실현은 좀 더 가능성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목회자나 어떤 한 개인에게 의존되는 경향을 보이면 그 모임은 유기체로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평신도 주도형 교회를 이루는 데 필요한 조건은,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 #5에 해당하는 기능적 사고방식으로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 #1~4가 완전히 구현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평신도 주도형 교회를 추구하려면 실제로 이 기능적 사고방식으로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평신도 주도형 교회는 이 기능적 사고방식으로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2) 건물 없이 모이고 흠어지는 교회

교회는 모임의 실체를 건물로 대변할 수 없다. 그 교회당 건물이 교회라는 인식은 곧 교회를 죽은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들의 모임이고, 에클레시아이다. 따라서 교회는 건물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이고 흠어지는 유기체들의 모임이다. 여기에서 모이고 흠어진다는 뜻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 함께 죄를 고백하기 위해,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다는 뜻이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흠어진다는 뜻이다.

교회에 있어서 이 모이고 흠어진다는 말은 중요하다. 모인다는 것과 흠어진다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함께 모임 때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 아래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

하는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것은 초대 교회 이후 모든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사람들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장으로 떠나도록 부추겼다.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모이고 흠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 #2에서 살펴보았던 건물 중심의 페러다임을 극복하는 길이다. 건물 중심의 페러다임은 모이도록 하기는 하지만, 실상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모이도록 하고, 건물을 채우기 위해 모이도록 하는 그 목적만을 위해 달려가도록 부추긴다. 지금 한국 실정만 보아도 이러한 건물 중심의 페러다임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3년만 해도 부리하게 지은 종교기관의 대형 건물들이 경매 물품으로 나온 경우가 391건으로 예년보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⁴²⁶⁾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교회에서 건물은 그다지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유기적 교회의 모임을 시작할 때 건물은 단지 함께 모이는 공간의 역할만 하면 그만이다. 건물이 아니라 공원이나 비치나 주차장이 함께 모이는 장소가 되어도 상관없다. 모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꼭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는 생각은 유기적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들이 모여야 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이디서든 유기적 교회의 모임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유기적 교회의 모임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이고 또 흠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교회로 인해 세상이 변할 것이고, 그 교회로 인해 세상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이 드리날 것이며, 이러한 유기적 교회들을 통해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

(3) 통제 없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참된 자유(고후 3:17)와 평안(요 14:27)을 준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포스트모던 사회도 개인의 자유와 평안의 권리를 중요하게 인식한다. 따라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426)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515160912131.daum>

유기적 교회 역시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난 시대 한국 교회들은 교단의 조직적 운영, 신도들의 동원, 의례 구성 등에서 종교적 해게모니를 잡고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했었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 내의 통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역에서도 통제를 서슴없이 발휘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아무도 그러한 권한을 허락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라는 종교적 해게모니를 무기로 하여 사회를 통제해 왔던 것이다.

통제 없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는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 #3을 실현하는 교회이다. 이것은 커버링을 버리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 속에서 교회와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어가는 시도이다. 우리는 통제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 해야 할 사람들이다. 누군가 우리를 통제해야 한다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한국 교회는 이 통제의 문제에서 분명한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 교회가 교회를, 그리고 교회가 사회를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교회가 이러한 통제를 할수록 드러나는 것은 목회자와 교단 지도자들의 욕망뿐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벗어버리면,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분이 교회의 진부이고, 교회의 출발점이며,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신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따라서 유기적 교회 모임은 스스로 통제하려는 인간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함께 모이는 그룹을 작게 만드는(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 #6) 이유는, 유기적 교회의 모임이 통제하려는 유혹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많으면 통제할 수밖에 없고, 통제하려는 유혹도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작은 것보다 큰 그룹을 선호한다. 커야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커지면 커질수록 통제와 권력에 대한 유혹도 동일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 교회에서 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기적 교회의 모임 중심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함께 경험하는 일이다. 모임의 중심에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깨닫는 그 일이 유기적 교회 모임의 지속여부에 가장 중요한 이유이며, 유기적 교회가 배가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기적 교회는 작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리스도 중심성

을 따라 자유롭게 내버려두어야 한다. 그럴 때 자유롭게 확장되는 네트워크로 발전될 가능성이 생겨난다. 통제가 아니라 자유를 통해 서로서로를 세워주는 유기적 네트워크가 모든 방향에서 생성되고 때로는 소멸하는 것으로 생명력 있는 유기적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4)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 교회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 #4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인 유기적 교회 모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그 모델로 한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고 계시는 그림은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마 22:34-40; 막 12:28-34; 눅 10:25-28)을 통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즉, 교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며, 이러한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 서로 돌봄과 서로 책임을 지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지만, 김세운은 한국교회가 구원을 법정적 개념으로만 해석하고 받아들이려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것은 성화의 단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구원은 관계적인 면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이 관계적인 면이 바로 이웃 사랑, 서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⁴²⁷⁾ 그러나 한국교회는 법정적 개념의 구원만을 강조하다가 구조적인 고착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나님 사랑은 있으나 이웃 사랑이 없는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다.

유기적 교회 모임은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기에 가장 좋은 장이다. 구조적으로 작고 단순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소외되거나 제외될 수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온전한 연합은 큰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에서 더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작고 단순한 유기적 교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게 한다.

프랭크 바이올라가 자연스러운 유기체로서의 증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영향력의 증식을 강조한 것(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 #7)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

427) <http://www.newsnjoy.us/news/articleView.html?idxno=3500>.

량의 영향력이 세상에 더 확장되어 가야만 한다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그것은 교회의 필요성과도 결부된다.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기능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 사랑을 이루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마 5:13-16; 막 9:50; 눅 14:34-35)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유기적 교회는 이 땅에 부름을 받은 교회가 본질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이루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모임을 지향한다. 즉, 하나님 사랑을 통해 변화된 개개인들이 함께 모여, 작은 공동체로서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하며,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바로 유기적 교회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적 교회의 모임은 가능한 한 작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하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경험과 확신 속에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나. 후속적인 핵심 원리의 적용

선행되는 핵심 원리가 유기적 교회 모임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결과물이 바로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 #5~8이다. 그리고 이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 #5~8을 잘 적용하면, 그 나타나는 결과물이 바로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교회, 작고 단순한 구조의 교회, 자연스러운 증식을 추구하는 교회, 네트워크로 하나가 되는 교회이다.

(1)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교회

앞서 살펴보았지만, 지난 세기 한국 교회는 물량주의를 선호했고, 이를 위해 목회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가장 효과적인 교회의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성공하는 교회들은 이러한 지나친 물량주의와 프로그램에 앞장서는 교회들이었고, 그나마 살아남는 중소형의 교회들 역시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물량주의와 프로그램의 타성을 경계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그것에 동조해왔었다. 소수

이러한 가치에 맞서 싸운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영향력이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⁴²⁸⁾ 즉, 오늘날 교회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된 데에 이 물량주의와 프로그램 중심이 한 몫을 담당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전통적인 교회가 구조와 틀을 따라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기적 교회의 모임들은 사람들이 은사를 따라 움직인다. 이것은 작은 규모의 단순한 구조의 교회가 그 사역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역할을 당연히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기 때문이고, 또 그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섬기지 않으면 교회가 움직여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누구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회자 한 사람에게 의존되는 것이 위험이 되는 것만큼, 유기적 교회를 지향하는 모임들에서 성도 한 사람에게 의존되는 것 또한 위험하다. 따라서 유기적 교회의 모임은 각자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 안에서 섬겨야 하는 일들을 찾으며,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함께 의논하고, 그 실행의 과정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자라가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영혼에 대한 공훈의 마음과 구제하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 있다면, 전도나 구제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교회 전체를 통해 이를 검증받으며, 함께 이 사역을 진행할 방법을 찾아 유기적 교회 모임을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모임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때 이 사역에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 역시 각자의 은사를 따라 배치할 수 있다. 하나의 사역을 통해 은사를 따라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성도들을 자연스럽게 배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교회의 장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통적인 교회가 건물과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을 동원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각자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교회는 건물과 조직이 아닌 교회의 사역과 그 내용을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을 가진다. 따라서 원래 존재했던 구조를 굳이 고수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의 성향과 사역의 내용에 따라 각자가 섬길 수 있는 모양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꼭 예전에 했던 그 일이 내 몫이 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유기적 교회가 은사를 따라 사역할 때 사역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유동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적인 예로 들었던 Vineyard House Church는 그것을 분명히 잘 보여준다.

⁴²⁸⁾ 이혁배, *한국 기독교 윤리 쟁점*, 28.

그들에게 갑자기 일어난 홍수와 같은 재난은 교회가 특별한 사역을 시행할 때 각자의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따라 각자 섬길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새로운 구조로 교회의 사역을 섬기도록 만들었다. 유동적인 구조를 가지고 은사를 따라 교회의 사역들을 이루어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목회자 한 사람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앞장설 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교회는 구조에서 유연한 모습을 취하기 때문에, 각자의 은사를 따라 사역의 내용에서 최적화된 사람들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즉, 앞서 언급한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 #1~4를 구체적으로 실현한다면,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유기적 교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2) 작고 단순한 구조의 교회

지금껏 작고 단순한 구조의 유기적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한국 교회가 선택할 수 없는 심각한 이야기였다. 교회를 하려면 당연히 건물이 있어야 하고,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성직자와 교회의 경배를 충당하기 위해 더 크게 확장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한국 교회가 작고 단순한 구조의 유기적 교회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장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이와 같은 작은 교회 운동들은 새로운 대안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이다.⁴²⁹⁾ 즉, 건강한 작은 교회, 건물 없는 교회, 교회의 분립개척과 같은 방법으로 작은 교회를 확산하고 양산하자는 분위기가 점차 한국사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⁴³⁰⁾

성직자 중심을 벗어나(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 #1) 건물 없이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 #2)는 그리스도 중심(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 #3)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성(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 #4)을 드러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작고 단순한 구조의 교회(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 #6)를 지향하게 되어 있다. 즉, 가족의 공동체성은 대규모의 모임에서는 일어날 수 없고, 작게 단순한 구조 속에서 가능한 일이므로, 이 가족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그리스도 중심성을 경험하기에

429)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7736> 참고.

430)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85687>

최적화된 구조가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유기적 교회의 모임은 반드시 작은 규모의 모임을 지향한다. 또, 이같이 작은 규모의 모임들이 연쇄적으로 반응하여 나타날 때 그러한 현상을 유기체의 자연스러운 증식(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 #7)이라고 부른다.

작고 단순한 구조는 파급 효과가 즉시 드러난다. 모임의 구성원이 만일 널 꼴의 제안처럼 3명을 기초로 한다면, 각자가 삶을 나누고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그들이 변화를 추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단시간에 결정된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많으면 그 모임은 변화의 추구하고 관계없이 계속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쪽으로만 유지되기에 급급하게 된다. 오늘날 교회 모임들의 대부분이 이와 같다.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기를 좋아하고, 이것으로 각자의 개인적인 고백은 숨기고, 삶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군중 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신앙하는 삶을 그저 흉내 내려고만 하는 것이다. 많은 한국 교회에 이러한 교인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유기적 교회의 모임은 일단 작고 단순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 모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삶을 나누지 않을 수 없고, 각자의 삶을 서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도록 견인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그 반응 역시 빠른 시일 안에 드러나게 된다.

이처럼 작고 단순한 구조의 유기적 교회의 모임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에, 목회자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사실 그런 작고 단순한 모임들에 목회자가 주도권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런 작고 단순한 모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목회자가 주도하는 구조는 오히려 방해만 된다. 그 대신, 네트워크 구조(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 #8)가 유일한 대안이 된다. 즉, 이 말은 이미 유기적 교회가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 #1~4를 따라 탄생되면, 그 구조는 작고 단순하면서도 올 채널 네트워크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기적 교회가 작고 단순하다는 것은 구조적인 방향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모임의 내용과 그 결과까지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3) 자연스러운 증식이 나타나는 교회

유기적 교회의 모임이 자연스러운 증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 내용이 유기적 교

회의 핵심 원리에 보다 충실하기 때문이다. 즉,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는 유기적 교회가 증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면서 동시에 동기부여가 된다는 뜻이다.

자연스러운 증식은 맛 좋은 식당을 소개하는 것과 같다. 맛 좋은 메뉴가 있는 식당은 입소문을 타고 번지며, 사람들을 줄을 서게 된다. 이처럼, 유기적 교회도 핵심 원리를 따라 그 맛과 향이 드러나면 교회의 증식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Mission House Church는 교회를 알리기 위해 광고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았지만, 그저 자신들이 경험한 공동체의 경험들을 통해 입소문만으로 사람들이 모였고, 개척 이후 이제는 20여 명의 사람이 함께 모이고 있다. 한국과 이민 사회에서 시도되고 있는 유기적 교회의 사례들 역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들이 사용하는 대규모 물량 공세가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유기적 교회는 그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한 물량 공세의 방법은 고려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그냥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 #1~4만 경험되어져도 사람들은 이러한 교회를 궁금하게 여길 것이고, 그런 교회를 열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한국 교회는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좋은 맛으로 건물이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었다. 그들의 전인적인 변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제 몸집 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믿었지, 공동체의 경험을 통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내세울 것이 그저 프로그램이나 건물 혹은 교회 점심메뉴 같은 것들뿐이었다.

닐 콜은 유기적 교회의 증식은 그 그룹의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의 경험에 달려있다고 설명한다. 즉, 사람들이 이 유기적 교회의 모임을 통해 개인적인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교회의 모임으로 끌어들여 게 된다는 것이다. 먼저 맛을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끌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처럼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지향을 낳기도 하지만, 때로는 동조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도록 만들기도 한다.

한국 교회 초기 역사에서 교회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초창기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변화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사람의 변화가 없는 교회의 성장은 독이 될 뿐이다. 그것은 결국 교회가 물량주의, 성공 지향주의로 변질하도록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 바울의 변화가 지중해 전역에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였던 것처럼, 변화는 유기적 교회의 원동력이며, 유기적 교회가 증식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변화를 위해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은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 #1~4가 얼마나 교회 안에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길만이 교회의 변화를 추구하고, 확대되는 증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4) 네트워크로 하나가 되는 교회

유기적 교회 모임은 새로운 구조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가 가진 구조로는 유기적 교회의 모임들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구조는 모임의 내용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교회의 개념에서 시작된 유기적 교회는 당연히 전통적인 구조 안에서는 유지될 수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

네트워크로 하나가 되는 교회는 유기적 교회 핵심 원리 #8을 반영한다. 이것은 프랙탈 디자인으로 배가되는 유기적 교회의 모임이 반드시 전방위적 네트워크인 버키 볼의 모양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고, 또 그런 구조로 나아가지 않으면 유기적 교회로 유지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즉, 그 특성상 유기적 교회는 초복잡한 연결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확장되는 네트워크의 버키 볼 구조밖에는 없다는 뜻이다.

유기적 교회는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동일한 비율의 구심점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명의 단순한 구조가 유기적 교회 모임의 기본 구조라면, 30명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룰 때 최소 10개의 구심점이 나타날 것이고, 300명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면 최소 100개의 구심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통적인 교회 같으면 이러한 구심점마다 리더를 세우고, 이 전체를 관리하는 목회자

를 두고, 그 위에 또 당회를 두는 식의 상명하복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유기적 교회의 구조는 이들을 정형화하지 않는 평등한 관계의 네트워크 구조로 가져간다. 그것이 자발적으로 자생하는 그룹을 생산하려는 유기적 교회 모임의 기본 전략이자 구조이기 때문이고, 유기적 교회가 자발적으로 확장되는 유일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장했던 한국 교회들이 전통적인 상명하복의 이러한 구조를 따랐었다. 심지어 교회 구조를 벗어난 파라처치(para-church)들에 속하는 대학생 선교단체들도 이러한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었다. 가장 유기적 네트워크 구조에 가까웠고, 시대적인 변화에 잘 적응하는 구조를 가졌던 파라처치들이 전통적인 구조를 추구하다가 스스로 자멸해버린 모습은 구조가 곧 모임의 내용을 지배한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준다.⁴³¹⁾

유기적 교회의 모임은 네트워크 구조로 가야만 한다. 그럴 때 서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다. 즉, 서로의 삶에 변화를 꾸준히 일으키기 위해서는 리더 한 사람이 주도하는 구조로는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상호교류와 실천을 통해 서로의 삶에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가야만 교회의 모임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상육신적이며 선교적인 전략들을 이루어내면서 배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닐 콜은 자신의 유기적 교회의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로까지 확장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언급한다.⁴³²⁾ 그리고 한 지역에 두 개의 유기적 교회가 서로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례도 언급한다.⁴³³⁾ 이것은 유기적 교회의 네트워크가 무한 확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예들이다. 또, 전통적인 교회와 같이 모든 구성원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것만 같은 고정관념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들이기도 하다.

431)

http://www.duranno.com/moksin/detail.asp?CTS_YER=2003&CTS_MON=2&CTS_ID=12791&CTS_CTG_COD=0 참고.

432) Niel Cole, *오가닉 처치*, 64.

433) Niel Cole, *오가닉 처치*, 67-69.

제 6 장

결 론

본 논문은 교회가 이 시대에 부합되지 못하고 도태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한 직시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본 연구자의 생각에 교회란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그다지 시대를 읽는 능력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상당히 많이 벗어난 행태로 가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교회가 모델로 삼고 회복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교회론과 성경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유기적 교회는 바로 이러한 포스트모던 사회에서의 교회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서를 통해 만들어가고자 하셨던 그 교회, 그것을 회복하고 성경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교회가 바로 유기적 교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유기적 교회가 무엇인지, 왜 이 교회를 유기적 교회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 또 이 유기적 교회가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원리는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제 1 절 연구의 요약

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에 관해 밝히면서, 교회가 지금과 같이 프로그램과 조직, 그리고 행사들에 의지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결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현실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모델이 결국 유기적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2장에서는 유기적 교회가 실현되어야 할 장인 현실의 교회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는 포스트모던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회가 취하고 있는 고착화 현상에 관해 알아보는 것이었다. 지금 교회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곧 교회의 구조와 형태를 결정짓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 교회들의 구조와 형태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드러냈다. 즉, 이 시대의 사회는 관계 중심적이고, 진실성에 더 큰 가치를 두며, 체험을 중시하고, 신비와 여정을 추구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반대의 길인 고착화의 방향으로 교회들이 가고 있다는 것을 그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고립과 고착화이고, 이를 통해 교회가 점점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도태되고, 그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과 전도의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3장에서는 이러한 교회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원형의 모습인 유기적 교회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교회 유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원래 성서가 말하는 교회의 개념에 충실한 그런 교회를 말한다. 따라서 유기적 교회는 예수님의 DNA를 따라 움직여 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밝혔다. 즉, 모든 생명체가 그 DNA를 따라 각각의 모습으로 성장하듯, 유기적 교회야말로 예수님의 생명력(DNA)을 그대로 닮고, 또 그 생명력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생명력은 유기적 교회에 놀라운 특성들을 남겼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것이 바로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 여덟 가지라고 제시하였다. 이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성직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깨뜨리다.
2. 건물 중심의 패러다임을 벗어났다.
3. 교회의 모든 통제권을 그리스도께 드리다.
4.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다.
5. 기능적 사고방식으로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한다.

6. 작고 단순하며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다.
7. 유기체의 자연스러운 증식을 이루다.
8. 하나의 교회, 네트워크로 발전하다.

이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 여덟 가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고유한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들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유기적 교회의 여덟 가지의 핵심 원리는 교회들에 교회의 개념 자체를 바꾸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방식까지도 바꿀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유기적 교회는 그 개념에서 교회의 모든 행동하고 운영하는 방식까지 완전히 변화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

4장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따라 유기적 교회를 실제로 시행하는 사례들로, The Mission House Church와 Vineyard House Church, 그리고 한국과 이민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기적 교회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와 이들 교회와의 상관관계를 비교 정리하고 평가하였다. 본 장에서 이들 교회를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를 따라 비교하여 평가함으로써 얻게 된 사실은, 개척과 전환이라는 두 사례를 통해 유기적 교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유기적 교회의 실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게 된 사실이다.

5장은 바로, 4장의 연구를 통해 나타난 그 결과를 한국적 상황과 한국 교회의 실정에 집목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두 가지 방법이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는데, 바로 개척과 접붙이는 방법이다. 유기적 교회를 본질적인 개념의 흐트러짐 없이 이를 방법은 오직 개척밖에 없다. 다만, 이 개척의 방향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개척과 믿는 사람들과의 개척이다. 이 두 방법 모두 동의하는 바는, 유기적 교회의 실현에 개척만한 방법은 없다는 점이며,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되어 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자각 속에서, 접붙이는 방법이 전통적인 교회를 유기적 교회로 전환하는 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접붙이는 방법만

이 전통적인 교회가 그 충격을 완화하고 기존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 가운데, 유기적 교회로 전환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본 장에서는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를 두 범주로 나누어 선행되는 핵심 원리와 부차적인 핵심 원리로 나누었다. 그 이유는 개척과 집붙이기라는 서로 다른 상황적인 문제와 함께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대안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기적 교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핵심 원리도 우선순위를 따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척과 집붙이는 방법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유형의 교회를 여덟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들이다.

- 첫째, 평신도 주도형 교회
- 둘째, 건물 없이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 셋째, 통제 없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 넷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 교회
- 다섯째,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교회
- 여섯째, 작고 단순한 구조의 교회
- 일곱째, 자연스러운 증식이 나타나는 교회
- 여덟째, 네트워크로 하나가 되는 교회

이러한 여덟 가지는 유기적 교회가 실현될 때 나타나는 유형들이지만, 유기적 교회가 단지 이러한 모습에만 국한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알아야한다. 유기적 교회는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고, 다양한 환경을 통해 자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기적 교회는 그 핵심 원리를 따라 교회의 자생적인 환경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자생한 교회들을 유기적 교회라 부를 수 있으려면 우선, 앞의 네 가지 핵심 원리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네 가지는 교회의 개념과 본질 그 자체를 결정하는 원리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약간의 합리적인 합의는 도출될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들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지켜지느냐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뒤의 네 가지 핵심 원리들이 자연

스럽게 발생되고 나타난다면, 그런 교회를 우리는 유기적 교회로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없으리라 판단된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과제

본 연구의 목표는 유기적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유기적 교회를 실현하려는 방법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에 있었다. 먼저는 유기적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 여덟 가지를 정리하였고, 이것들을 통해 유기적 교회의 실체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기적 교회의 실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실제적인 현장 조사를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의의는 포스트모던과 교회의 고착화 현실을 다름으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짚어냈다는 점이다. 과거의 신학 관점에서 이루어진 포스트모던에 대한 연구들 대부분은 그것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한다. 즉, 오늘날 이 시대는 바르지 못하고 포스트모던은 그러한 기형적인 산물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포스트모던 사회에 대한 이해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 집착점을 찾을 것인지를 살폈고, 실제로 관계 중심적, 진실성, 체험을 중시, 신비와 여정을 추구, 다양성이 포스트모던의 긍정적인 특성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가진 포스트모던 세대들을 오늘날 교회들이 이해한다면, 이를 통해 교회가 세상과 바르게 소통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의의는 지금까지의 교회 개혁들은 기존의 구조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유기적 교회는 그 구조를 포함한 내용 모두에 대한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즉, 보다 전면적이고 온전한 의미의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의 환골탈태를 추구하고 있다.

지금껏 교회는 다양한 나라와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몸집을 불리면서 성장하는 것만을 지향하여 왔고, 그것만이 교회의 유일한 목표라고 단정 지어왔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들이 있기는 했지만, 건강한 교회 역시 성장지향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못했다. 물론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하고, 건물이 더 커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교회는 시대를 대변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 시대에도 가치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곳이 교회라면, 그 교회는 더 섬기고 낮아지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대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상 한국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보다는 그들을 외면하는 자리로 나아갔고, 더 섬기고 낮아지기보다는 더 높게, 더 많은 권력을 지향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진리가 살아 역사해야 하는 곳이 교회인데, 사회적으로도 통용될 수 없는 위법과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서, 교회의 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며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교회의 문제가 바로 구조적인 문제이며, 동시에 교회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에서 본 논문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결국 교회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모습을 되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기적 교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 본 연구의 의의는, 아직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던 유기적 교회론을 여덟 가지 핵심 원리로 정리하고 재시하였다는 점이다. 두 사람, 프랭크 바이올라와 닐 쿨의 유기적 교회에 대한 이론은 서로 다른 점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이론을 하나로 묶는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했고,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정리된 이 여덟 가지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는 이들이 주장하는 유기적 교회에 제대로 부합하면서, 동시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들이다.

모든 사람은 다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교회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길 희망한다. 그러나 방향은 있되, 내용은 그 방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즉, 좋은 교회,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를 희망하면서도, 어떻게 나아갈지 그 내용을 찾지 못해 결국 모든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교회가 유기체라는 사실은 알지만, 유기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초대 교회가 그런 유기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움직여왔는지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유기적 교회의 실체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이 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 여덟 가지는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유기적 교회를 깊이 이해하면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에 있다. 교육, 문화, 경제, 사회, 정치, 종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현실은 고착화로 얼룩져 있다. 한국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더는 추구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속에 자신을 가두어 두고 있고,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대응할 수 없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어쩌면, 지금의 한국 교회는 '예수결핍장애'를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⁴³⁴⁾

유기적 교회는 이러한 시대에 한국 교회가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모습을 제시한다. 이것은 보다 근본적인 교회 개혁, 교회다움을 회복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다만, 지금 남겨진 과제는, 한국적 상황에서 이러한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가 적용될 때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해 낼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 시급한 과제는 이러한 유기적 교회의 실행 사례를 통한 테이터를 확보하는 일이다. 이렇게 확보된 테이터는 유기적 교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이 가는 데 있어 불필요한 과정과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의 다양성만큼이나 유기적 교회의 적용은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물론, 그 결과물은 지금의 한국 교회가 가진 전통적인 교회의 구조와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수용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같은 운동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조직이 거의 무형에 가까운 전방위적 네트워크 구조를 추구한다면, 이를 발전시키는 것과 이상적인 방향을 설정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다행인 것은, 유기적 교회 자체가 이러한 통제와 설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그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을 4장의 한국과 이민 사회에 생겨난 유기적 교회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기적 교회는 이 시대의 다양성을 포용할 것이며, 새로운 대안들로서의 교회의 모델들을 끊임없이 제시할 것이다. 정형화된 틀이 존재하지 않는, 그리스도 중심의, 작고 단순하며, 유기적 속성을 따라 끊임없이 배가하는 이러한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그 영향력 더 확대하게 된다면, 적어도 지금 교회가 당면한 고착화의 문제나 부정적 이미지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분명

434) Leonard I. Sweet, and Frank Viola, *예수 선언*, 8.

히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즉, 신약성서가 말하는 이 유기적 교회가 이 땅에서 세워져 갈 때, 전통적인 교회들은 보다 본질적인 모습의 교회로 회복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교회와 성도로 세상에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부록 1

유기적 교회 사례 인터뷰 1.

인터뷰 대상 : Keith Giles(The Mission House Church)

인터뷰 날짜 : 2014년 11월 24일

인터뷰 장소 : Santa Ana, California

통역 : 황영실

Q1. 당신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A. 저는 본래 25년 전에 텍사스의 남침례교회에서 안수 받고 면허를 받은 목회자입니다. 캘리포니아로 이사한 후에 빈야드 계열의 교회에 출석하다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친구의 교회 개척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와 공회사역 전달 사역자로 일하다가 아내와 함께 또 다른 교회 개척에 대한 소명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든 헌금을 구제에 사용하는 교회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년 전 즈음에 그 교회를 떠나 Orange County에 있는 저희 가정과 다른 가정들에서 모이는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마케팅, 광고 분야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Q2. 당신의 교회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A. 저희 교회는 Orange County에 있는 The Mission House Church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는 일단의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며 다양한 교단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Q3. 당신은 보수적인 남침례교단을 배경으로 하는데, 어떻게 이런 가정 교회를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A. 내가 남침례교단에서 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결혼 후 아내와 함께 빈야드 교회를 섬겼는데, 이 교회는 중도적인 입장의 빈야드를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서 도와주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개척한 그 모든 것이 매우 재미있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후 하나님께서 아내와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신다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 개척을 도와준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런 전통적인 교회를 개척하라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교회의 모든 헌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가정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건지를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척을 도와주었던 그 친구 목사는 나의 이런 교회 개척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친구나 이전에 섬겼던 교회들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매우 외로웠습니다. 나에게 가장 괴로웠던 일은 개척을 도와주었던 그 친구 목사가 나의 개척을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나를 축복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척을 도와주었던 친구 목사에게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은 아무도 데려가지 않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교회를 사임하려고 하자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겨서 우리가 개척하려는 교회에 관해 소개하기는 했습니다. 그들 중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우리의 가정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그들 중에 한 가정과 한 명의 여자 성도가 우리의 가정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목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는 공식적인 광고나 웹사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우리 가족을 포함한 18~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작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클수록 좋지만, 가정 교회는 작을수록 더 좋습니다. 가장 적당한 인원은 15명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18명 정도 모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은 사실이지만, 난 교회의 리더가 아닙니다. 교회의 결정은 모두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 내가 말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Q4. 왜 당신은 유기적 교회를 당신의 블로그나 책을 통해 주장하십니까?

A. 유기적 교회가 신약에서 읽을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Q5. 당신이 생각하는 유기적 교회는 무엇입니까?(개인적으로 저는 유기적 교회는 또 다른 교회 갱신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에 관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A.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운영은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약성경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동등한 지체들로 그분의 리더십 아래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곳입니다.

Q6. 유기적 교회에 관한 핵심 이슈에서 Frank Viola와 Neil Cole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개인적으로 저는 이 두 사람의 유기적 교회에 관한 핵심 이슈의 가장 큰 차이는 Viola는 성직자와 건물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과 신자들의 공동체성이고, Cole은 불신자의 회심과 자연스러운 증식에 있다고 봅니다.)

A. 닐 콜과 프랭크 바이올라는 전략적인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이것은 서로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닐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증식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프랭크의 생각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랭크는 교회가 어떻게 행하는지(behavior)에 대해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이 두 분과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 기사를 제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Subversive interviews"라는 책을 출판하였는데 그 책에도 그 인터뷰 기사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maresources.org/index.php?q=article/organic-church_n-cole_f-viola

Q7. 닐 콜과 프랭크 바이올라 외 유기적 교회를 말하는 사람들이 또 없습니까?

A. 닐 콜과 프랭크 바이올라가 유기적 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

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http://house2housemagazine.com/>라는 곳을 방문해 보면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글을 기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유기적 교회에 관해 아주 많은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Q8. 닐 콜은 전통적인 교회가 유기적 교회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프랭크 바이올라는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A. 닐이 그것에 관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주 드문 경우에 한해서만 현실에서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간혹 전통적인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교회를 유기적 교회로 전환하고 싶다는 질문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전통적인 교회를 그만두고 유기적 교회를 시작할 것이라고 연락을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전통적인 교회가 유기적 교회로 전환하는 것은 아주 드물며 힘든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후자와 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전통적인 교회에서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을 시도한 두 교회의 목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Bill Faris라고 하는 목사는 저와 같이 빈야드 교회에 몸담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가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통적인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Bill은 여전히 자신의 교회에서 매 주일 설교하고 있고, 누군가가 질문이 있을 때 자신이 항상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교회는 유기적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랭크 바이올라의 생각에 유기적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고,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인데, Bill은 이 부분에서 유기적 교회의 특성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교회가 유기적 교회로 전환하려 할 때 목사 혼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구조상 전통적인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닐 콜은 전통적인 교회가 유기적 교회로 전환을 하려면, 전통적인 교회의 장례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장례식을 하면서 상징적으로 전통적인 교회의 개념들을 땅에 파묻는 행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축하하는 Baby Shower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닐 콜의 주장대로 시행한 사람들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매번 모임 때마다 예전의 방식들과 싸워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을 선택하고 취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우리의 가정 교회에서 목사인 내가 반드시 모든 모임에 함께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교회의 일원들에게 없애주기 위해서 찬양이 마침과 동시에 그 방을 떠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모텔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사역을 위해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 교회의 예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 교회가 나와 우리 가족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Q9. 프랭크 바이올라의 주장을 따르면 전통적인 교회와 유기적 교회의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교회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지금의 전통적인 교회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A.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유기적 교회로 가정 교회를 개척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지난 과거의 시간은 나를 그러한 교회 개척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만일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행복하다면 내 생각에 당신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반면, 전통적인 교회에서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유기적 교회의 시작에 관해 분명한 확신을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나는 상당히 많은 이메일과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사람들을 설득해서 유기적 교회를 시작해야 한다고 알리고 다니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10. 저는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가 8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만일 추가하거나 뺄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작고 단순하며 효과적인 교회에 대해 드릴 말씀은, 예수님이 그분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증식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장은 그분의 몫입니다. 교

회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성장시키도록 내어드릴 뿐입니다.

Q11. 당신이 생각하기에 유기적 교회를 실천하기 위한 대가지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대가지불은 없습니다. 시간과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지체가 필요합니다.

Q12. 유기적 교회는 지극히 서구적인 사고방식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까??

A. 물론 아닙니다. 유기적 교회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유기적 교회가 자라기에 불리한 상황인데 그 이유는 전통적인 교회 패턴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Q13. 유기적 교회는 성직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반대하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인 문제로, 성직자들의 생계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해결점을 제시할 것입니까?

A. 간단합니다. 성직자를 두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성직자가 없습니다. 대신 58회에 걸쳐 “서로(one another)”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Q14. 한국 교회의 목회자는 20살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목회자가 자신의 생계를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얻지 못한 채 유기적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희생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적 교회를 시작하려는 목회자가 자신의 생계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A. 그 부분이 제일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개척을 도왔던 그 빈야드 교회의 목회자 역시 이 부분으로 힘들어 했고, 나 역시도 가정 교회를 개척하고 직업을 갖기 위해 1년의 시간 동안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생했었습니다. 그 기간을 여러 가지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내 친구 목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나는

사역자가 된다는 것을 나의 직장이 당연히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의 24시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나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만약에 당신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져 주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지금 저는 광고 회사에서 Copyrighter로 일하고 있습니다.

Q15. 예를 들어 교역자가 목회직을 내려놓고 유기적 교회를 시도한다면 그 전환이 가능하겠습니까?

A. 만일 그렇게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이디어는 널 콜의 생각입니다. 널은 해변의 구조대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함께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가까이 가서 구명정을 던져주면서 그것을 붙들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생각에 목회자의 할 일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당신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널의 아이디어는 목회자가 성경에 대해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대해 질문을 해서 성도들이 어떻게든 성경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널의 그 아이디어가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도와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서로서로 돕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아이디어입니다.

Q16. 당신의 교회는 가정 교회 시스템을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 교회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까?

A. 우리의 동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여 모든 헌금이 구제에 사용되고 어떤 사람도 월급을 가져가지 않는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가정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17. 그렇다면 당신은 원래 유기적 교회 개념을 가지고 가정 교회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가정 교회를 하시다가 유기적 교회를 접하게 되신 건가요?

A. 먼저 가정 교회를 시작했고, 하다가 보니 나 자신이 추구하는 교회가 유기적 교회의 개념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Q18.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순서와 모임 장소, 모임 방법 등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먼저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가진 후에 함께 찬양과 간증, 격려의 말,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한 후에 성찬식에 모두가 동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Orange County 지역에 있는 교회 식구들의 가정에서 모입니다. 대개 번갈아가며 집을 오픈하지만 대부분 저희 가정에서 모입니다. 저희의 예배는 예수님이 “관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임과 삶 속에서 주도권을 가지시도록 내어드리려고 애씁니다.

Q19. 당신의 교회의 예배는 널 콜의 LTG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통독의 점검, 죄의 고백, 기도와 비슷한 방식입니까?

A. 우리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미리 읽어 오라고 분량에 관해서 사전에 정해주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만나서 먼저 각자가 싸운 음식(팻 렉)을 먹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장소를 거실로 옮겨서 함께 모여 정배의 찬양을 합니다. 이때 누구든지 찬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는 리더가 없습니다. 각자 고백하고 싶은 찬양을 시작하면 함께 찬양하고, 정한 사람 없이 대표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정해진 시간 없이 누군가가 읽고 싶은 말씀(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을 읽습니다. 자유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간증하고 찬양합니다.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대략 2시간 정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LTG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다 기본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정해진 순서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정 교회를 15명으로 제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작은 그룹에서 죄의 고백이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Q20. 당신의 교회는 어떻게 전도를 하나요?

A. 한 달에 한 번 모텔에서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때 음식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전통적인 두 교회가 이 사역에 함께 연합해서 모텔의 주차장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멤버 가운데 어떤 이는 자신의 하우스 단지에서 독립 기념일에 팬케이크를 돌리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 중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한 가정어 접촉되었는데, 그렇게 접촉된 사람들을 잘 도와주며 전도하였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우리 교회 지체들과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멤버는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한 한국인 자매는 일바인(Irvine)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커피와 차 그리고 예수님'라는 모임을 기획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기도 해서 마가복음을 다 함께 통독을 했습니다. 나와 나의 아내도 그 모임에 초대되어 갔었는데,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무슬림도 있었습니다. 다 함께 성경을 읽고 난 후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내가 개척하던 첫 날에 기도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Q21. 지금 당신의 교회가 유기적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 실례는 무엇입니까?

A. 물론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이 주도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무도 음식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이 말씀하는 바처럼, 누구든 나눌 것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멤버들이 함께 추구해야 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지만, 유기적 교회는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도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함께 모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Q22. 당신의 교회에 한국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동기로 당신의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입니까?

A. 한 분은 여기 Orange County에서 사시며 직장도 이곳에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저희 교회 멤버의 친구인데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앞의 분이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나는 성경을 함께 읽는 시간에 잠깐 밖에 빠져나왔다가 30분 후 즈음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우리의 가정 교회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회중이 목사님에게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23. 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됩니까? 당신이 속해 있는 네트워크로 설명해 주십시오.

A. Orange County 지역에 있는 다른 가정 교회들과 더불어 유연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님께서 연결시켜주신 분들입니다.

Q24. 전통적인 한국 교회(이민 한인 교회)가 유기적 교회로 전환하는 것에 관해 적절한 조언을 해주십시오.

A. 그리스도인이 되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신의 삶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를 원하는 교회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가 먼저 죽고 모든 옛 사고와 행동방식, 예매, 모임이 무덤에 묻은 후에야 마침내 모든 멤버가 예수님과 서로를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자신들의 리더와 목회자로 삼는 동등한 지체들의 모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Q25. 한국 교회는 셀이나 가정 교회조차도 전통적인 교회 구조 안에 들어와 버리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기적 교회의 적용이 가능할까요?

A. 예전에 셀 교회를 하던 한국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셀 교회와 가정 교회의 개념을 잘 모르고 전통적인 교회의 개념 속에서 셀 교회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셀은 증식으로 더 많은 셀을 만드는 것

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가 셀 교회나 다른 방식을 접목한 그런 교회와는 다른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은행 계좌도 없고, 단지 몇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일 뿐입니다.

Q26. 한국 교회 목회자인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배운 것은,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모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분명히 유기적 교회를 보여주듯,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시거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누어줄 것이 없으면, 그건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머리라고 생각하는 그것 역시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날이 오는 것도, 그것은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이나 실패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동안은 성도들이 기존 교회를 다니면서 목요일 밤에 모였었습니다. 그때 나는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가정 교회가 더 낫다는 것을 선택하고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다 함께 채택하기까지 1년 반이 걸렸었습니다. 어느 날 마약 중독자들을 갱신하는 학교 졸업식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번 하는 졸업식이었는데, 난 그때 강사로 초대되어 갔었습니다. 그때 주차장이 가득 차고 사람들이 몇 백 명이 모여 있어서, 나는 졸업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 졸업생은 단 두 명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마약중독 졸업식을 위해 수백 명이 모여왔던 것입니다. 그 졸업식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교회 모임을 준비하는데, 단 두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때 나는 매우 실망했었습니다. 가정 교회가 안 되는가보다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낙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낮에 경험했던 그 일을 통해 두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 다섯 사람이 더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니까 숫자를 생각하지 않았으

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유기적 교회를 당신이 시작한다면, 이러한 유기적 교회를 하시는 분들과 연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도 시작할 때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혼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당신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Q27. 마지막으로 유기적 교회가 지닌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예수님에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나의 대답입니다.

부록 1

유기적 교회 사례 인터뷰 2.

인터뷰 대상 : William T. Bill Faris(Vineyard House Church)

인터뷰 날짜 : 2014년 12월 6일

인터뷰 장소 : Tustin, California

통역 : 황영실

Q1. 당신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A. 나는 Arizona에서 태어났고, 가톨릭교회의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15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 너무나 헌신 된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복음을 이해하고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때 만난 'Jesus People'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은 전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은 교단 배경이 전혀 없는 운동이었습니다. 대신 이들은 교회나 교단의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운동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아니라 허락되는 가정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한 모임에 나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항상 출석하는 사람은 30-40명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없으니 오히려 가정에서 모이고 거리에서 노방 전도하는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조직적이지 않은, 질서가 없는 모임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난 1년 반 정도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라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즈음에 이 운동에 함께 모였던 젊은이들 중 300명은 전통적인 침례교회로 나누어져 갔습니다. 그 교회가 이들을 환영하고 받아주었기 때문이고, 조직적이지 못했고, 전통적인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 침례교회는 나중에 800명까지 성장했고, 내가 전통적인 교회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런 교회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곳에서 목사님과 집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후보가 무엇인지, 헌금이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

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움은 시간이 매우 걸렸고, 나에게서는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이후 나는 은사주의적 교회로 연결되었습니다. 18세에 California로 이주했고, 남가주에서 아주 좋은 성경공부 모임에 연결되었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여기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나의 아내는 간호사이고 간호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우리는 21살에 결혼했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의 소명에 충실하고, 아내는 간호사의 소명에 충실할 수 있는 것에 매우 기뻐합니다. 나는 20대 초반에 전임 사역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성회 교단에서 Youth Group과 Worship 담당자로 섬겼습니다. 그때 나는 Vineyard 운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운동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운동의 중심지가 바로 Orange County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곳 Orange County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아내는 여기에서 직장을 잡고, 나는 여기에서 Vineyard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내가 30세가 되었을 때 나는 Vineyard Church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1980~1985년 정도에는 Vineyard 안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야 한다거나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매뉴얼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 Wimber(John Wimber)가 목회하는 에너하임 빈야드 교회(Anaheim Vineyard Christian Fellowship)에 성도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존 Wimber 목사와 함께 해외 사역들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Orange County에서 Vineyard Church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거기 개척 멤버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도 Vineyard 교회 개척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1년 반 후에 문을 닫았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Newport Vineyard 지역에 속하게 되었고, 목회 Staff으로 연결되어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즐거운 일은 목회자로서 평신도를 만나 상담해주는 일입니다. 난 상담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담 학위를 받기 위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 10년을 사역 한 후 나는 교회 개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Vineyard 운동에 뛰어들 지 15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Newport 지역에서 다녔던

Vineyard 교회에서 약 25miles 떨어진 곳에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 습니다. 그러나 교회 개척 결정이 나고 4일 뒤 아내와 두 아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정면충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픽업트럭이었는데, 비가 오는 가운데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 너무 빨리 달렸던 것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사람은 죽 었고, 아내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이들은 다행히 많이 다치지 는 않았지만, 아내는 뼈가 50군데나 부러졌었습니다. 외부로 부러진 뼈가 보이는 곳만 세 곳이나 되었습니 다. 그녀는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다행히 영구적인 상처 없이 기적적으로 치료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그녀는 부러진 뼈를 치료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경 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 개척은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사고 후의 시간을 그 교회의 식구들이 함께 해주었고, 이후 나는 사랑과 관 심이 필요한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중국 여행으로 가정 교회를 방문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어떤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들은 선교사역으로 얻은 상처가 참 많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섬겼는데, 그들의 증개로 우리는 중국 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인들이 중국으로 와서 중국 교회의 열정을 보 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그들의 초청을 받아 가정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에게 전통적인 교회에서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Q2. 당신의 교회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A. 주일에 우리는 대부분 고정된 한 집에서 만나는데, 그 집은 Benson의 집입니 다. 그때 나는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5명의 에베 인도자가 있는데, 그들은 10대에서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 리의 가정 교회에서 나는 기능적으로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면에 서 나는 권위적인 위치이기보다는 목자입니다. 결혼 주례도 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 가정 심방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하는 그런 일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 다. Vineyard 교단의 목회자들 모임에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진 목회자의 위치가 주는 정신적인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4, 5개월에 한 번 정도는 Lectio Divina(수도사들의 전통을 따르는 기록한 독서)를 합니다. 세 사람이 한 그룹으로 같이 성경 말씀 하나를 뽑아서 돌아가면서 읽는데, 세 번을 읽습니다. 이 그룹은 모든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구성됩니다. 함께 읽은 후에는 각자가 이 본문을 조용히 묵상하며 읽도록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큰 소리로 함께 이 본문을 읽고, 이후에 조용히 혼자 묵상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한 것들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럴 때마다 놀라운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전통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목회자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서 이 교회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 듣고 내려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목회자는 모세와 같은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것을 정리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도 가끔은 전통적인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난 아주 설교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듣게 되는 그 나눔보다 더 훌륭한 설교를 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나눔을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 놀라게 됩니다.

Q3. 당신이 생각하는 유기적 교회는 무엇입니까?

A. 지금 제 생각에는, 가정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이 마치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교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 대안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가정 교회와 같은 유기적 교회들만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소비주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성도들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갈 때 가지는 마음은 ‘이 교회가 나(내 자녀들, 내 가정)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었다면, 유기적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Vineyard에서 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역할이 있다. 우리가 역할

을 하게 된다.’ 그게 Vineyard 사역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으로 알게 되지만, 실제로는 전통적인 교회의 구조 상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 교회 혹은 유기적 교회는 어린아이에서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20퍼센트가 일하면서 일하지 않는 80퍼센트를 이끌어가는 구조이지만, 가정 교회는 모두가 함께 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멋진 경험입니다.

Q4. 나는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가 8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만일 추가하거나 뺄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당신이 보내준 8가지 유기적 교회의 핵심원리는 아주 잘 요약한 것 같습니다. 더 손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8가지 원리가 어떻게 실천되는가 하는 점은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가 중국에서 보았던 가정 교회가 이 8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는 맞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5. 유기적 교회는 지극히 서구적인 사고방식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까?

A. 중국의 가정 교회가 내 목회 방향의 모델이 되었듯이, 유기적 교회라는 것이 반드시 서구적인 사고방식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Q6. 당신의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에서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을 시도한 교회라고 소개받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환의 목표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A. 나는 전통적인 Vineyard 교회를 개척했고, 처음에는 학교를 빌려서 쓰다가 3년 뒤 교회 건물을 빌렸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약 100여 명이었고, 장소는 세들백 교회에서 약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좋게 여겼습니다. 세들백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인상을 주었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고,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한 탄력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미국 교회 시스템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소비자의 체질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대형 교회들은 그것을 보고 공략했고,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교회가 마켓처럼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해주었습니다. 교회가 어린이 사역, 청년 사역 등등 모든 사역을 한다고 광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 교회가 당연히 승부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작은 마켓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대형 마켓을 가고, 거기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8년간의 사역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는 전통적인 교회를 경험했던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8년이 되었을 때,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 있으니 너희가 이곳으로 오라!'는 전통적인 서구식의 사고에 젖어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는 '매력적인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새들백 교회가 근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임대하고 있는 교회 건물의 비용문제 때문에 한동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좋은 건물이 있어야 했고, 다행히 우리가 빌린 건물은 좋았지만, 비용은 매우 비싼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형편에 맞지 않았고,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전통적인 교회를 고수하는)을 하지 않게 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나는 그에 대한 대답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가정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전에 그런 가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나는 교회가 서커스를 하는 것에 지쳐있었습니다. 나는 단순해지고 싶었고, 교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취하면서도 다른 것들은 다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대신에 사랑과 돌봄이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정 교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는 아주 오래전에 경험했던 가정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정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찾기 시작했고,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앨런 허쉬(Alen Hirsch)가 쓴 *The Forgotten Ways*라는 책이 나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속한 이 문화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새롭게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미국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의 문화와 잘 맞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두 가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었는데, 첫째, 세상에서 숨어서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과 둘째, 전통적인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정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시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막상 이런 교회로 전환을 시도하겠다고 Vineyard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7년 전의 일입니다. 7년 전만 해도 전통적인 교회의 사람들은 가정 교회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 교회를 '교회이고 싶어 하지만, 진짜 교회가 아닌, 혹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교회의 성공을 사이즈로 판단합니다. 교회 리더로 성공한다면 큰 교회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했다.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 교회를 하게 되었을 때 정말 힘들었던 것은 가정 교회를 어떻게 하는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교회가 하는 것들을 어떻게 버리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관해 전혀 의문을 품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단순해지면 버릴 것이 많은 것처럼, 또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것처럼, 나에게도 전통적인 교회의 배경을 벗어버리고 유기적 교회로 가는 것에서 성도들과 함께 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처음부터 확 바꾸면 모든 것이 흥미롭고 흥분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한동안은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피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충분히 슬피하고, 새로운 변화들과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 옛날의 좋은 것들을 새롭게 재정립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 자

신이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곳이 가정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통적인 교회를 배우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던 것처럼,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을 배워야 하는 성도들의 입장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정 교회로 전환한 지 5년이 지나서(약 2년 전부터)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나에게 찾아와서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교회가 살아 움직이기는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통적인 교회들이 지금 큰 문제들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으로 큰 문제를 겪는 교회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가기를 원하지 않고, 큰 건물을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교회들이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형태의 교회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Q7. 유기적 교회로 전환하면서 지불해야 했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건물, 재정, 사람, 환경 등의 변화)

A. 중국의 가정교회를 방문하고 난 후 6개월간 저는 더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교회를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장로님들을 설득하고, 교회 전체가 모이는 공청회를 열어 질문을 받고 대답해 주는 과정을 기쳤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즈음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를 문을 닫고 가정 교회를 알아보겠다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의 절반이 이것이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절반은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를 끝내는 것을 큰 행사로 기획했습니다. 지난 8년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축제를 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향수를 하나씩 선물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 8년간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상징하는 의미의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느 교회로 가든지 이 향수를 가지고 가서 지난 8년간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 교회에 부어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절반이 전통적인 Vineyard 교회로 돌아갔고,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절반은 나와 함께하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안 남았습니다. 이 행사가 그런 일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그때 떠났던 사람들과 만나면 서로 반갑고 좋은 감정들만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를 하는 Vineyard 교회의 목사들과 내가 편하게 지내는 이유는, 그들이 원래 했어야 하는 개혁주의 교회를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는 언제나 그들과 편안한 관계를 가지고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섬기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남아있는 성도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를 하는 방식을 버리는 것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나는 먼저 남은 50명으로 3개의 가정 교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아이디어는 이 3개의 가정 교회들을 목회자로 내가 심방하며 돕는 것이었습니다. 순회 설교자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3개의 교회 중 하나는 1년 뒤에 문을 닫았는데, 그건 내 잘못이 컸습니다. 그들은 내가 현실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해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초기에 많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4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이 그룹의 사람들은 이사를 많이 가서 사람이 많이 남지 않아 세 번째 그룹으로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6년 전에 시작된 3개의 가정 교회 가운데 하나는 1년이 지난 후 없어졌고,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또 하나의 가정 교회가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만일 내가 이러한 전통적인 교회에서 가정 교회로의 전환을 또다시 시도 할 수 있다면,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세 개의 그룹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그룹으로 시작해서 점점 분가하는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나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처음 3개의 가정 교회로 시작하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Vineyard 안에서는 이것을 따라할 수 있는 교회나 그룹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개척자였습니다. 나 역시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3개의 가정 교회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불안감은 없습니다. 초창기 우리는 세 개의 가정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모였습니다. 만일 우리의 가정 교회

그룹이 더 많아지면 3개월에 한 번은 이와 같은 모임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Q8. 유기적 교회는 성직자 중심의 페러다임을 반대하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인 문제로, 성직자들의 생계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해결점을 제시할 것입니까?

A. 나는 전문 상담가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나는 한 달에 65~70건 정도의 상담을 합니다. 한 주에 15건 정도가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받는 것은 약간의 주택 보조금 정도이고, 나머지 우리의 주된 수입은 간호사인 아내와 내가 상담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회자로 자라온 사람들에게 이 부분은 아주 힘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만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지는 직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주 어렵고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 교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목회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 사례는 줄지라도 건물 비용이 나가지 않거나 다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가정 교회라면 그러한 문제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조언해주었던 것처럼, 가능하다면 목회자 스스로 파트타임(part-time)으로 일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의 장점은, 전통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 즉 우리가 보수를 주고 목회자가 교회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성도들이 자신들과 동일하게 일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들 스스로 목회자들을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전환되어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가정 교회가 더 늘어나서 이것들을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수 천 개의 가정 교회가 한 네트워크 안에 있는데, 그들 가정 교회의 리더들이 대부분 여자들인데 반해, 네트워크의 리더는 보통 남성들입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영향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네트워크는 조직이 갖추어지고 그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있다가 내일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 남성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느

끼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정부의 감시 때문에 드러내놓고 교회를 할 수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 교회의 리더는 여자이지만, 네트워크의 리더는 남자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한 가지 모양은 없으며, 성직자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접근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Q9. 당신은 유기적 교회를 실천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스템이 가정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가정 교회만이 유기적 교회를 실천하기에 최적의 요건을 갖춘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A. 내 경험으로는 맞습니다. 가정에서 만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유기적 교회가 자연적으로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부산물이 가정에서의 모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가정에서 모임 때 우리는 가족으로 모였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최적의 환경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가정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초대 교회가 가정 교회였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Q10.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순서와 모임 장소, 모임 방법 등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우리는 모두 3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일 모임 순서는, 오전 9시에 함께 모여 같이 아침 식사를 나눕니다. 그때 각자의 삶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10시가 되면 거실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어떨 때는 내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우리에게는 5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 중에는 11살 된 여자아이도 있는데, 그녀는 피아노를 치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15살 된 여자아이도 있는데, 그녀는 기타를 치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벤슨도 기타를 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피아노를 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성인 여자와 20대의 젊은 청년이 기타를 치면서 인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순서를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자신이 맡은 날에 예배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멋진 경험을 하고 싶다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예배 인도자로 세우는 이유는, 갖추어진 예배보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 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어떤 예배 인도자는 경험도 풍부하고 참 잘 합니다. 하지만 어떤 예배 인도자는 초보 티가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사랑합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보는 기쁨을 아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거실에 가득 찬 어른들과 청년들이 자신을 예배 인도자로 인정해주면서 자기를 따라와 주려고 할 때 11살 된 그 아이가 느꼈을 감정을 생각해보십시오. 그 원리가 다른 모든 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데, 초보들이 사역을 통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잘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대부분 찬양 후에는 내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설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대부분 5~6가지 정도의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power point를 만들어서 모임 며칠 전에 우리 교회 facebook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날 혹시 결석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의 나눔 주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개척하는 또 다른 교회가 생겨도 이러한 나눔 주제들은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결코 설교는 아닙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제시해주고 우리는 함께 이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모든 세대가 다 함께 나눕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개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러한 이야기를 나눕니다(농담).

오래곤의 교회도 자기들의 facebook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멤버가 아닌 사람들이 함께하기도 하고, 가끔은 내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우리의 멤버들도 가르치기도 하는데, 나처럼 power point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나눔의 틀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한 대로 우리는 4, 5개월에 한 번 정도 Lectio Divina(수도사들의 전통을 따르는 기록한 독서)를 하면서 서로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Q11. 당신의 교회가 전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 우리는 로드 트립(Road Trip)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비그리스도인 친구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정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가정 교회가 너희 집에서 한 번 모였으면 해. 어떻게 생각해? 내가 집만 열어주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 맛있는 찬양의 소리, 기도, 사람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갈거

야.’ 그리고 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우리가 가서 너희 집에서 무엇을 해 줄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요청해도 좋아.’ 그러면 카펫도 닦아주고, 유리도 닦아주곤 합니다. 그렇게 20여 차례 로드 트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경험하여 볼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고, 말씀을 존중하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내보내신 그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사람을 찾거든 거기에 머물며 그들을 축복하라는 그 말씀을 현실적으로 이루어가는 사역입니다. 비록 70명은 아니지만, 작은 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Q12. 유기적 교회로의 전환 가운데 나타난 당신이나 성도들의 변화에 관한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A. 우리의 사명 선언문은 매일 평신도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역량 강화(empowerment) 해 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보통의 삶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벤슨이 사는 그 집과 그 지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벤슨이 사는 이 지역을 축복하기 위해 여기에 모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몇 해 전에 벤슨이 사는 지역이 엄청난 비로 인해 산사태가 났었는데, 약 20여 가구의 수영장과 집이 진흙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네 사람들과 우리 교회 멤버들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건설 장비를 동원해 이틀 동안 그들의 집에 있던 진흙들을 다 치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준 그들은 크리스천들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다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축복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렇게 도와준 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

복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피해를 봤던 집 가운데 한 가정에 우리 멤버인 여자 집사님 가정인데, 그녀의 남편은 아마추어 가수입니다. 몇 주 후에 그가 CD를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교회를 위한 노래를 만들어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 CD의 제목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라'였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노래에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과 함께 그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자신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또, 부활절에 우리는 거리에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동네 한 곳,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작은 공간에 의자를 세팅하고 모든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2월에 산사태를 겪었는데, 4월 부활절 예배 때에 그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Q13. 당신은 가정 교회 네트워크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기를 바라십니까?

A. 현재 우리에게서 두 그룹의 가정 교회가 있는데, 또 다른 그룹이 Oregon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Oregon에 사는 한 여성에 의해 개척이 되었는데, 처음 그녀는 Vineyard에 속한 한 감독에게 자신이 가정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요청했었고, 그녀가 나를 소개해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Oregon에는 가정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 감독은 Vineyard에서 유일한 여자 감독이었는데, 그녀 역시 전통적인 교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도울 방법은 나를 그녀(Rose)에게 소개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3개월 전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가정 교회가 우리의 가정 교회에 속하기를 원한다고 요청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 교회로 전환하면서 주정부에 등록하는 교회 약관을 모두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로서 세금을 면제받는 그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Vineyard 안에서 우리와 연결이 되는 또 다른 가정 교회가 있다면 우리를 통해 세금면제와 같은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개척되는 교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Q14. 전통적인 한국 교회(이민 한인 교회)가 유기적 교회로 전환하는 것에 관해 적절한 조언을 해주십시오.

A. 사명을 교회의 구조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교회 개척은 교회의 형태(사람, 건물 등)를 갖춘 다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나는 그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을 당신의 교회를 통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누구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지를 찾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 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언제 만날 것인가? 주일이 아니어도 괜찮은가?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섬겨야 할 대상이 정해지면 언제, 어디서라는 문제는 그다음에 결정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일 아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파티를 열어주는 것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생각, 똑 같은 교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Q15. 유기적 교회가 지닌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캠퍼스를 중심으로 5,000명 정도가 모이는 신시네티의 전통적인 빈야드 교회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실제적인 가정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다섯 개의 가정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중에서 한 가정 교회는 다른 주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시네티 빈야드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한 교회는 12,000명이 모이는 매가 처치인데, 이미 많은 가정 교회를 개척했고, 100만개의 가정 교회를 전 세계에 개척하고 싶어 합니다. 이들 교회는 하이브리드식의 가정 교회를 만들어냈는데, 그들은 가정 교회를 개척할 멤버들을 공식적으로 모으고 실제로 가정 교회를 시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만 설교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설교를 듣도록 합니다. 그 이후 나머지 모든 것은 다 가정 교회의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유기적 교회는 단 하나의 모양으로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한계라는 것 또한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Q16. 마지막으로 논문을 쓰고 있는 저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A. 내가 전통적인 교회의 전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많은 조언은 이러한 전환이 사이즈를 줄이고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유지하면서 사이즈만 작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리더가 될 수 있고, 교회가 진흙을 파내주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크게 하던 것을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해 오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 교회의 리더는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들이야 그런 목사님을 원하겠지만,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정 교회는 그런 대형 교회의 멋진 설교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큰 교회가 멋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이 가정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해서 우리 집의 진흙을 파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큰 교회는 더 큰 일을 하겠지만, 가정 교회 역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특수 부대가 작은 수이지만 맡은 일을 잘 완수해내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둘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록 1

유기적 교회 사례 인터뷰 3.

인터뷰 대상 : 이남하(미국 워싱턴, 볼리비아 라파스, 한국 서울, 파주, 경산, 울산, 부산, 전주, 제주도의 유기적 교회)

인터뷰 날짜 : 2015년 12월 27일

인터뷰 방식 : 이메일을 통한 서신 인터뷰

Q1. 목사님께서 어떻게 유기적 교회를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A. 20대 후반에 목회자가 되어 복음주의자로서 목회 18년 하는 동안 성경공부, 제자훈련, 셀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달리면서 보람도 있고 자부심도 있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제일 좋은 것은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인데 왜 이 땅에 살려두시는가?” 였습니다. 물론 교인들이 이 질문을 하면 “그것은 이 땅에 지옥 가는 사람들을 구원 시키고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대답해주었지만, 그것이 저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와서 burn-out 되고 허탈해졌을 때 제자들의 권유로 목회를 쉬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한 권의 책이 오늘의 제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 책으로 시작해서 유기적 교회에 관한 책들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창세 전 목적이 바로 구원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제도권 교회가 아닌 유기적 교회입니다. 구원은 그 교회로 가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교회를 이미 이루고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함께 교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Q2.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유기적 교회에 대해 정의해 주십시오.

A. 유기적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과 사랑의 교체가 이 땅에, 그리고 영원히 확장된 상태라고 봅니다. 즉,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 그대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여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죽은 후가 아닌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영원토록 가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머리가 되는 몸으로서의 교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인간이 간판 달고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체요 인격체인 교회를 낳으셔야 한다는 것. 각 지역에서 인간 지도자 없이 모든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Q3. 목사님께서 지금 섬기시거나 도움을 주고 있는 유기적 교회들에 대해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1) 교회의 위치

A. 미국 워싱턴, 남미 볼리비아 라파스, 한국 서울, 파주, 경산, 울산, 부산, 전주, 제주도

2) 교회의 이름

A. 교회의 이름이 달리 없습니다. 교회가 있는 위치가 곧 교회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교회의 구성원 숫자

A. 미국 워싱턴 6가정, 남미 라파스 15가정, 한국 서울 10가정, 파주 5가정, 경산 7가정, 울산 15가정, 부산 24가정, 전주 12가정, 제주도 9가정

4) 교회 운영 방식

A. 딱히 운영 방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각 지역의 교회가 알아서 합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 결정합니다. 저는 순회 사역자로서 측면 지원, 즉 교회가 요청하면 돕는 식으로...

5) 예배의 순서 및 방법

A. 신약성경의 예배는 요한복음 4장과 로마서 12장에 의하면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기록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므로, 교회가 모일 때는 예배하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예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받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서와 방법은 없습니다. 대개 모여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6) 교회의 활동들

A. 대개 일주일에 한번 전체 모임을 진행하고, 주중에는 자유자재로 모임을 갖습니다. 자매 모임, 형제 모임, 기도회, 등등. 그리고 각 지역 교회가 알아서 필요한 활동들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부담은 없고 필요할 때 합니다.

7) 전도 방법

A. 전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 역시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또 각 지역 교회가 알아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됩니다.

8)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으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네트워크의 이름도 알려주십시오.(혹시, 지역별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졌는지도 말씀해주십시오.)

A. 같은 복음을 따라 유기적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며 교제합니다. 이것은 교단이나 sect가 아니므로 자발적으로 오고 가는 교제입니다.

Q4. 제가 생각하는 유기적 교회의 핵심 원리는 모두 8가지입니다. 각 핵심원리에 대해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역을 통해 깨닫게 된 것들을 중심으로 평가해주시십시오.

1) 성직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깨뜨리다

A. 교회는 새로운 창조세계이므로 구약의 성직자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가 계급 없이 유기적으로 몸을 이루는 것이므로 성직자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와 교제하는 교회들 안엔 이전에 목회자였던 사람들이 열 명 이상 있는데 모두 목회를 내려놓고 다른 지체들과 똑 같은 위치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성직자가 아닌 순회 사역자로서 교회를 측면 지원할 뿐이지, 개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머리이신 예수님 아래서 살아갑니다.

2) 건물 중심의 패러다임을 벗어나다

A. 건물은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안의 관계성이자, 건물이라는 것은 모임 장소라는 것 이외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집에서 모이든, 들판에서 모이든, 공회당에서 모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가정 교회(House Church)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모였다고 무슨 영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모이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신 몸으로서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 교회의 모든 통제권을 그리스도께 드리다

A.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므로 당연히 머리이신 예수님만이 통솔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 누구도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무슨 헌법이나 규약이나 조직이나 관행에 의해 교회가 돌아가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민감해야 하겠지요.

4)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다

A. 교회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를 이루므로 하나님의 가족이지요. 그러므로 육신의 가족 안에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하는 모든 일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져야 하겠지요.

5) 기능적 사고방식으로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하다

A.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재주가 발견되듯 성령의 은사도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므로 은사의 개발을 강조하거나, 은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사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유기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역 교회에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셨을 테니까 필요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6) 작고 단순하며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다

A. 작고 단순하고 친밀하다고 해서 교회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요즈음 작은 교회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본질을 모르고 무조건 작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작고 큰 것은 교회와 관계없다고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세 전 목적을 따르는 복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유기적 집합체이므로 그런 복음을 공유하지 않고 어떤 건전한 모임을 이룬다고 해도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약성경이 말하는 총체적인 복음을 공유하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7) 유기체의 자연스러운 증식을 이루다

A. 증식이라는 것은 생명의 원리이므로 우리가 목표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벌어지면 벌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의식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증식하도록 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해 부담을 갖는 것은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8) 하나의 교회, 네트워크로 발전하다

A.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해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다만 우리가 각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모임을 이루고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한 교회 소속입니다. 설사 유기적 교회 안에 있지 않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한 교회 소속입니다. 하지만 아직 깨우침을 받지 않아서 제도권 교회에 속해서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교파나 sect처럼 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땅에서 신약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알아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만의 교회나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교제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Q5. 목사님이 섬기시거나 도움을 주고 있는 유기적 교회들을 위의 8가지 핵심원리에 비추어서 평가해주시시오.(가급적 개 교회로 하시면 좋겠고, 내용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것끼리 분류해서 평가해주셔도 됩니다.)

A. 1) 경산교회, 울산교회, 부산교회

이 교회들은 10년 전까지 교단에 속했던 교회들입니다. 담임목사님들이 오래 전에 저와 함께 쉼 교회 운동을 하던 분들인데, 제가 여러 해 동안 연구하기 위해 사라졌다가 유기적 교회를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교제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깨닫고 목회를 내려놓고 제도권 교회를 유기적 교회로 바꿨습니다. 유기적 교회로 탈바꿈하면서 교인들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나고, 유기적 교회로 살고 싶다는 사람들만 남아서 교회를 이루어왔습니다. 목사님들은 목회를 다 내려놓고 지체들과 똑 같은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 두 분은 지금 50대 후반인데, 40대 후반에 목회를 내려놓고 생업에 뛰어들어 한 분은 대리기사를 거쳐 지금 학원 버스 운전사로, 다른 한 분은 건설 인부를 거쳐 지금 목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지금 60대 후반으로서 50대 후반에 목회를 내려놓았는데 심장병이 발병하여 일을 할 수 없으므로 교회의 지체들이 사랑으로 support 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세 교회 모두 다 교회 건

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가정집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 새 교회는 이전에 왕성한 셀 교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친밀하고 가족처럼 지내는 것에 익숙한 것이 유기적 교회의 삶에 방해가 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르고 자기 교회 안에서의 친밀함과 제자도와 전도와 선교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역에 올인 했기 때문에 참 복음을 알고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한참 걸렸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에 의해 자연스럽게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교회를 지향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기적 교회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이전의 셀 교회처럼 우수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강한 지도력과 인위적인 사역과 네트워크 형성에 힘쓰다가 한번 크게 소용돌이를 겪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복하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되심 아래 자연스러운 유기적 교회로 살고 있습니다.

2) 볼리비아 라파스 교회

제가 7년 전에 말씀 사경회를 하러 가서 하나님의 창세 전 목적을 전했을 때 목사님과 몇 분들이 복음을 알아듣고 우여곡절 끝에 유기적 교회로 전환한 교회입니다. 많은 반대와 방해공작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담임목사 부부와 이 교회를 40여 년 전에 세운 9순의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 그리고 몇 분의 집사님들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들었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입니다. 아마 유기적 교회 역사에 유례없는 케이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담임 목사가 원해도 장로들과 제직들이 반대하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교인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났지만 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유기적 교회의 기본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담임목사 부부가 매년 제가 있는 워싱턴 교회에 와서 한두 달씩 머물면서 교회를 경험하고 돌아가서 그대로 교회에 적용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교회 장로나 집사들 중에도 워싱턴이나 한국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보고 확신을 얻은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담임목사는 이제 복회는 다 내려놓고 다만 복음의 말씀을 알게 하는 역할만 합니다. 아직 교회 건물은 그대로 있지만 강대상이나 장의자를 모두 없앴고, 예배 순서와 모든 교회의 조직이나 직분 역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임은 교회 건물에서도 하고, 가정집을 돌면서도 합니다. 날이 갈수록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유기적 교회의 모습이 많이 드

러나고 있습니다.

3) 워싱턴 교회

제가 6년 전에 이사 온 후 몇 가정과 함께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홉 교회들 중 유일하게 제가 함께 살면서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때가 되면 저는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또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의 역할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그것을 살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엔 알아듣는 등 마는 등 하던 지체들이 지금은 복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부부가 몇 년간 sandwich shop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인들은 이제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알고, 즉 교회를 이루는 것이 유일한 목적임을 알고 그것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몸에 배어나가는 중입니다.

4) 전주교회

이 교회는 장로교회에서 있던 일곱 가정이 13년 전 가정 교회를 하겠다고 나와서 이루어진 교회인데, 11년 동안 자기들끼리 교회를 이루며 이것저것 다 적용해보다가 지치고 반 이상 교회를 떠나 거의 와해되기 직전 저에게 연락이 와서 도움을 청한 교회입니다. 1년 반 전에 제가 가서 보니 총체적인 복음은 알지 못하고 전통적인 복음 위에 가정 교회를 하려고 하나가 힘들어진 케이스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목적 위에 교회를 다시 시작했을 때 떠났던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새롭게 여러 가정이 합세하여 지금은 다시 탄탄한 교회를 이루고 있고 날로 새로운 사람들이 join 하고 있습니다. 5, 6개월에 한 번씩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려주는데, 갈 때마다 놀랍게 변하는 이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더 깊게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5) 서울교회, 파주교회, 제주도교회

이 세 교회는 1년 전쯤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1년 전에 가서 세미나를 통해 복음을 알아듣고 교회로 발돋움한 케이스입니다.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 받고 유기적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일일이 모든 교회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모두가 인간 지도자 없이 동일한 지체들로 유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순회 사역자인 제가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

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Q6. 한국과 이면 사회에서 유기적 교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A. 좋은 점은 성경이 말하는 총체적인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의 삶이 놀랍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될 때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맹목적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가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은근한 부담으로 살아왔던 신앙생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싶은 강렬한 열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복음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어려운 점은 이런 복음을 알아듣고 그 복음을 따라 결단하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아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면 따라 오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 종교가 전파한 반쪽짜리 복음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아들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아직 못 알아들은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교회생활을 통해 검증이 되면서 결국 참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할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만큼 이전의 제도권 복음에 물든 것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제가 이전에 이 복음을 깨닫고 한국의 목회자들을 상대로 아홉 번의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거의 모두 이 복음에 동의했지만, 실제로 목회를 내려놓고 유기적 교회의 지체로 살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복음을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따라 좁은 길을 가겠다고 과감하게 목회를 내려놓고, 지금의 제도권 생활을 탈출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지요.

Q7. “포스트모던 시대 유기적 교회(Organic Church)의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용을 위한 핵심 원리”라는 논문을 쓰고 있는 저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을 해 주십시오.

A. 당부라기보다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기적 교회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핵심입니다. 소위 유기적 교회를 한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는데 모두 좋은 교회, 우수한 교회,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지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우상숭배라고 봅니다. 유기적 교회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올인 해야지 자기가 꿈꾸는 교회의 청사진이 존재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복음,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말한, 성령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교회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교회의 지체로 살아보고 경험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이 목사님도 목회를 다 내려놓고 그런 교회의 지체로만 살겠다는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지만... 앞으로 주 안에서 좋은 교체가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참고 문헌

1. 국문 서적

- 교회성장연구소. *교회 선택의 조건 - 한국교회 교인의 수평이동 및 교회 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보고*.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 _____. *한국교회 경쟁력 보고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6.
- 권태산. *변화*. 서울: 새한기획, 2009.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 후기 및 자료집*. 서울: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4. 홈페이지:
<http://trusti.tistory.com/938>
- 김광선. *성경적 제직*. 고양, 경기: 세계교회부흥선교회, 2011.
- 김세윤. *고린도전서 강해*.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 김영선. *참된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 김영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세계관*.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9.
- 김운용.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설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7.
- 김준호, 홍진환. *코앰블루션*, 서울: 한스컨텐츠, 2011.
- 노충현. “한미준·한국 갤럽 ‘크리스천의 교회 활동과 신앙 생활 분석’ 리서치.”
기독교신문 (2005년 2월 1일).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75>.
- 송인규.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7.
-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파주, 경기: 살림, 2009.
- 오강남, 성해영.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서울: 북성재, 2013.
- 위거찬. *기독교와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 이상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 서울: 브니엘, 2007.
- 이성희. *미래목회 대 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2000.
- 이정구. “포스트모던 문화에서의 전도전략-공능교회 청년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2.

- 이혁배. *한국 기독교 윤리 쟁점*. 서울: 동연, 2010.
- 이형기.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기독교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3.
- 최동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 성장*. 서울: 서로사랑, 2011.
- 최윤식.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 한미준. 한국 개혁신.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 조사보고서: 타종교인 및 비종교인과의 비교분석*. 서울: 두란노, 1998.
- 한상화. *포스트모던 사상과 복음주의 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2. 번역 서적

- Anderson, Leith. *21세기를 위한 교회 (A Church for the 21st Century)*. 황성철 역. 서울: 솔로몬, 1997.
- Banks, Robert. *바울의 공동체 사상 (Paul's Idea of Community)*. 장동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0.
- Barna, George. *물 밖의 물고기 (A Fish out of Water)*. 김주성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 Barrett, C. K. *고린토전서(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국제성서주석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Vol. 35. 한국신학연구소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 Belcher, Jim. *깊이 있는 교회 (Deep Church)*. 전의우 역. 서울: 포이에마, 2011.
- Bilezikian, Gilbert. *공동체 (Community 101)*. 두란노 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09.
- Branick, Vincent P.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The House Church in the Writings of Paul)*. 홍인규 역.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5.
- Bruce, F. F. *테살로니가 전후서(Word Biblical Commentary vol 45. 1 & 2 Thessalonians)*, WBC 성경주석 Vol. 45. 김철 역. 서울: 솔로몬, 2000.
- Castells, Manuel. *네트워크 사회 (The Network Society)*. 박행웅 역. 파주, 경기: 한울, 2009.

- Cole, Niel, and Phill Helfer. *교회 트랜스퓨전 (Church Transfusion)*. 안정업 역. 고양, 경기: 스텝스톤, 2014.
- Cole, Niel. *LTG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Life Transformation Groups)*. NCD 편집부 역. 성남, 경기: NCD, 2007.
- Cole, Niel. *교회 3.0 (Church 3.0)*. 안정업 역. 고양, 경기: 스텝스톤, 2012.
- Cole, Niel. *오가닉 처치 (Organic Church)*. 정성목 역. 안산, 경기: 가나북스, 2010.
- Drane, John. *초대교회의 생활 (An Illustrated Documentary)*. 이중수 역. 서울: 두란노, 1992.
- Everts, Don, and Doug Schaupp. *포스트모던 보이 교회로 돌아오다(I Once Was Lost)*. 장혜영 역. 서울: 포이에마, 2006.
- Frost, Michael, and Alan Hirsh. *새로운 교회가 온다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 지성근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1.
- Garrison, David. *하나님의 교회개척 배가운동 (Church Planting Movement)*. 이명준 역. 서울: 요단, 2005.
- Gelder, Craig Van. *선교하는 교회 만들기 (The Essence of the Church)*. 최동규 역. 서울: 베다니, 2003.
- Gibbs, Eddie. *넥스트 처치 (Next Church)*. 임신희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3.
- Grenz, Stanley J.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포스트모던 시대와 기독교의 복음 (A Primer on Postmodernism)*. 김운용 역. 서울: 에베와설교아카데미, 2010.
- Hendriksen, William. *에베소서: 핸드릭슨 성경주석*. 신성종 역. 서울: 아가페, 1983.
- Kinnaman, David, and Fermi Project. *나쁜 그리스도인 (Unchristian)*. 이해진 역. 파주, 경기: 살림, 2008.
- Kü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Was ist Kirche?)*. 이홍근 역. 칠곡, 경북: 분도, 1994.
- MacArthur, John F. Jr.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Ashamed of the Gospel)*. 황성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0.
- MacArthur, John F. Jr.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The Master's Plan for the Church)*.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 Neighbour, Ralph W. Jr. *그리스도의 몸 (Christ's Basic Bodies)*. 최은정 역. 고양, 경기: NCD, 2009.
- Schaff, Philip. *교회사전집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제1권 사도적 기독교. 이길상 역. 고양,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 Shirky, Clay. *끌리고 끌리고 들끓다 (Here Comes Everybody)*. 송연석 역. 서울: 갤리온, 2011.
- Simpson, E. K., and F. F. Bruce. *뉴인터네셔널 성경주석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이장립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8.
- Simson, Wolfgang. *가정교회: 침투적 교회 개척론 (Houses That Change the World: The Return of the House Churches)*. 황진기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 Slaughter, Michael, and Warren Bird. *미래를 담은 교회 (Unlearning Church: Just When You Thought You Had Leadership All Figured Out)*. 김형원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 Snyder, Howard A.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The Problem of Wineskins)*.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 Sölle, Dorothee. *신비와 저항 (Mystik und Widerstand)*. 정미현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2007.
- Sweet, Leonard I. *관계의 영성 (Out of Question, into the Mystery)*. 윤중석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1.
- Sweet, Leonard I.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The Gospel According to Starbucks)*.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Sweet, Leonard I.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Aqua Church)*.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4.
- Sweet, Leonard I.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Postmodern Pilgrims)*.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2.
- Sweet, Leonard I., and Frank Viola. *예수 선언 (Jesus Manifesto)*, 장택수 역.

- 서울: 넥서스CROSS, 2011.
- Viola, Frank, and George Barna. *이교에 물든 기독교 (Pagan Christianity?)*. 이남하 역. 대전: 대장간, 2012.
- Viola, Frank. *1세기 관계적 교회 (Rethinking the Wineskin)*. 박영은 역.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리리, 2007.
- Viola, Frank. *누가 교회의 권위자인가? (Who is Your Covering?)*. 김명숙 역. 서울: 미션월드, 2008.
- Viola, Frank. *다시 그려보는 교회 (Re-imagining Church)*. 이남하 역. 대전: 대장간, 2013.
- Viola, Frank. *유기적 교회 세우기 (Finding Organic Church)*. 이남하 역. 대전: 대장간, 2013.
- Warkentin, Marjorie. *안수: 성경적 역사적 견해(Ordination)*. 김영봉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7.
- Watts, Duncan J. *Small World-여섯 다리만 건너면 누구와도 연결된다(Six Degrees)*. 강수정 역. 서울: 세종연구원, 2004.

3. 외국 서적

- American Society for Church Growth. *Enlarging Our Borders: A Report Presented to the Executive Presbytery January 1999*. Corunna, IN: the Society, 1999.
- Brunner, Emil. *The Misunderstanding of the Church*. London: Lutterworth Press, 1952.
- Clement of Rome. *The First Epistle of Clement to the Corinthians*, XXXVII, XL. In *Ante Nicene Fathers*. Edited by Arthur Cleveland Coxe.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 1994.
- Culler, Jonathan. *On Deconstruction: Theory and Criticism after Structuralism*.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2.
- Durant, Will. *Caesar and Christ: A history of Roman Civilization and of*

- Christianity from Their Beginnings to A.D. 325*,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44.
- Giving USA. 2010 The Annual Report on Philanthropy for the Year 2009.
http://cfbroward.org/cfbroward/media/Documents/Sidebar%20Documents/GivingUSA_2010_ExecSummary_Print.pdf.
- Grenz, Stanley. *Created for Community*.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8.
- Hirsch, Alan. *The Forgotten Ways: Reactivating the Missional Church*.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9.
- Ignatius. *The Epistle of Ignatius to the Smyrnaeans*, VII. In *Ante Nicene Fathers*. Edited by Arthur Cleveland Coxe.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 1994.
- Irenaeus. *Adversus haereses*. In *Ante Nicene Fathers*. Edited by Arthur Cleveland Coxe.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 1994.
- Kelly, Gerard. *RetroFuture: Rediscovering Our Roots, Recharting Our Rout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9.
- Kosmin, B. A., and A. Keysar. *American Religious Identification Survey*. Hartford, Conn.: Trinity College, 2008.
- Lightfoot, J. B. *The Christian Ministry: In Saint Paul's Epistle to the Philippians*. Wheaton, IL: Crossway Books, 1994.
- Peterson, Eugene. *Christ Plays in Ten Thousand Places*. Grand Rapids, MI: Eerdmans, 2005.
- Seeberg, Reinhold. *The History of Doctrines*. Grand Rapids, MI: Baker Book, 1961.
- Stetzer, Ed. "Understanding the Emerging Church." *Baptist Press* (January 6, 2006). <www.sbcbaptistpress.org/bpnews.asp?ID=22406>.
- Stetzer, Ed., R. Stanley, and J. Hayes. *Lost and Found: The Younger Unchurched and the Churches That Reach Them*. Nashville, TN: B&H, 2009.

- Volf, Miroslav. *After Our Likeness: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1998.
- Ward, Peter. *Liquid Church: Growing Faith Where Life Happen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06.
- Willis, Arthur. *The Radical Christian*. Columbia, MO: Cityhill Publishing, 1987.

Vita of
Junhyung Lee

Present Position:

Assistant Pastor of Together Presbyterian Church

Personal Data:

Birthdate: November 7, 1974
 Marital Status: Married to In Sil Kim with three children,
 Esther, Daniel, and Kristine Yejoo
 Home Address: 590 N. Los Robles Ave. #5. Pasadena, CA
 91101, USA
 Phones: 626-200-7428
 Denominatio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April 22, 2008

Education:

B. M.: Youngnam University, Kyungbuk, Korea,
 2000
 M. Div.: Youngnam University and Seminary,
 Kyungbuk, Korea, 2006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6

Personal Experience:

10/2012 to present: Assistant Pastor
 Together Presbyterian Church, LA, CA,
 USA
 10/2010 to 04/2012: Assistant Pastor
 Pohang Dongbu Presbyterian Church,
 Pohang, Korea
 08/2007 to 12/2009: Evangelist and Assistant Pastor

Seonchang Presbyterian Church, Daejeon,
Korea

10/2004 to 07/2007: Evangelist

Daegu Namsan Presbyterian Church,
Daegu, Korea